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서기 2004년·음력12월 23일) 1월 14일 수요일(주간) 제456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내게 있으면 '하나' 지만 나누면 '홍' 됩니다

'나눔'의 현장에서 만나자… 불교계 총출동





새해 불교계의 공동 화두는 '나눔'이다. 신년 벽두부터 각 종단과 단체들이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을 발원하고 나섰다. 내게 있으면 '하나'지만 이웃과 나누면 둘도 되고 셋도 넷도 된다는 가르침이야 말로 이 시대 불자들이 가장 확고하게 받들어야 할 진실인 것이다.

자비의 보험금 나누기…조계종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 조계종이 2월부터 대대적으로 펼치는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은 이런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보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피보험자가 수령하는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종단에 보시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스님들의 노후복지 공간 마련과 후원, 불우이웃 지원 사업 등을 벌이는 운동이다. 스님 가입자의 경우 사망보험금 100%를 보시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신도나 일반인들은 사망보험금 중 10%를 보시해 승가노후복지에 기여한다. 승가는 대중을, 대중은 승가를 돕는 말 그대로 '나눔 운동'인 셈이다.

보험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사회복지 지원센터와 재가불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사용된다.

1사찰 1선행하기…태고종

태고종은 '1사찰 1선행 실천운동'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에 나선다. 소속 2천여 사찰이 1가지 선행을 펼친다면 '이웃과 함께 하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불교와 종단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앞으로 태고종 스님들은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애인 가정, 재소자, 군법당 등의 분야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선행에 참여해야 종무직 취임이 가능해진다.

태고종은 이 같은 각 사찰과 지역종무원의 복지활동을 종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 사회복지재단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나누며 하나되기…천태종

지난해 미아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불교복지의 새 분야를 개척한 천태종은 올해는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와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소외된 이들과 후원금, 시간, 정신을 함께 나누는 운동을 전개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3:1 릴레이 운동'도 펼친다. 정부의 실업 · 생계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결식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것이 취지다. 3:1 릴레이는 3명의 후원자가 1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또 다른 회원을 연결하는 릴레이 후원 운동이다.

행복 릴레이 동참하기…진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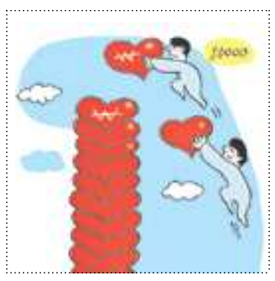
초승달이 점점 차올라 보름달이 되 듯 불우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회원을 점차 늘려 나가는 운동. 진각종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행복 릴레이 만월회(萬月會 또는 滿月會) 캠페인'이다.

진각종도 후원회원 확대를 위해 릴레이 방식을 도입했다. 회원들은 어려운 이들을 후원할 성금 1만원을 매월 적립하고, 뜻을 나눌 또한명의 회원도 추천한다. 이렇게 모집할 인원은 1만명.

모금된 후원금은 진각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납골당 건립, 소외가정 후원 프로그램인 진각복지 119 특화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명우 · 박봉영 기자





'나눔의 손잡기 운동'
현대불교 2월부터 전개

현대불교신문은 2월부터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지상 캠페인과 나눔의 방법 안내, 도움받아야 할 곳 소개는 물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제안 합니다.



세계 청년불자 300명 '나눔과 하나됨' 다짐

세계불교청년포럼 성료

세계 각국의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불교청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WFBY) 한국본부는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회 세계불교청년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나눔과 하나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미국, 일본, 호주, 네팔, 몽골, 벨기에, 인도 등 13개국 19개 청년불교단체와 대만불교청년협의회 고문 찡야오 스님, <청바지를 입은 부처>의 저자 수미 런던(인터뷰 14면), WBO(Western Buddhist Order, 서구불교도기구) 대표 달마차리 수바즈라(Dharmachari Suvajra)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밖에 12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불자들의 모임인 '국제클럽25'가 세계불교청년우의회 산하단체로 공식 출범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한상희 기자, 사진= 고영배 기자

"모든 종도 수행 교화에 매진하라" 교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7일 신년하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수행과 화합을 강조한 신년교시를 발표했다.

법전 스님은 1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신년교시를 통해 △종도들은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여 불조의 혜명을 계승 선양하고 중생을 널리 이익케 하라 △종단은 승가교육의 내실을 도모하여 인천의 스승으로서 안목과 위의를 갖추도록 하라 △모든 불자들은 지혜와 자비의 생활화를 통하여 항상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라 △승가는 화합이 제일덕목이니 항상 육화(六和)로서 서로 화경(和敬)토록 하라며 종단발전을 위해 사부대중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2면

법전 스님은 또 "2003년도에는 종단에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치하드린다"며 "금년에는 더 열심히 잘 해서 종단이 화합하고 나라와 국민 불교단체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하례식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종상(불국사) · 지성(동화사) · 명섭(화엄사) · 법타(은해사) 스님 등 12명의 교구본사 주지,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성관(총무부장) · 보정(재무부장) · 종열(호법부장) · 미산(사회부장) · 탁연(문화부장)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교육부장 정산 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세계불교지도자회의 내달 17일 인도서

인도에서 처음으로 세계불교지도자 회의가 열린다. 인도 문화관광부는 비하르 주(州)정부, 마하보디 사찰과 공동으로 오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불교지도자 회의(International Buddhist Conclave)를 개최한다.

인도, 한국을 비롯한 22개국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대회에서는 △불교와 현대사회의 관계 △성지순례의 현황과 전망 △각국 불자 교류 증진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이밖에도 세계문화유산인 마하보디 사찰 순례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한편 비하르 주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5500만 루피(한화 12억원)를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불교축제도 함께 열 계획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 송암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백암산 위 한 사나운 범이
한밤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다 물어 죽인다
서늘하고 맑은 바람 일으키며 날아 울부짖으니
가을 하늘 밝은 달빛은 서릿발처럼 차갑도다

白巖山上一猛虎 深夜橫行咬殺人
颯颯淸風飛哮吼 秋天皎月冷霜輪

〈서옹대종사가 스승 만암 스님으로부터 받은 전법게〉

깎아지른 듯 험준한 석벽과 빼어난 경관의 산봉우리가 중첩된 맑고 기이하며 웅장한 모습으로 이름조차 백암(白巖)이라 불리는 백암산. 스승 만암스님의 예언대로 일세를 풍미하며 천하 납자의 미망을 깨뜨리고 바른 지견을 연 백암산 호랑이 서옹대종사께서 남기신 수행과 자비의 자취를 친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400년 수행과 기도의 터전, 참사람 결사의 본사, 많은 종사스님들께서 탄생하신 대가람 고불총림 백양사로 발걸음 하시어 스님의 자취를 되새기고 새해의 다짐을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古佛叢林 白羊寺

● **사리친견법회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 공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서옹당 상순대종사 49재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막재 - 1월 30일 ● **서옹 큰스님 사진전 :** 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절 돈' 잘쓰기 그렇게 어렵나?

2002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중고생 3천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한국사회의 부패정도를 물었더니 93%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의외의 결과가 있었다. '가족과 친지의 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3명중 1명의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그저 그렇다'는 답까지 합하면 50%에 달했다. 부패에 대한 높은 반감에도 불구하고, 친지의 부패는 용인할 수 있다는 어린 학생들의 이 마음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난 연말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징계결과가 보도되었다. 기사 말미에 국고보조금 편취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범어사 前 재무국장의 징계가 유보되었다는 짧은 언급이 있었다. 출가수행자가 문화재수리업체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말이다. 배경을 확인해야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동정론이 비등했던 탓이라 한다. 부끄럽게도 교단 사법부의 대응은 '친지들의 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30%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부패불감증' 사찰도 해당
쓰임 공유돼야 진짜 '정재'

5년 전 재가연대가 벌인 사찰재정 투명화 운동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이러한 풍토와 문화의 높은 장벽이었다. 그 때 값지게 얻은 교훈은 '문화'와 '제도', '교육'의 3영역이 골고루 작동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의식과 문화의 개선이 더 절대적이라는 것이었다. '투명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증대는 그것이 종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변화를 읽어 '투명화의 사회적 욕구'를 귀찮거나 피해 넘길 일로 인식하지 말고, 오히려 사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도들의 자긍심, 지역사회 이미지 고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필자의 진정한 바람은 '돈을 투명하게 쓰고 있다'에서 더 나아가 아낌없이 중생을 위해 다 주어버림으로써 투명화의 욕구를 단박에 뛰어넘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한 개신교 교회는 빌딩 한 층을 임대하여 쓰는 작은 교회인데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절대 남기지 않는다'는 재정운영의 절대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100만원이 넘게 들어오는 돈은 많든 적든 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회향한다.

이렇게 남을 돕는 예산만 연간 수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신도들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더 많이 기부한 결과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 곳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이 일어날리 없으니 투명화는 덤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서, 투명화가 저절로 실현되는 사찰' 그리하여 중생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치는 사찰이야말로 불교가 지향해야 할 투명화의 모델이 아닐까?

〈정웅기·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운영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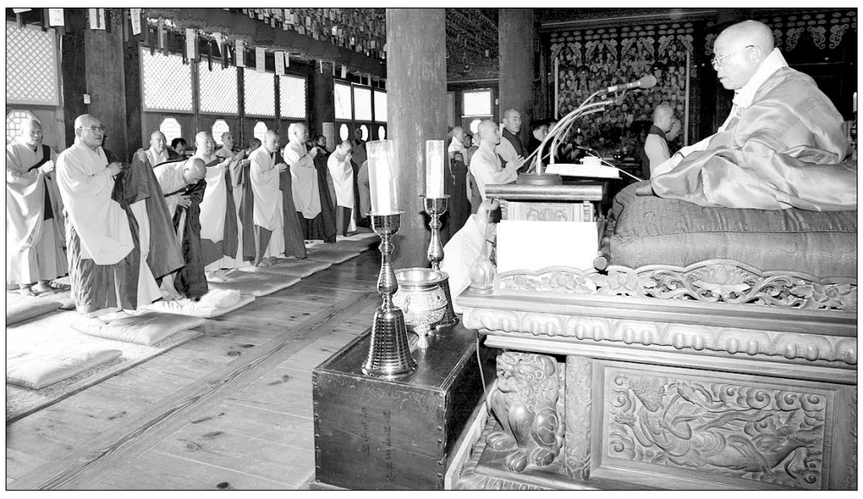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1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교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발전 기틀 확고히 다져야"

수행·교육 정비…화합·자비 실천
총무원 중점사업 적극 지원 의지

2004년도 신년하례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신년교시를 통해 언급한 네 가지 항목은 종단 주요 현안의 원만한 해결과 불교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교시 내용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제시한 올해 종단 중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법장 스님의 종단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년교시 내용 가운데 수행과 교화를 강조한 첫 번째 항목은 통상적인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조계종이 벌이고 있는 수행체계 정비작업을 원만히 완수하라는 의미도 띠고 있는 것으로 총무원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승가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라는 요구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제시한 승가교육제도 개선을 사실상 지원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승가교육제도 개선은 지난해부터 총무원장 스님이 밝혔듯이 '선교육 후득도'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며, 이를 위해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빠르면 2월 안으로 발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선교육 후득도'를 기본 방침으로 한 각종 연구 작업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선에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승가교육진흥위원회의 연구 작업 속에는 현재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돼 있는 강원을 대학원 형태의 전문 학림으로 전환하고 기본교육기관을 재설정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비 생활화와 어려운 이웃 구제를 통한 보살행 실천은 올해 조계종이 펼칠 '자비의 보험금 나누운동'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관계자들은 승가교육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총무원의 중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화합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98년 멸빈자 사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원론적인 언급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북한산 터널문제, '반대'는 계속된다

북한산 관통 저지 운동의 한 축이었던 북한산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관통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월 6일 우이령 보존회 사무실에서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국립공원 및 도로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국립공원 정책과 관련해 환경부 차관 면담을 추진하며, 도로 정책은 환경운동연합이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한 공사 현장 모니터링,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관통 저지 운동 평가회, 보고서 발간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기존 노선 강행 발표와 상관없이 국립공원 및 도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의 북한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석회의는 또한 1월 중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면담을 추진해 △노무현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 및 정부 발표에 이르기까지 연석회의를 배제한 채 진행한 데 대한 총무원장의 해명 △조계종 총무원과 국무조정실이 그 동안 진행해온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미비점 지적 △사찰의 환경파괴 방지대책 제시 등 3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정부 발표 안을 보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며 "북한산 합의 당사자인 정부와 조계종이 법적 ·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환경단체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연석회의, "조직 재정비 후 정책 제안"
공사현장 감시, 보고서 발간 계획

전국 사미니 승가대 150명 졸업

사미 승가대학 2월초

지난 1월 3일 운문사를 시작으로 조계종 5개 사미니 승가대학(강원)이 일제히 졸업식을 갖고 모두 1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957년 첫 사미니 강원 졸업생을 내 가장 역사가 오래 된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은 7일 36명을 졸업시켰으며,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64년 첫 졸업생 배출)은 가장 많은 54명이 3일 졸업했다.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75년 첫 졸업)과 서울 삼선승가대학(82년 첫 졸업)은 10일 각각 25명과 12명이, 김천 청암사(87년 첫 졸업) 승가대학은 6일 23명이 졸업했다.

졸업생들은 조계종 4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게 되며, 4급 승가고시를 통과하면 정식 스님인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4개 사미 승가대학의 졸업식은 동안거 해제가 지난 뒤 2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불교 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 시상

장준희씨 최우수상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여연)은 인터넷포교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제1회 한국불교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 결과 , 장준희씨의 '가슴 속에 든 불법'을 최우수상에 선정해 1월 9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관련 인터뷰 14면)

우수상에는 '어느 석수쟁이와 돌부처'(임근호)와 '환생'(홍대준)이 선정됐으며 금상 3작품, 가작 10작품 등 모두 16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계에서는 처음 실시한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실시됐으며, 총 42명이 작품을 냈다.

김두식 기자

동국학원 27일 이사회
이사장 선출 등 안건

학교법인 동국학원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제196회 이사회가 1월 27일 오후 2시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밖에 정관 개정(불교 병원 개원 등), 임기 2년의 새 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신흥사·은해사·고운사 우수 교구

신도임원 연수교육

조계종 포교원은 2003년도 신도임원연수교육 우수 시행교구로 신흥사, 은해사, 고운사를 각각 선정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신도임원연수교육은 포교원(2000년) 중앙신도회(2001~2년)에서 주관해 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교구본사에서 주관해 실시했었다.

포교원은 이와 함께 서울 불광불교대학과 대전 백제불교문화대학을 우수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해 1월 10~11일 경주서 열린 신년포교전진대회에서 시상했다.

권형진 기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 순서는 무순입니다.

1세트 (책 1권 + CD 1장)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발송비 포함) *10권 구입시 20만 원 (발송비 포함) 구입문의 : 02-446-0393

“불교문화 체험하며 친구 됐어요”

한·일 청소년 40명 갑사서 템플스테이
2박3일간 예불·참선·탁본뜨기 함께 해

“타… 타노시데스까?(재밌어?)”

“응, 정말 신기해.(하이, 메즈라시이)”

1월 8일 공주시 갑사 향적당은 갈빛 수련복을 입은 학생들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비록 단어를 잇는 수준이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기에 즐겁다는 학생들. 한국전통사찰체험을 위해 갑사를 찾은 한 · 일 양국 40명의 학생들은 새벽예불과 참선, 다도, 발우공양, 탁본 뜨기 등을 함께 체험하며, 따뜻한 우정을 나눴다.

“일본과 한국의 사찰예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절할 때 손을 뒤집지도 않고 삼배를 올리지도 않거든요.” (토모미 쯔즈미, 후쿠호카대 1년)

“저는 참선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는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던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 원을 만들며 참선하거든요.” (에가시라 쿠미코, 국립사가다 에이가쿠대 4년)

일본학생들은 한국불교문화체험을 통해 발견한 차이점들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이어 진행된 산사체험 ‘갑사여행’. 삼삼오오 짝은 지은 아이들은 대웅전과 대적전, 적묵당, 팔상전 등을 둘러보며 갑사의 창건설화와 그 역사적 의미를 하나 둘 배워갔다. 한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조직해 호국에 앞장선 서산 · 사명 ·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신 표충원을 찾아 무고하게 희생된 넋을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 불교학생회 활동을 해서 그런지 사찰체험이 색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예불을 드릴 때 온 몸에 힘이 들어가던 데요.(웃음)” (이재원, 한국교원대 3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사찰체험을 하는 2박 3일 동안 일본친구들과 일본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김수경(동국대 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 발행된 불경언해서 월인석보(月印釋譜)를 탁본해보고 있는 한 · 일 청소년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2002 한 · 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 개최정신을 계승하고 양국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파라미타 한 · 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 ‘타임머신’은, 이렇듯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자, 마타 아또.(다시 만나자)”

이튿날 서로의 손을 맞잡은 학생들은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일본학생들은 정법사문법화종본산 묘법사 청소년회 소속 학생들로, 사찰문화체험에 앞서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지, 수덕사 등 백제문화권을 탐방했다.

공주=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화성 용주사 인근 택지개발

환경단체 허가 취소 요구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인근에 예정된 태안3지구 개발과 관련, 지역환경단체가 문화재보호 등을 이유로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오산 ·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월 5일 시와 주택공사 등에 의견서를 내고 “국보 제120호 범종 등 문화재의 보고인 용주사와 천연기념물 제264호 용주사 회양나무가 환경변화로 위험할 수 있다”며 형상변경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주택공사 경기본부는 개발지역인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일원에 오는 2008년 말까지 3천910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11월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김원우 기자

부안 주민투표 실시 촉구

종교계 인사 기자회견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등 종교인들이 부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월 7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교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 불신과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부안주민들과의 합리적 해결책을 거부해 부안주민들만의 독자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참여정부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부안주민들이 제안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들은 “정부가 핵 발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핵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지금이라도 핵 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을 형성키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수경 스님을 비롯,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오영숙 수녀(천주교 장상연합회), 이선종 교무(원불교 천지보은회), 이동훈 신부(천주교환경연대), 김영락 목사(기독교환경연대) 등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지진 피해 이란에 국내외서 자비 물결

지진 피해를 입은 이란에 국내외 자비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는 1월 5일 이란 피해난민을 돕기 위한 성금 1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해 말 이란 지진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사찰별로 긴급 모금에 나서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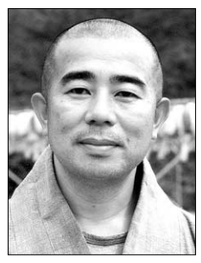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불교 자원봉사단체인 자제공덕회도 지진 피해를 입은 이란 난민 돕기에 나섰다. 대만 자제공덕회는 지난 해 12월 29일 이란의 케르만주 밤시에 감찰단을 파견해 구조물자의 공급 및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자제공덕회의 지진 구조시찰단은 12월 31일 현장에 도착, 의료용품 12상자, 비상약통 100개 등을 지급했으며, 담요 1만 개, 침낭 3백개, 죽 캔 500개등도 나눠 주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현지에 파견된 JTS 조사단 한김지영 씨는 “구호물품 분배가 체계적이지 않아 노약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지만 긴급 구호품은 충분한 상태”라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가옥 재건축”이라고 1월 5일 밝혔다.

박봉영 · 남동우 기자, 대만=이상미 통신원

인 터 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본사 주지 자리가 수행가풍 진작, 도제양성, 합리적 종무행정을 만들어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큰 짐을 지게 돼 걱정부터 앞섭니다.”

1월 9일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산중총회에서 새 주지로 선출된 정념 스님(사진)은 부담이 크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그러나 월정사와 불교발전을 위한 구상은 빈틈이 없었다.

정념 스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수행가풍 선양, 스님 노후복지 보장, 도제양성 강화, 대중 참여 종무행정 구현 등 크게 네 가지.

“월정사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수행가풍을 더 진작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종무행정을 보는 사중이라도 수행과 일상이 함께 이뤄져야만 공동체 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념 스님은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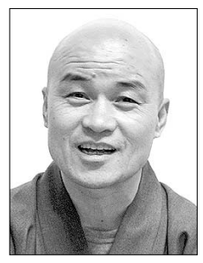
“수행가풍 탄탄하게”
노후 보장·도제 양성 강화

노후복지 보장은 수행과 원력을 유지하는 근본이라는 것이 정념 스님의 소신이다. 도제양성과 관련해서는 월정사에 선원과 강원을 세우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단기 출가학교를 개설해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관과 신행관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념 스님은 “교구종회에 총무, 재무, 포교, 사회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중의 견해를 반영해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념 스님은 56년 생으로 월정사에서 만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총무원 호법국장과 승가학원 감사, 제11대, 12대 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상원사 주지와 13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명우 기자**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주지소임이란 것이 중노릇 잘 하면서 공부하는 스님들 외호하고 문도와 대중 화합에 충실하는 것 아닙니까? 전임 현봉 스님이 사중의 질서를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승보종찰 총림위상에 어긋남 없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직을 수행하는 영조 스님(사진)은 “동안거 결제기간이어서 공부중인 대중들을 시끄럽게 해서는 안된다”며 “주지 진산식이나 번잡스런 행사는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20년 가까이 무등산 증심사에 주석하며 광주불교를 선도해온 영조 스님은 “주 5일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찰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어 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갖겠다”고 밝혔다.

“재가수행처 만들 터”
생활 속 불교 실천 이끌 계획

현대인의 문제를 가까이서 지켜본 영조 스님은 대안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진할 수 있는 ‘재가수행처’를 제시했다. 도심에서 가까운 산사에 재가자를 위한 수행공간을 마련해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에 2~3시간 함께 정진한 뒤,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생활 속에 불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조 스님은 또한 “지역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살고 나아가 정토세계가 구현되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최근 3~4년 전부터 광주를 중심으로 불교계가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방장스님의 뜻을 받들어 대중들과 함께 정진하며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못다 핀 어린영혼이여 고이 잠드소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산하 청년위원회(위원장 김규범)는 1월 8일 서울 동작대교 위에서 부모에 의해 강물에 던져져 사망한 어린 남매 위령제를 개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밝은 청정 맑은 햇살로 빚은
금강경 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배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1말 6kg
■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청국장

메주 주문 연락처 H·P :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부산	051)514-3566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대전	042)862-8638
창원	055)299-5419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광주	062)681-3268
강릉	033)644-9009		

복식품



생활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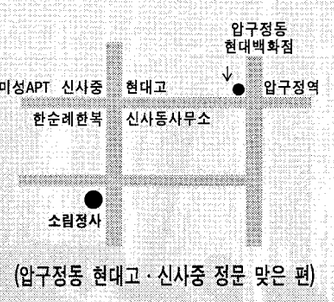
전법사 대학 대개강

이시대를 대표할 불자님을 양성하는 최고의 수행과정을 지향합니다
자아완성과 전법도생 불교중흥의 원력을 성취하기위하여 신심있는 불자님을 위한
전법사 대학 수행과정을 특별 개강하오니 입문 동참하여 대공덕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시 : 2004년 1월 19일(월) 오후 1시
❀ 매주강좌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강좌내용 : 불교교리, 참선, 의식, 포교학, 상담학, 건강기공, 수지침, 동양철학, 건강 태극권
❀ 기 간 : • 기본과정 : 3개월 • 중급과정 : 3개월 • 고급과정 : 3개월 • 연구과정 : 3개월
❀ 대 상 : 1. 각급 불교대학 졸업자 2.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3. 불교 대학원 졸업자 4. 신행단체 임원 불자
5. 뛰어난 신행으로 전법사의 자질이 인정되는 자 ◎ 제1회 여전법사 과정임
❀ 교 수 진 :
• 불교교리 (불교계 최고권위의 교수님단) • 동양철학 (정현우 박사) • 수 지 침 (김두엽 선생)
• 법화경 (석지형 스님)

❀ 건강태극권 : 소림사 공법을 연마한 기공 대가의 건강태극권 특별지도
❀ 축원동참금 : 매월 20만원
❀ 특 전 : 1.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전법사로서 크나큰 공덕과 업적을 성취하도록 수준 높은 책임교육 실시
2. 수행과 전법에 모범적인 불자는 포상 및 적극 후원
3. 수료 후 포교원 혹은 포교당 개설시 적극 후원
4. 장학금 지급 (전법사대학 수행 불자 전원에게 매월 소정의 장학금 지급)
◎ “佛”자 100만자 수행의 원력으로 순금분 · 오죽주액 · 경면주사등으로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친필조성한 최고급 “佛”자 족자 무상보시



(압구정동 현대고 · 신사중 정문 맞은 편)

서울 소림정사 · 불교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3446-2158,2185 / 3443-9871~7 / 511-6210~5 (FAX:511-6214)

포교현장 누비는 비구니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이 주변만 맴돌던 시대는 끝났다. '우먼파워'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휘되고 있듯 포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어린이·청소년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라 여겨지던 분야뿐 아니라 군·경찰 포교, 해외 포교 등 '남성들의 거친 영역'으로 인식되던 포교 현장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은 거침이 없다. 그 곳에선 스님 앞에 '비구니'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조차 이미 진부한 일이다.

포교하는데 못할 일 못갈 곳 있나요?

"그 많던 어린이회, 학생회의 70%가 없어졌습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붐을 다시 조성해야 합니다."

어린이 포교의 1번지 경기도 화성 신흥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성일 스님(신흥사 청소년수련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80년대엔 활력이 넘쳤지요. 어린이 수련회에 600~700명씩 참가하고, 87년 중·고등학생 수련회에는 900명이 몰렸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 참가인원이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불교계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에요."

원인을 묻자 30여년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스님의 진단은 세 가지로 모아졌다. 지도사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레짐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손이 많이 가 귀찮다는 생각. "직접 해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이 문제지."

청소년 문화포교로 불심 불씨 지핀다

새해 포부를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처음과 같았다. "중요한 것은 80년대에 성황을 이뤘던 어린이 포교의 붐을 다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들부터 계몽해야 해요. 컴퓨터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절에 올 때 아이들 깨워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산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종인 스님(아산 옥련암 주지)은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 관심을 쏟아온 스타일이다.

옥련암은 지난 2000년 조계종 전법도량으로 지정받기도 했는데, 청소년 문화행사와 무료 공부방,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 가운데서도 문화행사에 쏟는 노력이 각별한데, 7~9월 토~일요일이면 옥련암 앞 1만여 평 공원에서 펼쳐지는 '신정호 문화한마당'과 청소년 송년 축제가 특히 유명하다.

"청소년 포교는 불교에 대한 불씨를 틔우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불교를 믿으라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갖게 한다면 성인이 됐을 때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듯 자연스레 믿게 되지 않을까요?"

비구니 스님 '파워'는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분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전국 780여 경승 중 비구니 스님은 80여 명. 경찰 포교 현장 구석구석을 당당히 누비며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다.

경승 5년차 대구북부서 종묵 스님(칠곡 화성사). 매년 동지와 부처님오신날이면 서내는 물론 관내 소방서, 관할 파출소 등을 돌며 '팥죽 공양'을 해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비구니 경승 스님들은 경찰서와 지역사회의 교량이 됐고, 남성 중심의 경찰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다.

대구달성서 경승 선주 스님(달성 보림사)은 <부모은중경>을 법회 때마다 독송한다. 현실생활을 하는 재가불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효도'라고 강조한다. 상담 방식도 '1대1'이다.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다.

상담·다도 체험 통해 경찰들 마음 다독여

비구니 경승의 포교 역량은 신행상담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대전서부서 경승 종실 스님(연화사 주지)은 4년 전부터 '상담불사'를 벌이고 있다. 스님은 매주 법우회원 신행지도는 물론 전·의경들의 생활고충까지 해결해주고 있다. 광주시 광산서 '비구니 경승 3인방' 일명(금선사), 상훈(흥륜사), 명심(연화사) 스님들도 불교상담전문가다. 특히 밤낮없이 바쁜 전·의경들의 상담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들 전·의경이 바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불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3인방 비구니 경승들의 생각이다.

인천 강화서 경승 혜성 스님(백련사)은 5년 전부터 '다도' 강좌를 열고 있다. 경찰서 식구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위해 마련한 것이다. 덕분에 경승실은 경찰관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울 성동서 경승실장 상덕(정수암) 스님도 2000년에 사찰 신도와 법우회원들을 중심으로 '경불봉사대'를 발족해 찬불가 공연, 꽃꽂이 강좌 등을 열었다. 이밖에 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 혜광 스님(참나선원)은 병실 컵등 보시, 충남지방청 경승 명선 스님(송탁사)은 '성인들의 경언집' 나눠주기 등의 포교를 하고 있다.

정혜 대우 법수, 세 스님은 바닷가 구경 갔다 아예 외항선을 타 버린 스님들이다. '외국 땅'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한국불교를 전하고 있는 세 스님은 부처님 법에 목말라하는 그곳 불자들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 3기이기도 한 정혜 스님은 캐나다 토론토 시내 중심가 건물 지하실을 임대해 '정혜사'를 세운 지 횟수로 5년째 접어든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했는데 한국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절이나 스님 한 분 없는 거예요. 일부터 저질러 놓고 봤죠."

정혜사는 이제 1층까지 임대해 사찰로서의 격을 갖추었다. 처음 3가구였던 신자가 얼마 전 새해맞이 철야정진법회에는 70~80명이 참석할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새해에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 해요. 앞으로는 현지인 포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홀로 이국 땅서 불법 전파 "현지인 포교에 더욱 매진"

중국의 상황은 훨씬 열악하다. 북경 불자회를 잠시 맡았다 올해부터 남경(2월)과 상해(7월) 불자회를 이끌 대우 스님은 "남경과 상해는 아직 법당이 없이 불자들 집을 돌며 '가정 법회'를 보고 있다"며 "아무리 작더라도 법회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우 스님은 수원 봉녕사 강원에서 12년간 강사 생활을 하다 남경대 철학부 종교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신분. 스님은 "중국에는 대부분 유학 온 스님들이 법회를 이끌기 때문에 유학이 끝나 돌아가면 또 다시 스님 없는 불자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지난 해 7월 일본 요코하마에 3층 집을 임대해 길사사를 세운 법수 스님(조계종 국제포교사 8기)은 "올해는 꼭 수계법회를 봉행하겠다"고 했다. 용곡대 석·박사를 마치고 운문사 강원에서 2년간 후학들을 가르쳤던 스님은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다시 일본에 갔다 논문 쓰는 일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법회 보고, 손수 법회지를 만들고 있다. 스님은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어렵고 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바른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진·김철우 기자

한국의 비구니 스님 <2> 묘엄 스님

한국 최초의 비구니 강사



"부처님 말씀보다 더 좋은 법문이 어디 있다고 법문을 청해."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妙嚴·사진) 스님께 법문을 청하자 한마디 툭 내뱉은 말씀이다. 하지만 잠시 후 스님은 육바라밀부터 일승법(一乘法)과 삼승법(三乘法)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초등학생 가르치듯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신다.

스님은 1931년 진주에서 출생했다. 절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14세에 출가해 문경 대승사에서 월혜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듬해인 45년 성철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은 후 동학사에 주석하고 있던 운허 스님에게서 경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화 하나.

절살림이 곤궁해 울력이 많았던 시절. 스님은 울력 때문에 책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날은 사람들이 버린 깡통을 엎어놓고 기다란 솜으로 심지를 만든 뒤 찌꺼기 촛농 모은 걸 연료삼아 주경야독했다. 다음날, 얼굴과 콧구멍이 새까맣게 변해 이를 본 도반 스님들이 산천이 떠나가도록 웃었다고 한다.

일흔 넘어서도 치문반 학생 가르쳐 "일생동안 하나에 전념해야 선지식"

스님에겐 '최초' '유일'이라는 단어가 붙어다닌다. 성철 스님에게 '유일'하게 계를 받은 비구니 스님이자, 56년 경봉 스님에게 전강(傳講)을 받아 강사를 역임함으로써 '최초'의 비구니 강사가 됐다. 또한 99년 6월 국내 '최초'로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을 개원했다. 이와 관련 스님은 "비구니 강원에서 공식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나 이전에도 비구니 강사들이 있었다"며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스님에겐 이제 청담 스님의 딸이나 성철 스님의 제자보다는 비구니계의 대강백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린다. 일흔이 넘은 세수에도 불구하고 후학에 대한 열정은 여전해 대학교로 치면 1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 치문반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다.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스님의 평소 생각 때문이다.

스님은 후학들에게 "'원력'을 가지고 일생동안 하나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참선이나 경전공부, 사중살림을 하더라도 외곬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로 '선지식'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에겐 '밀리미터'라는 별명이 따라 다닌다. 당신뿐 아니라 후학들에게도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함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애들하고 콩나물은 눌러서 키워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평소 지론"이라고 귀띔하는 봉녕사 교무 설오 스님은 "그래도 밖에서는 봉녕사 학인들이 제일 반듯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스님은 현재 봉녕사 한쪽에 준비하고 있는 '육화당(六和堂)'이라는 비구니 전문학사 건립불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길 서원하고 있다. 황량하기 그지없던 산비탈에 천 년 세월을 견디지 못한 채 쓰러져 가던 봉녕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묘엄 스님의 이 같은 '원력'과 '엄격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수원= 남동우 기자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흥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건강 100% 적중

냄새를 완전 제거하여 놀라운 효능을 갖춘 식품이면서
"여성생활에도 으뜸" 이 되고 있는 **토종마늘환(丸)**

마늘이 좋은걸 알면서 냄새때문에 망설인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토종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의 식물로 불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백가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때문인데, 이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활성화 시켜 줍니다. 마늘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몸에 흡수된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어줌으로써 피로감을 없애주고 온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정력,간기능,시력을 높여주고 손발냉증, 변비, 요통이 사라지며 강한 항암작용 및 다이어트, 미백효과, 중풍, 신경통, 당뇨병 등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 마늘의 주요성분인 알리신에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장·장정·식욕부진·정장·변비·보온·향균·구충·정신안정·이뇨·혈압강화·각기·신경통·신경마비 등에 효험이 있다. - 이시진의 본초강목 -

100% 토종마늘은 무엇이 다른가?

▷ 건강식 또는 양념으로 써온 식물로 다양한 약리 작용을 한다.
▷ 장(腸)에서 흡수가 잘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
▷ 세포내 침투가 잘되고 성기능을 강화 시킨다. 혈액순환이 잘된다.
▷ 항암작용을 한다. 성인병 예방과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
▷ 고혈압은 낮추고 저혈압은 정상치로 끌어올린다.
▷ 비타민C와 섭취하면 당뇨에 효과가 있다.
▷ 인체내 지방을 분해해 비만 예방에 특효가 있다.
▷ 만성 감염에 효험이 있다.
▷ 비만, 심장병 예방에 특효.
▷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 표준소비자가 특별분할 : 42,000원×4개월= 168,000원(6개월분)
◎ 공주양잠농업협동조합 직거래 사업단 02)755-9821. 080-200-4545

마산 삼학사 여성축구단

“축구하며 불심, 건강 다져요”



마산 삼학사 축구단원들이 9일 새해 첫 훈련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더 빨리 뛰어! 이쪽으로 패스! 경숙아, 슛해!”

9일, 마산시 내서읍 중리 잔디구장에는 여성 축구단의 높은 함성과 뜀박질로 한겨울 추위가 녹고 있었다.

마산 삼학사(주지 영재) 보살들로 구성된 삼학여성축구단(단장 하재연)의 새해 서원을 담은 연습이 열리던 날이었다. 2004년 4월 열리게 될 전국여성축구대회 우승을 목표로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한겨울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학여성축구단은 이 날도 삼학사에 모여 부처님 전에 우승을 발원하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삼학여성축구단은 2년 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비만으로 고민하는 신도들에게 주지스님이 축구를 권하면서 창단 됐다.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서너 명의 보살들은 그때부터 몇 분만 뛰어도 숨을 몰아쉬는 스스로의 체력과 고투를 벌여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이 좋아졌고 힘든 훈련을 견뎌내며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생활에 활력을 되찾았다. 축구를 통해 생긴 자신감은 평범한 보살에서 친구들을 축구와 불교로 끌어들이는 포교사로 변모했다. 선수들의 열정으로 결국,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25명의 보살들이 모여 이제는 전국 우승을 바라보는 선수단으로 성장했다. 특히 삼학여성축구단은 70여 개에 이르는 전국의 여성축구단 중 여성 불자들로 구성된 유일의 축구단이라는 자긍심도 높다.

신도들 위해 주지 스님이 권유
신심 키우며 얻은 자신감 포교로
전국 여성축구대회 우승 발원

이후 남편들까지 훈련을 돕겠다고 나섰고 서울 대전 무주 등지서 열린 크고 작은 대회에 10여 차례 참가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지난해 충주에서 열린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는 선수복 대신 법복을 입고 입장해 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불자라는 자긍심으로 뛰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산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대회 3위,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전국여성축구대회 6강이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올해는 전국여성축구대회 우승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후 기도 때마다 우승을 부처님전에 발원하고 일주일에 2차례씩 2시간 이상의 맹훈련을 감내해 나갔다. 스님이 맡아왔던 감독 겸 코치도 지난해 6월부터 진해 동진여중 축구단을 전국 우승시킬 정도로 축구광인 박경중(66) 대방중학교 교장으로 교체했다. 삼학여성축구단은 최근 대우백화점 직원팀, 석전택시 운전사팀 등의 친선경기 요청이 늘어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축구단에서 가장 연장자인 하재연(50) 단장은 “절에서 신심을 키우는 분들이라 축구도 더 잘하는 것 같다”며 선수들 자랑이다. 뛰어난 슛감각으로 현역 중,고교와 맞먹는 실력을 인정받으며 공격수로 맹활약중인 이경숙(40) 보살은 “도반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더욱 불심이 깊어진다. 건강과 불심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절에서는 기도로, 경기장에서는 축구로 신심을 키우며 우승을 향해 질주하는 삼학사 여성축구단 보살들의 함성이 우승을 점치게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도롱뇽 소송 홍보 위한 전국투어

“뜻모아 생명들에 희망을 줍시다”



지율 스님이 7일 부산시청앞에서 도롱뇽 소송인 100만명 모집을 위한 전국 순회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롱뇽 소송인단 백만명 확대를 위한 도롱뇽 소송 전국순회단(단장 지율)은 1월 7일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첫 행선지인 전북 익산으로 출발했다.

실천불교부산운동본부 안승운 본부장 등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지율 스님은 “도롱뇽의 권리를 인정하는 도롱뇽의 친구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자연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길을 떠난다”고 밝혔다.

발대식 전북 익산에서 첫 홍보 활동
초 · 중 · 고생 그림엽서, 사진 전시
원고적격 판정 받기 위해 주력

이어 김영준 전교조 부산지부 부지부장은 도롱뇽소송 전국 투어 선언문에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양서류의 인간에 대한 권리요구는 인간중심의 사고를 대폭 수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전국으로 번져 가는 도롱뇽 소송인단 확산은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버스에 도롱뇽 그림을 붙이고 전국순회에 나선 순회단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재판부에 보내기 위해 쓴 그림엽서와 사진 등을 전시하며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11개 도시를 순회하게 된다. 1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사진전, 거리서명, 홍보 등을 통해 도롱뇽 소송에서 도롱뇽이 원고적격 판정을 받도록 여론몰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율 스님은 8일 원광대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참교육 실천보고대회 행사장에 참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지율 스님은 “16일 재판이 열린다.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도롱뇽 소송인단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을 빛낸 인물’

부산을 빛낸 인물선정위원회(위원장 김임식 동의대 이사장)는 1월 1일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로 2개 분야 36명과 6개 사건을 선정, 발표했다.

종교사회분야에서는 범어사를 중심으로 선불교를 진작시키고 왜색불교 타파를 위한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한 경허 스님(1849~1912)과 동산 스님(1890~1965),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기초를 닦은 장기려(1911~1995)선생 등 7명이 뽑혔다. 또한 민족운동가로 3 · 1운동 당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펼친 김갑(1899~1933)선생과 영남불교계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법린(1899~1964) 선생 등 21명이 선정됐다.

경허 · 동산 스님 등 36명 선정

학술 · 언론 ·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향토사 연구에 초석을 다진 박원표(1910~1986) 선생과 한국 육종학 연구의 선두자인 우장춘(1898~1959) 선생 등 8명이 선정됐다.

부산을 빛낸 사건으로는 1919년 3 · 1운동 영향으로 동래고보 학생들이 중심이 돼 같은 해 3월 13일 동래장날 만세운동을 주도한 ‘동래고보 학생의거’ 등 6개가 선정됐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0세기 부산을 빛낸 선정 인물’에 대한 인물사를 발간해 각급 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해 교육자료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스리랑카 화가 세나카 특별전

현대백화점 울산점 27일까지



우산을 쓴 스님들.

스리랑카의 불교적 전통과 생활상을 맑은 유화로 표현한 스리랑카의 국민화가 세나카 특별전이 현대백화점 울산점 아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2004년 새해 해외작가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1월 27일까지 계속되며 불교의 종교적 전통과 다양한 전설, 스리랑카의 꽃과 식물이 지닌 천연색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작품 30여 점이 선보인다.

세나카는 1951년생으로 예일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온 이후 활발한 작업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9세의 나이로 첫 개인전을 가졌을 정도로 천재적 소질을 가진 작가로 20여 개국에서 100회가 넘는 개인전 및 초대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은 백악관, 베를린 주립 미술관 등 각국의 주요기관들에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1983년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이에게 주어지는 제이씨의 오스카를 수상함으로써 재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번 기획전에 전시되는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나 동물은 머리에 밝고 투명한 후광이 서려있으며 이는 불성(佛性) 혹은 생명의 본질, 영혼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다. 울산점 (052)228-1020 **천미희 기자**

대구 운불련 11대 회장 이 · 취임식

개인택시 불자 운전자 모임인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이하 대구운불련)가 1월 6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11대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보현신협 이사 원각스님과 장영관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등 2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에 당선된 신상용(49, 법명 경덕)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대구운불련이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이끄는 것은 물론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으뜸가는 불교신행단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 회장은 한국운불련본부 사무총장과 대구운불련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배지선 기자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회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류진수)는 1월 5일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48년 부산불교계 인사 신년하례회를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개최했다.(사진)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은 법어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으로 중생계를 불국토를 만드는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갑신년 한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스님과 출가를 희망하는 학인들을 위한 **나란다삼장불학원**, 천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우는 **불교예술대학**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모집기간	수시모집	수시모집	2004년 3월 3일까지	수시모집
모집인원	무제한	무제한	30명	약간명
수업연한	2년(4학기)	경,율,론 각과정 1년	사미과, 사집과,사교과, 대교과 각과정별 6개월	기초, 중등, 고등, 대학 각 6개월
수업방법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가정, 직장에서 통신으로 (년2회수련대회)	매주 1일 수업	매주 1일 수업
지원자격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행하시는 분	불교통신대학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소지자	출가수행 및 사암. 포교원 운영하실 분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원서교부	수 시	수 시	2004년 3월 3일까지	수 시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및 면접
특 전	·전법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법사,포교사 자격증수여 ·포교활동 지원 ·사찰운영 행정지원	·2004년 국제수계 참가자격부여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기숙사 입사 희망자 집중수련	우수 학생에게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 수여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김호암스님, 남진각스님, 김진궐교수님, 이지행교수님, 김익순교수님,서무선박사님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 불교예술대학
학장 활안(한정섭), 대학원장 호암(김정수), 예술대학장 남진각
문의처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4기생**을 모집함

1 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종석(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2 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정업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문예창작과(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3년 12월 20일~ 2004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문예창작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4년 2월 7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문예창작과 : 2004년 3월 4, 9, 10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봉은사, 선종 수사찰 위상 되찾는다

2월 21일 부터 육조단경 논강
8강까지 강의, 토론으로 진행
"선, 미래문화 선도에 기여할 것"

조선시대 선종 수사찰(禪宗 首寺刹)이었던 강남 봉은사가 선풍확립에 팔을 걷어 부친다.

최근 봉은문화센터 3층에 시민선방을 개원한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2월 21~4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 보우당에서 '봉은학림 육조단경 논강'을 개최한다.

논강은 선종의 제일 경전인 <돈황본 육조단경>을 기본교재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8강으로 진행될 육조단경 논강은 1강부터 4강은 '좌선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어떠한 경지인가?'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불교는 육조단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강의로 열린다. 5,6,7강은 육조단경의 세분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주 및 논사가 함께한 가운데 논강식으로 개최되고, 제8강은 오랫동안 실참수행한 스님의 수행담을 듣는 형식으로 열린다.

육조단경 논강에는 고우 혜국 성본 유진 스님과 이중표 교수 김진태 씨가 강의하고, 논사는 강묵 정각 스님, 김제성 박인성씨가 참여할 예정이다.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선수행의 생활화와 바른 이해를 위해 법석을 준비했다"며 "논강을 통하여 선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문화가 미래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봉은사는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정초 7일 산림기도법회를 개최한다. 산림기도법회에는 석주(봉은사 조실) 해인 정락(용주사 주지) 성우(BTN 회장) 정무(석남사 주지) 지관(가산불교연구원장) 원혜(봉은사 주지) 스님이 법문한다. 문의 02) 511-6070~4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정대 스님 부도탑 제막식



■사리 200여과 봉안

제 30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정대 스님 49재 및 부도탑 비 제막식이 1월 5일 안양 삼막사에서 열렸다.

삼막사 대웅전 옆에 조성된 부도탑에는 스님의 사리 200여과가 봉안됐다.

이날 정대스님 49재 및 사리탑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을 비롯 오현, 정휴, 원택, 정락, 세민, 종상, 현문, 범여, 자승 스님과 홍기삼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겨울철 사찰화재 조심하세요
약사사 지장전, 신광사 선방 전소

겨울철 건조기를 맞아 화재로 법당과 귀중한 성보문화재가 전소되고 있어 사찰화재예방이 요구되고있다.

갑신년 첫날인 1일 무안 약사사(주지 경훈) 지장전이 화재로 전소됐다. 주지 경훈 스님에 따르면 "새벽 1시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이미 지장전이 불길에 휩쌓였다"며 "화재당시 법당에서 나오던 정신질환자 임모여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소된 지장전은 21평 목조건물로 법당내에 있던 금동지장불을 비롯 500불과 3백년된 칠성탱화 등 성보문화재가 불에 타 5억여원(사찰추정)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장수 신광사(주지 고경)도 4일 전기누전으로 선방이 전소됐다. 신광사 선방은 대웅전옆에 자리한 26평 규모의 목조건물이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사찰별로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시설 강화, 화기주의, 소방시설 점검 등 건조기 화제예방에 만전을 기해여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해남 사암련 신년하례법회
몽산 스님 등 1백여명 참석

해남 군민의 평안과 지역번영을 기원하는 '해남사암연합회 신년 하례법회'가 1월 6일 해남관광호텔에서 열렸다.

해남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법회에는 몽산(대흥사 주지)스님 등 지역스님과 이정일 국회의원(민주당), 민화식 해남군수, 최문식 군의장, 한연석 교육장, 김신기 경찰서장 등 관내기관장, 신행단체장 등 1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해남사암련 회장 몽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지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남의 지도자들이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사진)

한편 해남군민연대 공동대표 삼각 스님(은적사 주지), 대흥사 재무 도정 스님을 비롯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해남군내 4개 종교지도자와 해남군민연대소속 12개 시민단체 대표 20여명은 1월 6일 시내 음식점 '명가'에서 신년하례식을 갖고 해남군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영암 도갑사 진신사리 이운법회
월출산 불사리 대흥사로 분과

영암 도갑사(주지 범각)는 6일 대웅전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이운법회'를 봉행하고 불사리 5과를 분과해 대흥사로 이운했다.

이날 이운한 불사리는 1995년 월출산 용암사지 동탑에서 나온 불사리 33과 가운데 일부로 현재 해체 복원중인 대흥사 응진전 앞 3층석탑에 10일 봉안됐다.

범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해남 불자뿐 아니라 온국민이 부처님 친견하듯 참배하고 발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연천 심원사지 1차 복원계획
천불전 복원 및 교량 4곳 착공

경기도 연천군은 지장기도도량인 심원사지 복원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천불전과 진입로, 교량 4곳을 올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1월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발굴조사를 끝낸 심원사지는 1차 복원사업 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발굴 작업을 거쳐 심원사가 원형으로 복원되는 수순을 거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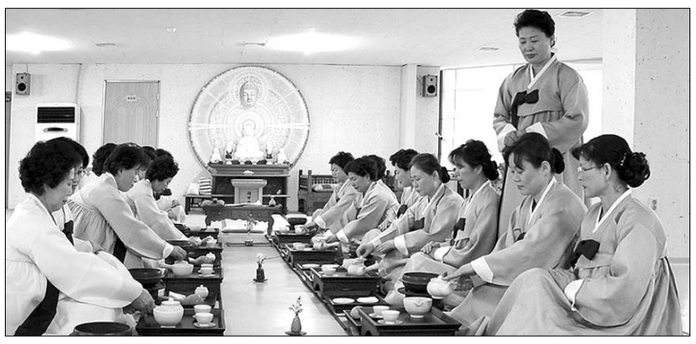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차맛처럼 법향에 빠졌어요"

여여선원 다도회 여다혜 보살

7일, 부산 불교회관내 여여선원 7층 선방에서는 다도 강좌가 한창이다. 여다혜(53. 본명 박유순) 보살의 지도로 다도 강좌가 열리는 날, 여여선원 다도회 여다림 회원들은 단복을 곱게 차려입고 의식다례를 공부하고 있었다. 3년 전 결성된 여다림의 회원은 300여명으로 모두 여다혜 보살의 제자들이다. 몇 개월만 차에 대해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다도교육을 찾은 그들이 벌써 3년째 다도에 푹 빠져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다혜 보살의 차향처럼 은근한 성품이 큰 몫을 했다.



여다혜 보살(오른쪽 서 있는 사람)이 여여선원 선방에서 다도강좌를 지도하고 있다.

넉넉한 성품으로 회원들 인화에 큰 힘
청소년 예절교육 등 차 포교에 앞장

"선생님에게 반해서 다도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여다혜 보살은 사람을 끄는 온기를 가졌다. 한사람 한사람을 품어주는 여다혜 보살의 넉넉한 성품은 여여선원 신도회 부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으며 인화를 다지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20대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어 기도에 열성이던 여다혜 보살이 10여 년 전 차와 인연을 맺은 이후 오랜 원이었던 선방공부를 포기하고 차를 통한 포교를 발원했다. 여여선원과의 인연도 차로 맺어졌다. 다선일여 (茶禪一如)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정여 스님을 만나면서 여다혜 보살의 차포교는 더욱 본격화되었다. 수요일 금요일 다도교육과 매주 일요일 여여선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을 통해 불교와 전통의 접목을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여자대학, 예술대학 등에서 교양과목으로 다도를 가르치고 있다.

육법공양, 헌다 등으로 여여선원 크고 작은 행사에서 정성을 공양하는 여다림 회원들의 행(行)은 여여선원의 얼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원 봉사, 충렬사 헌다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불교와 차, 복지와의 만남을 실현하고 있기도 하다.

여다혜 보살은 "차를 배우면서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남을 위해 보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다"며 "차를 통해 단 한사람이라도 바른 불법 만나는 인연을 맺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차를 통해 수신(修身), 수심(修心)을 행하고 다른 이의 마음결까지 보살피는 여다혜 보살의 마음이 깊은 차 맛처럼 오랜 여운으로 남았다.

부산= 천미희기자



추천의 말

정여스님 여여선원장

상 내지 않는 참불자

다도 교육을 통해 진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이끌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예절, 전통예절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맑고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 신도님들의 수행을 돕는 셈이지요. 뿐만 아니라 핵가족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예절을 바로잡도록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실을 열어 우리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상을 내지 않으면서도 차를 통해 불법을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어 전 신도들이 모두 다도를 배워 참나를 발견하는 고요한 심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004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모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 합니다.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교학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사진 6매	· 강원사교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승 가 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범 패 과	2년	정규00명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982. 10. 18.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불교포교사 전문대학"으로 개교제1회 입학식(김병규 초대학장 취임)불교학과 개설
1983. 6. 1. 본교 교명을 "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
1984. 9. 1. 제1회 졸업식
1985. 2. 20. 제2회 졸업식
1985. 11. 11. 중곡동 임시교사에서 성북동 중앙불교회관으로 교사 이전
1986. 2. 25. 제3회 졸업식
1987. 2. 20. 제4회 졸업식
1988. 2. 23. 제5회 졸업식
1988. 5. 28. 제3대 이영무 학장 취임
1989. 2. 25. 제6회 졸업식
1989. 5. 1. 제4대 이재복 학장 취임
1990. 2. 24. 제7회 졸업식
1990. 3. 1. 범패과 신설 및 기숙사 개설
1991. 2. 24. 제8회 졸업식
1991. 3. 1. 불미미술과 신설
1991. 9. 14. 제5대 정태혁 학장 취임
1992. 2. 22. 제9회 졸업식
1992. 3. 1. 유아교육과 신설
1993. 2. 20. 제10회 졸업식
1994. 2. 26. 제11회 졸업식
1994. 3. 1. 한의예과 신설
1995. 2. 25. 제12회 졸업식
1996. 2. 10. 제13회 졸업식
1997. 2. 27. 제14회 졸업식
1998. 2. 24. 제15회 졸업식
1999. 2. 26. 제16회 졸업식
2000. 2. 24. 제17회 졸업식
2001. 2. 24. 제18회 졸업식
2002. 2. 27. 제19회 졸업식
2003. 2. 27. 제20회 졸업식

· 졸업생 전원 2급 정포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품수
· 범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재수리기술 기술자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2004년 1월 14일(토) ~ 2004년 2월 18일(수)
2004년 2월 21일(토)오전 10시 ~ 오후 5:00시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범패과 · 불교미술과)
·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h·p www.dongbang.org
E-mail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종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TEL 02) 382-7361~2
· 각 시 · 도 교구종무원
· 경서원(조계사앞) : 136-823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33-3345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十方가 곧 불법실천 아닐까요?



■ 통도사 승가대 학인스님들의 자비원 위문 공연

특명, '다운' 된 분위기를 띄워라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 통도사자비원 어르신들 만수무강 하소서'

스님들이 목탁대신 장구을 치고 염불대신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펼친 날,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회색법복의 위의(威儀)를 벗고 어르신들에게 응석을 부리는 아들로 돌아가 있었다.

1월 8일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원장 오심) 4층 법당. 세속의 인연(因緣)을 끊고 깨달음을 위해 입산(入山)했던 스님들이 속가 부모님께 못 다한 효도의 한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졌다. 40여명의 학인 스님들이 직접 준비한 연극, 노래, 춤 등을 선보이며 1시간 30분 동안 펼쳐진 이날 공연은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진귀한 풍경을 연출하며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고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 놓았다. 삼귀의로 엄숙하게 공연의 시작을 알렸을 때만 해도 법당 분위기는 '다운' 돼 있었다. 꼬부랑 허리를 가누며 법당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정엔 '스님들이 해봐야 무얼 그리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박수도 치는 둥 마는 둥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을 제안하고 추진한 통도사 승가대학 찰중(학생회장 격) 소임을 맡은 지현 스님의 입담 좋은 사회는 좌중을 압도했다.

공연과 재치있는 입담에 박장대소

"스님들의 공연은 평생을 두고 한번 볼까 말까 한 공연인데, 박수 크게 안치면 집 챙겨서 가 버릴 랍니다." 지현 스님의 투정 어린 호소에 여기 저기서 웃음이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다. 연이어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른 도심 스님이 장구가락에 맞춰 진도아리랑을 부르자 분위기가 삽시간에 돌변했다. 강당 가득 박수소리가 울렸고,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났다. 민요 부르기로 흥을 돋우는가 싶더니 이제 연극을 하겠단다. 육두법문으로 유명했던 춘성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육두법문'이라는 연극이었다. 이 연극은 2003년 전국승가학인연합 연극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커튼식으로 된 막이 걷히자 춘성 스님으로 분한 세봉 스님(사집반)이 육두문자를 곁들인 대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여기 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대사가 주는 재미도 재미지만, 기차 안의 여자 승객으로 분한 두 스님의 모습은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긴 머리 가발을 쓰고 봉긋하게 가슴도 만들고 입술엔 빨간 립스틱까지 바른데다 미니스커트까지 입고 보니 영락없는 여자. 간들간들한 걸음걸이로 어르신들에게 걸어와 사탕을 건네는 여자가 정말로 스님이라고? 어르신들은 이제 스님들의 공연에 푹 빠져버렸다. 극중의 춘성 스님이 극락 가는 티켓을 받는 방법을 일러주겠다며 법문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어. 탐심을 버리고, 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임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간절히 화두를 참구 하고 기도해. 그것이 극락 가는 티켓이야."

사모곡으로 부모에 대한 그리움 달래고…

웃는가 싶더니 어느새 울리고, 실없는 내용인가 싶으면 어느새 불법의 깊은 가르침을 담은 대사를 쏟아내던 연극이 출연한 스님 모두의 수화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무대는 회심곡. 구구절절한 가사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여자 분장으로 웃음을 자아냈던 현덕 스님이 가요 '사모곡'을 부르기 전에 던진 한마디로 어르신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03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보모님께 이 노래를 받친다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슬픈 반주와 함께 스님의 노래가 시작됐다.

"자나 깨나 자식 위해 신령님 전 빌고 빌며~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어머니! 아버지!" 노래를 마치며 스님은 어머니, 아버지를 외쳐 불렀다. 이 순간, 통도사자비원 4층 법당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 모두가 학인스님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고, 스님들은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아들이 되었다.

어르신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놓은 현덕스님이 어머니, 아버지에 이어 부처님!을 외치며 퇴장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부처님에 대한 귀의로 승화시키는 스님의 모습에서 여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한다고 해도 깨달음을 향하는 구도심만은 변치 않음을 느끼게 했다.

격의 없는 마음 환한 미소로 남아

통도사자비원 원장인 오심 스님의 순서가 됐다. 평소 얼굴이 익은 오심스님의 무대는 앙콜 주문과 환호성이 이어졌다. '이 내 몸이 흙이 되도 내 마음은 자비원과 함께'로 개사해서 노래를 부르자 박수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마지막 무대는 스님들의 막춤시간, 스님들이 머리에 휴지를 감고, 미니스커트를 입은채 가발을 벗어 던져도 이제 더 이상 흉이 아니었다. 무대 위의 스님들과 객석의 어르신들은 이미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었고, 한마음이 되었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즐거움만이 가득했다. "스님들이 너무 잘해. 스님들 모두가 내 자식 같고 모든 게 즐겁고 그래." 임경례(76. 양산 석계) 할머니는 스님들이 무대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스님들의 대원력은 지역의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일체의 형식을 뛰어넘어 무대에 올려졌다. 스님들의 격의 없는 마음들이 진한 감동을 자아냈던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스님들의 재롱에 환하게 밝아진 어르신들의 마음은 주름진 얼굴의 환한 미소로 남아 오래도록 피어올랐다.

글= 천미희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 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설날 특별전세 항공편으로 떠나는
중국 역사고찰 성지순례 5일 449,000원
▷ 소림사 · 용문석굴 · 백마사
▷ 출발일 : 2004년 1월 22일(木) 오후 21:00 인천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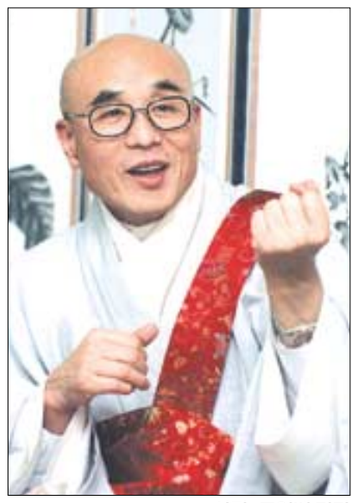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인/터/뷰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 2004년 주요 계획과 방향

"힘 있고 일하는 종단 만들겠다"

불교전통문화전수센터 불사 올 봄 착수
복지·환경 등 참여 활동 확대할 것

2004년을 맞는 불교 종단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이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 각 종단의 다양한 종책과 종무지표에서 이같은 변화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제2종단으로 꼽히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으로부터 태고종의 올해 주요 계획과 방향을 들어보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올해 태고종의 주요 종무지표는 무엇인가.

종단내에는 종단이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런 때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종단을 '힘 있고 일하는 종단'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먼저 종단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승려의 결혼과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종단발전을 이끄는 장점으로 부각시켜 나가겠다. 총무원장의 책임과 종도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종단 백서·안내자료 발간

▶종무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사업은.

총무원 청사가 입주할 불교전통문화전수센터 불사를 올해 봄에 시작할 것이다. 이는 제2종단의 위상을 세우는 미래지향적인 불사가 될 것이다. 종단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종단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법령집과 행정서식, 종전 등도 발간할 것이다. 이 외에도 승풍기강 확립을 위한 법계고시, 구족계 수계산림, 종조 탄신 기념사업 등도 계획되어 있다.

종단 외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역량을 중앙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중앙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인권·환경 위원회와 같은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등 종단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종교계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태고종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

종단의 역량은 소속 개개사찰의 활동에서 모아진다. 이를 중앙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태고종은 올해 소속사찰의 지역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실시되는 총선 때에는 바른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범종단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류를 바로잡는데 종교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태고종간 분규가 5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것인가.

조계종과 분규가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현재진행형인데 대해 애석한 마음이다. 조계종은 조계종대로 태고종은 태고종대로 명분과 실리에서 양보하지 못한 면이 많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분규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올해는 조계-태고종간 분규 해결의 물꼬를 터 나가겠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불교는 종단 난립이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총무원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불교의 큰 틀을 다시 짜야할 시기가 된 것이다.

선교육 후 득도 제도 정착

▶종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묘책은.

교육체계 확립과 재정 안정은 태고종의 오랜 과제였다. 올해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여 종단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

먼저 종단의 교육체계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 태고종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동방불교대학에 신설한 승가과를 졸업해야만 한다. 또한 종헌·종법에 의거 행자득도 수계산림과 구족계 수계산림, 법계고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종단은 지난해부터 녹색장묘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단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생활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이다. 올해에도 이 운동을 전개해 수익을 종단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단 재정의 기본이 되는 분담금 납부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종단 소속 사찰은 총무원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에 종단 소속 사찰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공직 취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 희망 키우자"

▶새해 종도와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자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희망을 키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희망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살고 싶은 세상이 될 것이다. 올해에는 불신과 다툼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허 스님 100돌 기념사업 편다

관음종 기념사업회 구성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관음종 중앙종회는 1월 5일 인천 흥륜사에서 제41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이 사업을 추진할 기념사업회(위원장 지섭)를 구성했다.(사진)

이에 따라 관음종은 태허 대종사의 탄신 기념일인 10월 8일을 전후해 총본산 묘각사에 연혁비를 조성하고 법어집을 발간한다. 또 한·중·일 불교계가 참여하는 국제학술세미나와 국제보살계법회를 열어 태허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하기로 했다. 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45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앞서 관음종 중앙종회는 제10대 중앙종회 개원종회를 열고 의장에 법륜 스님(인천 흥륜사)을 추대했다. 또 부의장에는 경철 스님과 백제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삼론종 총무원 부장 인사

삼론종(총무원장 혜광)은 1월 5일 총무부장에 청봉 스님(서울 옥예원)을 임명하는 등 총무원 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교무부장에는 혜정 스님(인천 대불사), 재무부장에는 지겸 스님(청원 청국사), 규정부장에는 허부 스님(군산 삼정사포교당)을 각각 선임했다. 또 사회부장에는 성원 스님(괴산 보림정사), 문화부장에는 도연 스님(서울 관불사)을 임명했다.

금강대 장학제도 개선

천태종 종립 금강대(총장 박봉식)는 일정성적(평점 3.30) 이상을 얻어야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학생 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평점 3.30 이상인 학생은 학비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2.70 이상 3.30 미만인 학생은 수업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70 미만인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입생은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

이와 관련 금강대는 "지난해 일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평가를 받는 등 전액 장학금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일정성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학업 의욕을 높임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진각종 새해 49일 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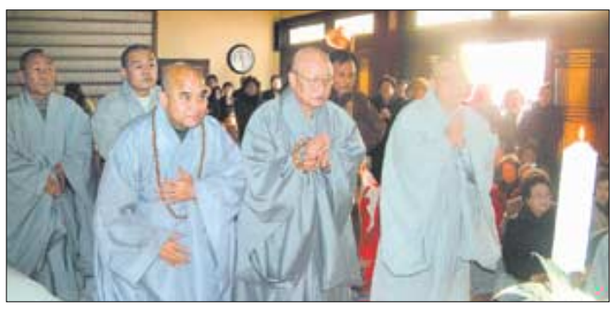
1월 11일 새해대서원 불공을 회향한 진각종은 1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7주간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해 국내·외 심인당에서 새해 49일 불공에 들어간다.

49일 불공은 새해대서원불공에 이어 여러 조상을 위하여 행하는 추복불사로, 효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정신이 깃들어 있다.

동방불교대 입학생 모집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1월 14일부터 2004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을 위한 원서 교부를 시작한다. 올해에는 기존의 불교학과, 범패과, 불교미술과 외에 승가과가 개설돼 첫 신입생을 받는다. 승가과에서는 태고종 승려가 될 것을 목표로 불교내전을 공부한다. 교부기간은 21일까지다.

동방불교대학은 1982년 태고종에서 설립한 2년 과정의 전문불교대학으로, 태고종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불교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02)745-2030~2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 49재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의 49재가 1월 9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렸다. 대륜문도회 대표 혜초 스님은 "덕암 스님은 일평생 수행과 종단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등 온 몸으로 후학들을 일깨워준 진정한 스승"이라며 "그 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의 채찍으로 삼아 더욱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종단 위상 높이자" 새해 다짐

조계종 태고종을 비롯한 각 종단이 신년하례법회와 시무식을 열고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서원을 다짐했다.

조계종은 1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신행단체 시무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종도와 종무원, 불자들이 원융화합하여 불교와 종단 발전을 주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한 신행·포교 단체들도 1월 10~11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태고종도 1월 5일 총무원, 중앙종회, 중앙호법위원회를 비롯해 원로회의, 지방교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봉원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중앙종회 의장 인공 스님은 "종단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종도들이 공동운명체라는 투철한 종단관을 갖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종단내 불신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화합과 존중하는 종풍을 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총화종은 1월 9일 남양주 총무원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종도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아 올 한해 종단 내실을 튼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조동종(총무원장 심월), 삼론종도 1월 5일 서울 평창동 혜림사와 서울 등촌동 보리원에서 각각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고 종단 발전을 서원했다.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월 7일 서울 구산동 총무원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박봉영 기자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신년(2004) 새해 새아침에
불자님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말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솜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맘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여유롭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봉사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행복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정초신장기도
◎ 일시 : 1월 25일 ~ 2월 1일까지 오전 10시

입춘기도
◎ 일시 : 2월 1일 ~ 2월 4일까지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 정성구 기장

하늘·땅에 희망심는 일터불자

고속철도 광명역 이채권 역장



“올해도 우리 신행은 초고속으로 나갑니다”



희망이 꿈틀거린다. 일터불심도 설렌다. ‘하늘과 땅’, 새 희망을 담아낼 그릇이 커지고 있다. 국민생활의 혁명을 일으킬 고속철도 불심이 그렇고, 불교계 제1호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가 그렇다. 2004년 벽두. 그 싱싱한 출발점에 일터불자들이 당당히 서있다. 하늘과 땅에 불심을 여는 사람들. 그들의 타오르는 신심이 있기에 일터가 즐겁다.

하늘 가득히 불심을 … ‘이륙준비’ 완료

오는 3월, 첫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가 출범한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불자조종사 30여 명이 뭉친다. 지난해 10월부터 잦은 비행 일정을 조정해 ‘월별 신행 스케줄’을 마련했고, 올 한 해 활동 계획도 짬지게 짰다. 불자회 첫 ‘비행’ 준비를 완료했다. 이제는 활주로만 닦으면 된다. 불자라는 용어조차 낯선 ‘포교 불모지’ 항공 분야에 탁 트인 길을 내야 한다. 그 첫 길에 서 있는 불자 정성구 기장(56 · 법명 명선 ·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 창립준비위장). 1월 5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에서 이륙 준비 중인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기 조종실에서 만난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밝았다.

“시작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출발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늘 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칩니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또 다른 희망입니다. 우리가 직접 희망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당찬 포부는 이어졌다. 정 기장은 재가불교에 거사불자들의 매서운 ‘바지바람’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치마불교, 할머니불교를 ‘바지불교’, ‘손자 · 손녀불교’로, 그 신행풍토를 바꾸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미지근한 불교, 이제는 확 바꿔야 합니다. 화끈한 신행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교가 젊어져야 합니다. 문화행사가 있는 법회를 열어 젊은 불자조종사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정 기장은 특히 ‘사탕과 당근’의 비유를 들었다. 불교는 재밌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는 불교라면 그것으로 생명력은 끝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의 강도는 비행기 이 · 착륙할 때의 긴장감에 못지않았다 한다.

시속 300㎞ 바라밀특급 ‘시동’

‘바라밀특급’ 철도불심이 시속 300km로 달리는 준비에 바쁘다. 오는 4월, 철도불자들의 희망을 담아낼 큰 그릇이 만들어진다. 고속철도 완공이 바로 그것.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이 생활혁명 주역에 불자들이 서 있다. 1월 5일, 고속철 전용선로 시발점인 광명역 플랫폼에서 이채권 역장(53 · 법명 심광 · 철불협 지도위원)을 만났다.

“광명역은 고속철의 심장부입니다. 선로의 온도까지도 감지하는 ‘CTC 열차집중통제실’을 비롯해 고속철도 전용선로 412.2km의 첫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 역장. 그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를 보냈다. 오직 한 가지 화두만 들었다. ‘완벽한 개통 준비’를 위해 촌각까지도 쪼개 썼다. 21세기 교통혁명을 철도불심이 이끌겠다는 일념뿐이었다. 33년 철도인생을 고스란히 쏟아 부었다.

“14,576평 지하2층 지상 2층 건물 곳곳에 불심을 녹였습니다. 피안의 세계로 이끄는 법륜처럼 고속철도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더 내비쳤다. 전국 명산대찰에 불심을 실어 나른다는 불자로서의 기대감이었다. 부처님 도량을 더욱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철도불자들이 만끽할 수 있는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 역장은 앞으로 광명역을 철도불심의 요람으로 키울 계획이다. 조만간 ‘광명역 불자회’를 창립시키는 한편, 철불협 서울지역의 신행중심지로 육성시킬 생각이다.

글= 김철우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우리 모임에선



농협중앙회 불자회(회장 강명구 · 사진)는 1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차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이탁수 · 사진)는 1월 13일 우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2004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과천청사 불자연합회(회장 송도근 · 사진)는 1월 10일 전남 여수 용문사, 향일암으로 갑신년 새해맞이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 · 사진)는 1월 11일 통영 벽방산에서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산악회와 시산제를 봉행했다.

우리불자회는요

김천소년교도소 정명회



김천 소년교도소 정명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공주 갑사 성지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음엔 정진 얼굴엔 미소 … 우리는 한가족

삶은 누구에게나 오고 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과 마음의 어우러짐 속에서 행복이란 열매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다보면 이래저래 일어나는 번뇌들로 괴로워하고 실망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의지처가 됩니다. 아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지혜를 가져다줍니다.

1996년 12월. 김천소년교도소 직원 불자 12명이 뭉쳤습니다. 창립법회 때 느꼈던 환희심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천소년교도소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직원가족들이 동참했지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일과를 끝마치고 법을 나눴습니다. 가족동반 법회도 열었지요. 김천 직지사 설법전, 천불암 등에서 매월 한 차례씩 기도정진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 다녔습니다. 선운사 도솔암, 순천 송광사, 김제 금산사, 공주 갑사 등 부처님 도량을 참배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삼보를 받들면서 안으로는 마음의 정진에 힘써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 밖으로는, 육바라밀중의 하나인 보시 실천으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2001년에 예천 연꽃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고,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한 10일간 연등을 외정문 양쪽에 250~300개를 달아 수용자를 면회 오는 가족들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직장을 오는 사람들에게 옛 성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받을 수 있고, 삶의 재충전의 기회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마도 한밤에 펼쳐지는 연등 불빛이 너무 좋아 이곳 김천시 지좌동의 명소로 부각됐을 겁니다.

우리 불자회는 회원가족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는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전출시 전회원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드렸고, 법회시 김천 직지사 부곡식당에서 가족동반 모두공양을 같이해 회원 상호간 가족애를 나눴습니다.

올해 우리 불자회는 불자 재소자들에게 법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주고, 불자 재소자들에게는 희망이 전해지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내복, 영어사전, 행사시 다과를 전달해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이끌어 줄 계획입니다. 또 회원 동료간에는 승진 등의 경사에는 기쁨을 함께 하고, 어려울 때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신행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소년교도소에 관심이 있는 불자님들이 있으시면, 항상 문이 열어 놓을 테니 많은 관심을 주십시오. 언제나 환영 합니다.

■김기화 회장



정신까지 담아낸 위대한 얼굴



조사탱, 작자미상, 한국 조선후기, 비단채색,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한·중·일 초상화 대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3월 14일까지

얼굴이 뜨고 있다. 인터넷상의 속어였던 잘 생긴 얼굴이라는 뜻의 '얼짱'이 사회전반에 통용되고 있으며, 그 열풍은 옛 선조들의 초상화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형상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 내면의 정신까지 담는 전신사조(傳信寫照). 동양 초상화가 추구했던 전신사조의 실재를 살펴볼 수 있는 대형전시 '위대한 얼굴–한 · 중 · 일 초상화 대전'(3월 1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한 · 일 고승초상화 15점도 출품돼 눈길을 끈다.



윤두서 〈자화상〉 18세기, 국보 240호, 해남 개인 소장

▌한국

단아한 격조미



왕씨선세초상, 중국 청말~20세기초, 한국 개인 소장

▌중국

화려하고 섬세



도보쿠거사상, 일본 에도시대, 호쿠오카시 박물관 소장

▌일본

변형과 과장법

한국 국보 36점 포함 총 102점 전시
'화엄종조사회권' 등 진귀한 자료 가득
단순 초상화 넘어선 인격, 품위까지 담아

국보급 한국 초상화 36점과 중국 명 · 청대 관료들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 56점, 일본 후쿠오사키박물관 등이 소장한 초상화 10점 중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단연 국보 240호 윤두서(1668~1715) 자화상. 눈꼬리를 매섭게 치켜 올리고 흑백이 분명한 광채 서린 눈빛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마저 일으킨다.

또한 미간에 살짝 표시되어 있는 안경자국과 좌우로 힘차게 뻗은 수염은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당시대(조선)의 사실주의적 초상화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조적 기법을 사용해 인물내면과 외면의 상호대립적인 요소를 병존시켰다.

옛 선조들에게 초상화는 인물을 화폭에 담아 실물과 같이 소중히 다루는 그림이었다. 또한 조상숭배의식을 위한 그림이었기에 서민보다는 제왕이나 성현, 충신, 효부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한국의 초상화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단아하고 격조 있게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대상 인물의 표현에만 치중해 참배자의 시선을 빼앗을만한 요인을 모두 제거했다. 이 점은 삼국의 공통적인 초상화기법으로 인물의 모습뿐 아니라 인격이나 기질, 품위 등 성정을 담는 전신사조의 기본 틀 아래 한국 초상화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밖에 보물 594호 '최덕지 초상'과 '주도복 상' 중국 고대부터 명대까지 위인 220명과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시습 4명의 한국인물을 담은 '역대도상화첩' 등이 선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승상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초의선사 초상'과 지공 · 나옹 · 무학 화상의 '삼화상 진영' 직지사의 '조사탱' 등 조선시대의 승상이 바로 그것.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승상은 억불숭유 정책을 피던 조선조 때에도 성행했다. 그러나 대부분 화폭 하나에 한 인물만 그릴 뿐 군상형식으로 그려진 것은 대흥사와 직지사의 '조사탱' 몇 점에 불과해 이번에 전시된 조사탱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조사탱은 사찰의 계보와 역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취세나 의복, 얼굴형용 등은 일괄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 초상화는 기하학적이다. 중국이나 한국 초상화와는 달리 인물의 기질과 신분을 표현하기 위해 변형과 과장법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선종(禪宗)은 무사 계급의 후원을 받아 성행했기에 친조(頂相)라고 불리는 승상이 발달했다. 대표적인 친조로써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와 승리를 이끈 '도보쿠거사상'과 일본 진언종(眞言宗)의 개조인 '구카이상' 등이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의 이야기를 다룬 화첩 '화엄종조사회권'도 흥미롭다.

동국대 미술사학과 정우택 교수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화엄종조사회권'은 의상 대사의 부석사 창건 설화 및 선묘공주와의 만남, 원효 대사의 당나라 유학길의 해골사건 등이 총6권으로 그려진 두루마리형식의 그림"이라며 "일본에서 제작되었으나 인물, 복식 등에서 중국 회화 표현이 선보여 고려시대의 회화경향을 짐작케 해주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밖에 '소에이코 구로다 다다유키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軍師)인 '구로다 조스이상' 등 고위층의 초상화는 개인적인 면모보다는 신분표현에 더 치중해 형식화된 느낌이 강하다.

중국의 초상화는 한마디로 현란하다. 인물뿐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과 장신구, 배경에 놓인 가구까지 섬세하고 화려하게 묘사돼 있다. 이런 표현기법은 인물의 신분이나 지위, 개인적 기호 등을 그림에 투영시키기 위해 사용됐다.

특히 '왕씨선세초상'은 남자 7명, 여자 8명의 초상을 군상으로 그린 작품으로 지문공(志文公) 왕부무(汪敷武)의 진용(眞容)에 대한 찬문과 삼대에 걸친 가계에 대해 논하고 있는 제발(題跋)이 적혀져 있다. 인물들은 얼굴의 굴곡과 주름을 선묘로 표현하고 명암으로 미화시켰으며, 의복 역시 주름선을 뚜렷히 표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 중국 청대의 '정정공 초상'과 '문인초상화첩' 등의 작품들과 분묘에서 출토된 원 · 명대의 중국 복식 19점이 전시된다. (02)730–4931~3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화엄종조사회권(강의하는 의상스님), 영인본, 일본 국보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月 넷째주 (화 ~ 금) ◈ **강의장소 :** 부산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빙의
그 영혼의 노숙자들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

저자 법운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활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

※ **알립니다.**
강북구 수유리에 동방파동연구소 서울 사무실을 개원하였습니다.
☎ 02)996-6156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이끼 낀 석탑 · 마애불 운치 있다고?

속살 파고 드는 곰팡이 · 나무뿌리 "아파요~"

석조문화재 생물학적 손상 갈수록 심각
환경개선 · 약품처리 등 '예방과 치료' 시급

탑에서 풀이 자란다. 노천의 마애불이나 석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온 몸에 짙푸른 이끼를 법의(法衣)처럼 입고 있는 불상은 천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간의 문학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석탑이나 불상에게도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식물의 뿌리가 세월의 권위를 대변하는 법의처럼 느껴질까?



경북 칠곡군 송림사 오층전탑 후면 옥개부에 초본류와 이끼류가 서식하고 있다.

■탑신에 이끼 · 나무 서식 '위험천만'

지난 한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존과학연구 24>에 실린 10개의 보고서 가운데 4개가 석조문화재의 생물학적 손상에 관한 것. 그만큼 생물에 의한 석조문화재의 피해는 심각하다.

석탑이나 석불에 손상을 주는 생물에는 이끼류 외에도 미생물인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藻類), 지의류(地衣類), 고등 식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들 식물은 석조문화재 표면을 오염시키고, 석재표면의 갈라진 틈을 따라 내려간 뿌리는 석조물의 강도를 약화 시키는 물리적 손상을 입힌다. 또 식물이 성장하는 동안 분비하는 산성 물질은 화학적 손상을 입히게 된다. 이러한 생물 · 환경적 피해가 결합하면, 석조문화재가 갈라지거나 일부가 탈락하는 등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

실례로 2002년 경북지역 석조문화재 보존상태 조사에서 영주시 가흥리마애삼존불상(보물 제221호)은 지의류가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검게 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또 칠곡군의 송림사 5층전탑(보물 제189호) 옥개부에서는 목본식물인 아카시나무가 자생하고, 영양군 현일동 삼층석탑(보물 제610호)은 지대석이 토양에 덮여 균열된 기단부 위에 초본류가 성장하고 있었다.

■주기적인 청소 · 모니터링 등 필요

이 같은 생물 피해를 방지하는 처리는 석조물 표면을 생물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조건으로 변화시켜 생물체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제법과 생물체를 직접 제거하는 보존처리 방법으로 나뉜다.

방제법에는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 발수제 · 경화제(실리콘, 아크릴, 에폭시 수지 등) 처리가, 보존처리에는 기계적인 세척, 살균 · 살초제(살생물제) 방제 방법이 있다. 연곡사 동부도(국보 제53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은 이미 약제를 사용한 보존처리 과정을 거쳤고, 현재 중원 미륵리 석불 입상에도 살생물제를 처리 해 상태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존처리 보다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적인 보존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보존처리는 석제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완전한 방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석조문화재복원팀장 김사덕 연구원은 "문화재의 여건에 따라 기계적 방법, 화학 약품 사용 방법 등 적용되는 처리법이 다르지만, 통풍 · 배수 · 수목제거 등 환경적인 제어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실험 사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공사에서도 생물 침해 방지를 위한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해체한 미륵사지 석탑의 2000여개 부재는 생물피복 비율이 8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단부 3개 부재를 각각 세 부분으로 구분해 증류수와 플라스틱 솔을 이용한 단순세척, K201약제(1/5 희석제, 1/3 희석제 처리)에 의한 세척, 무(無) 세척하는 실험을 거쳤다. 그 결과 단순세척은 암석의 상태가 양호하면 물리적 훼손이 극히 적으나, 처리 4주 후 상당수의 생물체가 재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약제 처리는 농도에 따라 재발생 효과가 달라져, 생물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1/5 이상의 희석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7>

열역학 법칙의 연기성과 생명체(2)

우리는 질서 잡힌 것이 안정된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자연은 '무질서'가 매우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유정, 무정의 바탕인 생명(佛性)이 형태를 받아 생명체로 탄생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처럼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자연의 무질서를 향한 움직임에 위배됨이 없이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러나 손으로 성냥개비와 성냥곽을 부딪치게 해 서로 작용하지 않게 했다면 불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생명체의 탄생은 자연계에 존재의 수를 늘려 무질서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생명체 자체는 매우 질서가 잡힌 모양이라면 이것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까?

우선 열역학 법칙 중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보자. 에너지는 절대 만들 수도, 없애버릴 수도 없다. 비록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그 양은 항상 일정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아는 <반야심경>의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부증불감(不增不減)이란 표현이 부처님의 연기(緣起)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말은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이 생겨날 수 없고, 또 있던 것이 제로(zero)로 완전히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성냥을 들어 불을 만드는 사람의 손, 즉 생명이 물질의 껍질을 지녀 생명체라는 모습이 되는 데는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생명체에 있어 손에 해당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 상호작용을 시작해 만들어진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생명체의 몸은 매우 불안정한 그 질서 잡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먹고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라는 '질서'는 자연에 순응해, 안정된 '무질서' 상태로 변할 것이다.

우리 몸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음식물이란 형태(질서)를 분해해 무질서한 상태로 만들면서, 음식물을 유지하던 에너지를 빌려와 우리 몸의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이다. 자연계에게 생물체의 이런 방식은 전혀 낯설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음식이라는 질서는 생체 내에서 분해 되어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이 과정 중에 뜨거운 물이 식듯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모양을 바꿔 안정된 곳으로 흐른다. 이는 잠시 인과에 의해 우리 몸이라는 작은 연못에 머물다가 다시 때가 되면 바다로 가는 것과 같다.

탄생은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
작용의 근원 四大 … 불안정한 질서

태어난 것은 질서이며, 이것은 반드시 안정된 무질서인 소멸을 향해 간다. 또 소멸된 것은 원인에 의해 상호 작용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증불감의 연기적 세계다. 한편, 부증불감은 닫힌 세계를 말하기에 열역학 법칙으로 설명되는 연기적 세계는 또한 닫힌 세계를 의미한다. 연기적인 것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닫힌 세계의 이야기라면 이 세계 밖은 무엇인가? 이것을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선사(禪師)의 등장이 필요하다. 다음 글에서 살펴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발간
'불교학 연구' 7호
'강좌미술사' 21호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와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최근 <불교학연구> 7호와 <강좌미술사> 21호를 각각 발간했다.

<불교학연구> 7호에는 지난해 10월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전번역문제에 대한 논문을 포함해 박재현(경희대 강사) 박사의 '조선 후기의 선 논쟁에 내포된 원형지향성' 등 14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강좌미술사> 21호는 '간다라 불상조각의 특징'을 특집으로 문명대 교수의 '간다라 불상론', 박도화(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위원의 '페샤와르 박물관의 간다라불상조각 연구' 등의 논문과 논단을 소개하고 있다.

전북 · 제주 사찰 소장 문화재 4286점

조계종 · 문화재청 조사보고서
'한국의 사찰문화재' 발간

전라북도와 제주도 지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는 모두 4286점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은 지난해 전라북도와 제주지역 전 종단 258개 사찰 가운데 208개 사찰에서 2572건 4286점의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과를 담은 <한국의 사찰문화재>를 발간했다.(사진)

특히 지난 8월 26일 이후 조사를 시작했던 제주도 지역은 53개 사찰에서 268건 751점의 문화재가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지류가 662점으로 88%를 차지하고 조각 · 불화 · 공예 · 석탑 등은 80점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국비 5억원이 투입된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2차년도 조사를 마쳤다. 조사된 문화재는 시대별로는 조선시대가 3229점으로 주류를 이루고 근대 931점, 고려시대 104점, 통일신라 16점, 기타 6점이었으며, 종단별로는 조계종 3112점, 태고종 884점, 기타종단 290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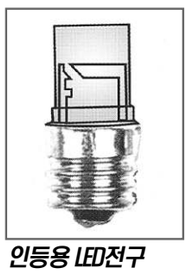
또 유형별로는 조각류 1924점, 서지류 1022점, 서예현판류 361점, 불화류 358점, 석조물 307점, 공예류 103점, 경판 147점, 복식 4점, 기타류 60점 등이다. 이 가운데 지정관리 대상 문화재는 385건 1536점으로 파악됐다.

오유진 기자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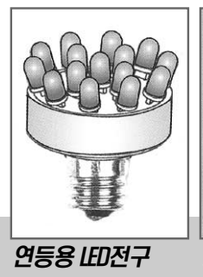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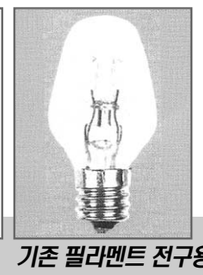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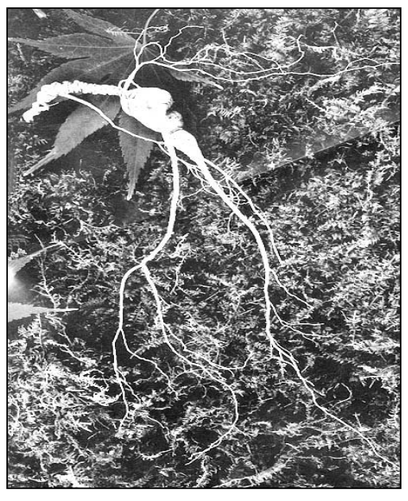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2266-9098,7550 FAX : 02)2266-7557 www.kibosa.com E-mail : kibosa@kornet.net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일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일반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화청, 바라, 나비무 각종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우리집도 100%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
부부문제(금전 · 애정 · 갈등)
자녀문제
(학습태도,친구관계,직장문제,부모+형제에 대한 존경과 애정)
정기강의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수시친견 : 월~일요일 오전 11시 이후
장 소 : 성북구 돈암1동 83-2 (해인사 내)
문의전화 : 02)925-3747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큰행사에 직접
테잎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나비)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스님이 되고 싶은 남여 행자님을 모십니다
031-868-1832~3
011-9822-6469
경기도 동두천 옥금산 불면암

전통의식,각종행사, 천도재,점안식,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제의식,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286-0308
02-386-09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지역
011-527-06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정읍 보림사
063-535-6800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를 구합니다
052-254-5125

부전 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016-787-94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안양 비산동
031-448-8811
031-448-8005

공양주 보살님(급) 구합니다
신심있고 가족같이 사실분 구합니다
▷ 서울(월급70~80만원)
011-286-0308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이천
031-641-6311

신비한 기 치유법
1. 만성적인 두통
2. 관절염, 요통
3. 병명이 없는 육체의 병
4. 정신질환, 영적인 병
대 암 사
063-537-2448

변비는 만병의 원인
변비 · 숙변 (다이어트)
▷변화없을시 환불 보장
2달분 90,000원, 1달분 50,000원
구입문의 080-558-6633
대리점모집

천도재 구병시식 태아영가 49재 천도 영가천도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태아영가 천도재 3月8日 봉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60대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수있는 일을 저렴한 보시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부전 스님 모십니다
051-524-8932
보 광 정 사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착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법랍 8년된 비구승입니다
부전스님 소임 원합니다
010-3929-9751

천년된 미륵석불이 계신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수행 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나이 20~40세)
031-884-4883
011-9116-0715

비구니 스님 2분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351-2993
031-313-57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나이 30~45세
011-558-62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60대)
불심이 돈독한 자,
울산시 남구 옥동
052-272-1107
011-595-1522

부전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408-1368

큰스님 밑에서 불교를 정법으로 배우실 행자님(남)을 받습니다
031-542-0295
011-9894-077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청 주
(50세 이상)
011-459-3282

부전스님과 법당보살님을 모십니다
▷ 분당 불국사
031-719-04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북 칠곡
016-521-0003
054-975-0003

신심있고 가족처럼 함께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 북
054-742-5088

천년고찰 기도도량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313-5700
011-351-2993

불교대학 가맹접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구회(포교단)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포교관리사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교육일정 : 2004년 2월 11일(화)~12일(수) 주 1회
★강사 : 초 · 중급 – 남륜 스님
★사주통변 – 김재덕
(SBS 인생역전,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관상학 (특강) – 신기원 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3시간 완성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수인작법(수강생 모집)
자연의 운행속에 감춰진 생노병사의 열쇠인 자연수리로 수치의 비밀을 밝히어 각자에 대한 운명과 타인 내지 자녀들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을 바로 보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혜안의 비밀을 푼다
수치로 사주 보는버 내지 모든 생활사에 수치 응용 비결법 전수
내손을 가지고 조화를 이용하여 구궁 팔문 태을 태양 사시 12달의 수를 놓아 화생할수 있는 수인작법 터득과 손으로 뽑는 각종 수인사주 운수법 총망라 단시일 내 터득
(수인작법 육임 단시점 12신살 당사주 기문둔갑 그외 등등..)
불운의 각종 예방법 내지 다방면으로 부딪히는 인생사 풀어내는 비방법 방편법 전수
031) 633-1517. 016-231-5451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대체의학 전수생 모집

21세기는 대체의학으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유하는 세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불자님들의 중생제도와 포교봉사 활동에 도움이 되시도록 우주에너지의 초능력 氣를 전수하여 드립니다.

1. 전수과목 : 기영감법, 기치유법, 기감별법, 기초능력 (氣과학, 氣의학, 생명공학, 양자역학, 동양철학, 4차원세계)
2. 전수기간 : 2004년 2월 2일 부터 (4개월간) 2월 2일 개강 매주 수요일 10시~13시, 14시~17시(2개반) 수료후 자격증 수여, 지방 지원 개설 희망자 환영
3. 모집인원 : 각반 30명씩 60명
4. 심회원서 : 2004년 1월 31일 12시 마감
5. 기 타 : 현재 난치병 불치병 치유하고 있음

지암박사의 세계최초기적

1. 氣사진 : 인체, 주택, 묘지, 수맥차단과 질병치유로 신체를 활성화하고 안전보호로 제반사고를 예방한다.
2. 氣영감 : 직, 원격 건강진단과 지하자원 수맥탐사와 기계 고장부위를 탐지하고 생로병사를 판단하며 설계도와 세계지도만으로 탁상 탐지 한다.
3. 氣주입 : 직, 원격 병원체 소멸과 수맥 동기감응 차단제거와 충기 보강으로 인체를 활력화 한다.
4. 氣측정 : 생사기력 판단과 인류사적 고금경세경륜 및 흥망성쇠를 판단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 예지하며 지질학적 지기 길흉명당을 판단한다.
5. 氣집판 : 주택, 묘지, 점포, 공장, 병원, 학교, 온실, 축사, 양식장등의 흉지를 길지 명당화 하여 불운을 행운으로 전환 시킨다.
6. 氣전환 : 물, 의약품, 음식물의 음성을 양성화하고 전기의 음성화, 양성화 자유자재. 전자파를 유익상 양성 氣로 변환한다.
7. 氣의학 : 인체와 음식물의 적부, 인체와 약재 약물의 적부, 인간상호관계의 판단, 한의학의 4상체질 4초내, 8체질의학 8초내 체질 감별

정신세계연구원 氣아카데미
대체의학센터 지암원
전철 신설동역 5, 6번 출구 신궁전 예식장뒤 화니빌딩 301호
☎ 02)953-7027, 7037 / H·P 017-409-4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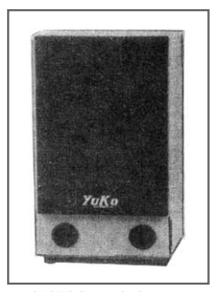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효사육임도서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설명비디오 포함)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본회회원실기지도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남원	●위치 : 경기여주	●위치 : 충남서산
●법당 : 20평	●법당 : 15평	●법당 : 20평
●요사 : 60평	●요사 : 70평	●요사 : 110평
●납골탑 : 100기	●부지 : 2050평	●부지 : 900평
●부지 : 2000평	●가액 : 3억	●가액 : 9억
●가액 : 1억9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당 최적지 안내

- 위치:서울종로구교북동3층30평
- 법당1, 종무소1, 방1, 주방1, 화장실
- 삼존불, 후불, 신중단, 관음, 단군탱화, 영단
- 가액 :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1개월정도 스님이 도울수있음)

02)385-6708. 011-392-6231

사찰 건물 급매

- 위치 : 서북미 시애틀 전원도시 중심가에 있는 3층 건물 (주변이 수목으로 우거짐)
- 한국지리산 칠불암같은 분위기
- 3층 전체가 종이장판이깔린 온돌방식임
- 상층은 전통한국선방으로 되어있음
- 양명하고 도시에 있는 느낌이 않듬
- **꼭 뜻있는 분이면 영주권까지 내줌**
- 가액 : 6억 3천만원

미국전화 510-486-1762
한국직통무료전화 0506-301-3069

신축사찰수련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파계사 서편 3k
- 대지 207평, 밭 110평, 건물 70평
- 목조형 철근조 2002.11월 준공
- 1층 : 객실 3칸, 대청, 사무실, 내실 요사, 욕실, 심야보일러 기름 겸용
- 2층 : 법당, 주지실, 응접실, 기타
- 특징 : 山水좋은 경관(답사후 절충)

016)875-9833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사찰**
- **부 지 : 130평. 요지**
- **법 당 : 50평 포집**
- **요 사 : 100평**
- **가 액 : 12억**
- **위 치 : 인천포교당**
- **부 지 : 32평**
- **전 세 : 4700만원**
- **시설비, 월세 없슴**
- **요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내당동
- 구)황제예식장, 황제맨션앞
- 평수 : 45평
- 방4개,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9633-0302

단독주택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시장내
- 법당 단독주택 40평
- 보증금 전세 4천500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옥상사용가능, 철학관으로 좋음

011)662-7372
016)344-1129

사찰 안내

- 위치 : 아산과 공주 경계
- 부지 : 4500평
- 요사채 30평, 법당 15평, 산신각 4평
- 새로절을 불사할 분만 전화요망

041)841-0751

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에서 5분거리
- 건물 평수 : 총 40평
- 임법당 10평의 방4개, 목욕탕 2개
- 조건 : 매년 도지 18만원의 묘지관리
- 가액 : 6천 500만원

033)662-8713
010)3030-8713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슴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대출가능)**
- ※ 역사깊은 도심사찰임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4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10억**
- ※ 주차시설 양호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법당 : 대지 97평,
- 1층에는 대웅전, 산신, 용왕단
- 법당 2층 : 천불전
- 요사채 대지 85평
- 지하 식당, 1층 사무실, 2층 살림집
- 가액 : 7억
- 가정주택으로 등록되어있음

055)288-0830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대지 360평, 대웅전 26평
- 지장전 10평, 산신각 5평
- 용왕전 0.5평, 공양실 大, 공양실 小, 주지실, 종무실, 방4칸
- 가액 : 5억(절충가능)

011)9105-7240

사찰 안내

- 위치 : 팔공산 선본사 방향
- 법당 : 목조 20평, 요사채 슬라브 30평
- 대지 180평, 노천 용왕당
- 입구까지 포장도. 주차 30대 가능
- 산세가 좋고 계곡물 흐름
- 지하수 1일 500톤. 창건 1년
- 가액 : 3억3천만원(중개불요)

011)860-2014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법당 30평,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부지 1천여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41)567-0392
011)723-6640

사찰 안내

- 위치 : 보령시 외곽
- 면적 172평중 대지 86평
- 정남향. 건평 36.75평
-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져있고 앞면은 툭터져 있으며 큰도로에서 약 80m도보
- 임법당. 큰방1(가로25자, 세로12자 이상), 작은방2, 주방, 욕실
- 잘지은 조립식 건물. 1년됨
- 타지역 이사관계로 매매
- 불사금 보시하시고 함께 생활하실 불자님 환영

041)934-8516

사 찰 안 내

- 위 치 : 창녕
- 대 지 : 7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3억3천
- ※전용주차장 있음 창녕읍내 도심사찰임
- 위 치 : 마산 근교
- 부 지 : 40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8억5천
- ※마산 창원 진해 중간 홈페이지 사진 참조
- 위 치 : 부산 근교
- 부 지 : 420평
- 가 옥 : 15평
- 가 액 : 1억3천
- ※웅촌소재(부산↔서울) 조용하고 교통편리함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상인동 대로변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70평
- 방2, 부엌, 화장실, 법당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1)822-610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당동 계룡시 인접
- 대지 70평, 임법당, 건물 40평
- 방3개, 주방 1개
- 보증금 100만원, 월 17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살림살이 일체, 몸만와서 운영 가능

033)672-2900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광덕면
- 법당 30평,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부지 1천여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41)567-0392
011)723-6640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 북면 온천지구
- 부지 : 230평(실사용평수 1100평)
- 법당 20평, 요사 30평
- 법당 내부, 조경시설, 주차장 도로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6)9296-5543
011)9557-4539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15분 거리 옥천
- 대지 100평, 건평 70~75평
- 2층법당25평, 방5개, 화장실 실내1개, 실외2개, 주방1, 거실1
- 앞마당 주차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43)733-8108 02)587-0108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포교당 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 암사전철역 부근 대로변
- 법당 35평, 방1, 넓은 옥상에 방3, 공양간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매매
-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2800만원, 옥상 사용 가능

011)714-3635
02)481-3635

포교당 안내

- 1층 : 건평 35평 방4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 2층 : 건평 25평 방2개, 법당 17평, 화장실
- 3층 : 방1개
- 삼존불 봉안
- 독서실, 각종 학원으로도 가능

016)597-5798
017)578-0648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운장사 법당
- 보증금 1000만원, 월100만원

033)766-0057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계룡
- 법당, 요사
- 미륵좌불(노천불)
- 가액 : 3500만원

011)9411-2195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1동은 건물 등기 돼있음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3)644-5797

단독주택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주역에서 15분
-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 탱화
- 방6개, 친견실, 욕실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전세 가능, 총 50평
- 시설비 : 500만원

011)9448-9760

토굴 안내

- 위치 : 태백산 자락
- 부지 3,600중 대지 300평
- 건물 : 방2, 부엌1
- 조경 및 토목공사 완료
- 700고지 산세 수려함
- 가액 : 7천만원

011)9759-5047
031)318-5090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11)9093-0108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태백산
- 부지 : 4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산세좋고 물맑은 고요한 산사 기도와 선방터로 적임지 오가피 일만주, 엄나무 500주, 지구자나무 600주가 심어져 있음

054)673-8200
011)776-5569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 영덕 위치
- 부지 760평, 법당 20평, 요사채 2동 50평, 찜질방 1동
- 명당 길지, 좌청룡 우백호 뚜렷 뒤는 산, 앞은 강
- 가액 : 1억 8천만원

016)9677-3411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 목조 한옥 21평(임법당)
- 부지 : 405평
- 좋은터 경관도 좋음
- 가액 : 2억원

016)249-339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 교통 전철 편리.
- 상권 지역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016)368-6917

단독주택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시장내
- 법당 단독주택 30평
- 보증금 전세 4천만원
- 시설비 : 600만원

011)662-7372
016)344-112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번화가
- 건물 : 5층중 4층 50평
- 엘레베이터 유
- 보증금 3천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합 5천만원(방 총 6개)

051)803-494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신축법당. 소나무 숲속
- 방4개, 넓은 거실, 수세식화장실, 창고
- 주차장 넓음. 넓은 텃밭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7)533-135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망우4거리
- 4층건물 중 3층
- 법당 30평, 방2개, 부엌1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9)571-173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시내
- 평수 : 60평
- 방2개, 주방, 종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800만원
- 대중교통 원활. 주차장 완비
- 서울에서 30분. 성남에서 15분 거리

011)517-84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500만원

032)863-3171
018)201-559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400만원

02)935-4294

사찰 안내

- 위치 : 지리산남원시내에서 5분숲속)
- 대지 및 임야 : 1,980평
- 법당 22평, 산신각 6평, 독성각 3평
- 요사채 45평(판넬식), 종무소 15평
- 특징 : 사찰주변 100년이상 소나무 숲속
- 가액 : 시설물 100% 포함. 3억 5천만원 (수도권, 충청, 강원지역 부동산과 교체가능)

011)9069-3909

선원 안내

- 위치 : 서이천IC 10분 거리
- 대지 278평, 건평 250평. 3층 건물
- 가액 : 4억
- 1 · 3층 홀 , 큰 방, 화장실
- 2층 방 7개, 화장실

011)325-5199
031)632-566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주엽 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건물 : 2층건물 2층 85평
- 방5개, 친견실, 욕실 2개
- 보증금 4천만원,월 100만원
- 버스정류장앞 지하철3분거리 (주차장 완비)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51-171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 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비 1800만원

011)9867-982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창동에 위치
- 5층건물에 2층, 약 35평
- 삼존불(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 신중탱화, 칠성탱화, 영가단, A급불단
- 방2개, 공단 연등 약 400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1)9911-0428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임대
- 법당(삼존불, 산신각, 108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7천만원(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일주문



청소년단체장 신년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현성 스님은 1월 8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2004년 청소년 단체장 및 관계인사 신년회를 개최했다.



'달라이 라마 대중법회' 봉행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은 지난해 12월 29일~31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 남걀사원에서 '한국인을 위한 달라이 라마 대중법회'를 봉행했다.



자광 스님 초청 '지장경 특강'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주지 우학 스님은 1월 9일 4층 대법당에서 김천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초청, '지장경 특강'을 봉행했다.



성주사암주지연합회장 취임

경북 성주 선석사 주지 선문 스님은 최근 선석사에서 결성된 대한불교 조계종 성주군 사원주지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21세기 청소년 시민교육

안민포럼 위원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1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청소년 시민교육' 강연을 개최한다.



대불련 총동문회, 운영위원회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 성기태 충주대 총장은 1월 14일 서울 계동 인근 식당에서 2004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불교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 임명

前 불교방송 방송본부장 홍사성 씨는 1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으로부터 불교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임명받았다.



제47차 정기 대의원총회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회장은 2월 1일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 예산 승인을 위한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는다.



창립1주년 기념법회

인천공항경찰불교회 전인배 회장은 1월 15일 오후5시 인천 정도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11-722-0211



신보원법우회 홍보실장에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고문 송병준 분쟁조정 2국장은 1월 1일자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홍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터뷰 WFBY대회 참석 수미 런던

"청년 불자의 증가 가장 큰 보람"



지난 2001년 아마존닷컴의 베스트 북으로 선정되며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화제를 뿌렸던 미국 청년불자들의 수행기 <청바지를 입은 부처(Blue Jean Buddha)>. 당시 하버드 불교협회 회장으로 이 책을 엮었던 수미 런던(Sumi D. Loundon · 30 · 사진)은 현재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살면서 불교학센터의 부소장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반적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초동 관문사에서 열린 세계불교청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WFBY) 포럼의 기조연설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런던 씨를 만났다.

△<청바지를 입은 부처>가 출판된 후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서구불교에 변화가 있었나?

– 가장 큰 변화는 기성세대 불자가 젊은 세대 불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청소년, 청년층의 불자보다 중 · 장년층의 불자 비율이 높다. 최근 많은 기성세대 불자들이 청소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들을 불법으로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청소년 동아리, 대학 등에서의 포교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 개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면?

– <청바지를 입은 부처> 집필을 마치고 난 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했다. 여행을 통해 아시아 불교국가의 문화를 배우면서 잘못 알고 있던 불교상식과 지식들을 바로 잡았다. 스스로 '불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안고 내 안의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한국불교를 직접 경험한 소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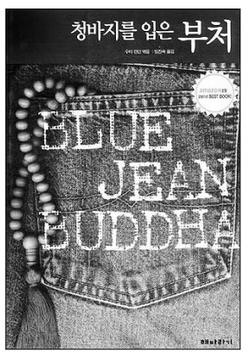
– 생활 속의 불교, 사회 참여적인 불교 역할이 늘어가는 등 다양성이 존중받고 있어 한국불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 특히 불자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구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참여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참여적 활동을 통해 불교를 접한다. 몇 년 전 만해도 서구 불자들의 대부분이 개인의 안정과 개발을 목적으로 명상 등의 수행에만 치우쳐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청바지를 입은 부처>의 후속편을 준비 중이다. 이전 책과 비슷한 구성으로 1부에 해당하는 앞부분에는 10대들의 종교적 고민을, 뒷부분에는 틱낫한 스님 등 스님들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숙해 지는 종교적 성찰의 과정과 발전을 보여주려 한다.

한국불교의 사회참여 배울만해
'청바지를 입은 부처' 후속 준비중

개인적인 목표는 전문 불교 공동체 운영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불교 사찰, 센터 뿐 아니라 서양인에 의해 운영되는 불교 센터들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서구의 불교는 명상, 선 등 수행적인 면에만 치우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앎과 실천의 조화가 요구된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불교 공동체 운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수미 런던의 '청바지를 입은 부처' 표지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제1회 한국불교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장준희 씨



"불교 소재 작업 계속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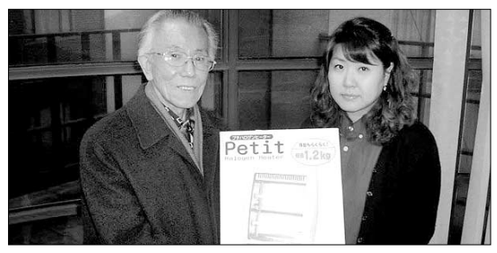
"이번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소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불서도 접했고 불교교리도 공부했습니다. 이 모두가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조계종이 실시한 제1회 한국불교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한 장준희(30 · 사진)씨는 "불교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불교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준희 씨는 무엇보다 불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소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었기에 이번 공모에 한번 도전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불교소재 작품들을 몇 편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김두식 기자

'2004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1월 3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2004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일환으로 '사랑의 히터 전달식'을 개최했다. 서울 성북구 신세계 백화점 미아점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1인용 히터 210개가 성북구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 시무식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은 1월 1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2004년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을 비롯해 이 지역 노인 40여 명이 동참했다.

제1기 어르신 강사 양성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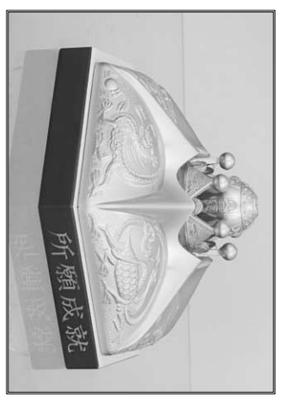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1월 8일 센터 3층 자원봉사실에서 '제1기 어르신 강사 양성 아카데미'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노인의 수화, 서예, 한문 등의 재능을 발휘하여 어린이들에게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탈북자를 위한 한마당 개최



서울시립노인요양원(원장 김유탁)은 1월 1일 요양원 강당에서 민족복지실천을 위한 '탈북자와 함께하는 신년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3년 탈북한 인민배우 이예선 씨 외 2명이 손풍금 및 바이올린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생氣 부적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궁으로 변합니다.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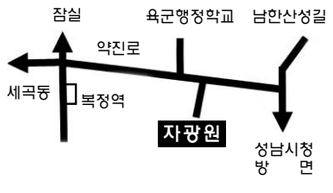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관절영양제 "글루코사민샥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 180정(2개월분)×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함유) 400mg, 구연산칼슘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코페롤, 아연, 망간 등
• 복용량

환자체중	1일 권장량
54kg이하	1000mg 글루코사민 800mg 콘드로이틴 황산
54kg~90kg	1500mg 글루코사민 1200mg 콘드로이틴 황산
90kg이상	2000mg 글루코사민 1600mg 콘드로이틴 황산

글루코사민 삭카드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완제품
• 권장섭취량
1일 3회 1정씩 식후에 섭취하십시요.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www.sbtongsang.co.kr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불자 세상보기

최 종 석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조화와 변화의 지혜

요즘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물갈이니, 핵시설에 대한 근본적 반성,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각성, 교육, 문화, 경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변화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회 병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가치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치체계의 변화는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충족을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삶의 질에 관련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방법이나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는 바로 다양한 욕구들이 사회의 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Abraham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에서부터 조직화된 환경에 속하려는 안전욕구, 인생의 동반자와 가족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갈망인 애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랑하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으로 자존감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앞에 열거된 욕구들이 충분히 만족되면,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는 병렬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충족도에 따라 높은 단계로 성장해간다고 했다. 만약에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욕구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미 충족된 욕구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슬로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각 나라마다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따라 욕구도 다르며 충족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한다. 어떤 나라는 생리적 욕구가 강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안전의 욕구가 강해서 안전의 욕구충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나라일수록 사회, 경제적 발전이 더 잘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변혁이니 사회개혁이니 하는 것은 바로 이 욕구의 강력한 사회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욕구들이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표출되면 사회 구성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화를 깨는 일이 된다.

<육종중생경>에 이런 비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여섯가지 중생을 얻었다. 개, 새, 독사, 여우, 물개 그리고 원숭이를 얻었다. 그는 이 중생을 한 곳에 매어두었다. 그러자 개는 마을로 가려하고, 새는 허공으로 날아가려고 하고, 뱀은 늘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우는 무덤 사이로 가려하고, 물개는 바다로 가려하고, 원숭이는 산으로 가려고 한다. 이 중생들은 서로 즐겨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편안한 곳으로 가기를 희망하여 서로 즐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각기 힘을 다하여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의 육근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여섯가지 감각기관이 서로 제가 즐기는 경계를 구하고 다른 경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인간의 욕구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불자가 바라보는 변화하는 세상은 욕구들의 잔치로 보일 것이다. 이 잔치가 잘 진행되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려면, 여섯 중생을 기둥에 튼튼하게 매어 두는 것처럼, 욕구와 욕구에서 중도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혜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이 제9회 포교사고시를 끝내고 이번에 또 349명의 포교사를 배출했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공무원, 군 장성, 교사출신이 대거 합격했다. 지원자들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지역별, 계층별 분포가 다양해짐으로써 포교의 전방위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조계종이 1982년 3월 포교사를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4700여명의 포교사가 양성되었으며, 포교사고시를 통해 배출된 유자격 포교사만 해도 국제포교사를 포함해 2000여명이 넘는다.

돌이켜보면 현대 한국불교는 6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근40여 년간을 비구 · 대처 분규와 종단 내부갈등에 휩싸여 종교로서의 주요 본분사인 포교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게다가 포교와 포교사에 대한 경시풍조는 타종교의 적극적인 선교활동과는 대조적으로 불교인들의 포교의지를 위축시켜 왔던 게 사실이었다.

포교사 활용 대책 시급

그러나 조계종이 뒤늦게나마 포교사 제도를 입법화하고 포교원을 설립해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나서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실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포교사들도 지난 99년 1월 자체적으로 포교사단을 구성해 현재 전국 6개 지역 90개 포교활동팀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지역운영위원회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포교는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포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일 못지 않게 포교사가 본인의 서원과 능력을 펼쳐나갈 장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당면과제다.

어렵게 따낸 포교사 자격증을 장롱 속에 묵히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겨우 명함대용으로 밖에 쓰지 못하는 포교사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다. 이제는 포교사의 종단적 활용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원이나 본사 차원에서 상임포교사 배치를 제도화하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포교사를 열성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활동케 하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결국 포교를 활성화하여 불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수(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들었다 솥뚜껑 리더십

남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거나 비난을 퍼부을지라도 큰 집의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고, 애욕을 떠나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는 이, 어진 이들은 그를 성자로 여긴다.

<수타니파타>

가마솥 밥이 맛있다는 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경험으로 안다. 그런데 그 까닭은 '어머니의 손맛'처럼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무엇이 아니다. 최근 밝혀진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마솥 밥맛의 비결은 솥뚜껑에 있다고 한다. 외양에서 느껴지는 것과 달리 솥뚜껑의 무게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묵직한 솥뚜껑이 솥 안에 열을 골고루 분산시키면서 최고의 밥맛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가장 맛없는 밥은? 당연히 냄비 밥이다. 기압이 낮은 고지대에서 밥이 잘 안되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해를 넘겨서도 또 무수한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해, "막 가자는 것이지요"에서 "대통령 못 해 먹겠다"를 넘어 '재신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소강 국면을 맞는가 싶더니, 선거운동 시비로 또 말들이 많다.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솔직하다'에서 '경박하다'까지. 어느 쪽이 더 온당한 평가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신중하지 못한 언사를 보이고도 '솔직'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은, 솔직이라는 말에 담긴 미덕의 상당 부분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솔직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해될 거라는 식이면, '예 · 의 · 염 · 치'는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야 할 패덕이 된다.

솥뚜껑은 묵직함으로 최고의 밥맛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뜸이 다 들었을 때, 비로소 입을 연다. 솥뚜껑의 리더십이다.

■윤제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무기수에 도움 손길을

무안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불자다. 이 곳에는 교도소 밖에 연고가 없는 무기수가 몇 사람 있다. 이 무기수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가 없어, 외부와는 완전 단절된 채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를 보면서, 신문사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님이나 불자를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다. 무연고 무기수들은 교도소 안에서 외로움과 아픈 가슴을 달래며 편지를 쓰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이 곳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보니 필요한 것이 많다. 생필품에서부터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까지 필요한 것만큼이나 부족한 것이 많다. 무연고 무기수들은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밖에 가족이 없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무안 교도소 불교방에 나오는 재소자들은 불교 공부할 시간은 많지만, 불교 서적과 경전에 굶주려 있다. 신문사나 신문을 보는 스님, 불자님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불자님의 작은 정성이 교도소 재소자에게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이용춘 (무안군 일로읍)

사리에 집착하지 말자

지난해에는 불교계 스승이신 큰스님들이 연이어 열반하시며 한 해가 마무리 됐다. 큰스님들의 다비가 끝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세간에서는 스님들의 사리에 관심이 쏠아졌다. 어느 스님은 몇 과가 나왔고, 또 어느 스님은 몇과가 나왔느니 하는 이야기가 불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과거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신 후, 오랜 기간 수행한 어느 보살에게서도 수많은 사리가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인간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탄산칼슘이 주 성분인 뼈는 모두 가루가 되고 재가 되지만, 많은 스님에게서 '정골'이라는 사리가 수습된다고 알려져 있다. 의학적으로는 사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다비 후 수습되는 스님의 사리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사리의 양과 질이 스님의 법력과 수행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보면서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불자들 먼저 스님의 사리에 대한 세속적 흥미위주의 관심을 버리자. 그래도 사리의 신비로움에 대한 미련이 남거나, 아직도 깨달음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다면, 사리가 나오는 불자가 되도록 스스로 수행정진 해보자.

이국희 (부천시 중동)

독자의 시

고요 4

하늘 날으듯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의 머리 처마

스님은
겨울 내내
문을 닫고
무엇을 하였을까.

적적한 뜨락에
조용히 피어나는
매화꽃봉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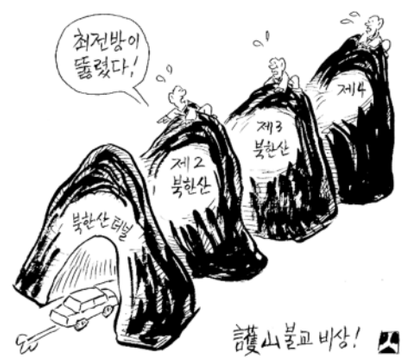
아하
이제사
알겠구나.

머언산
눈 녹듯이

숨어드는
졸음을.

박용열 (속초시 조양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02)447-530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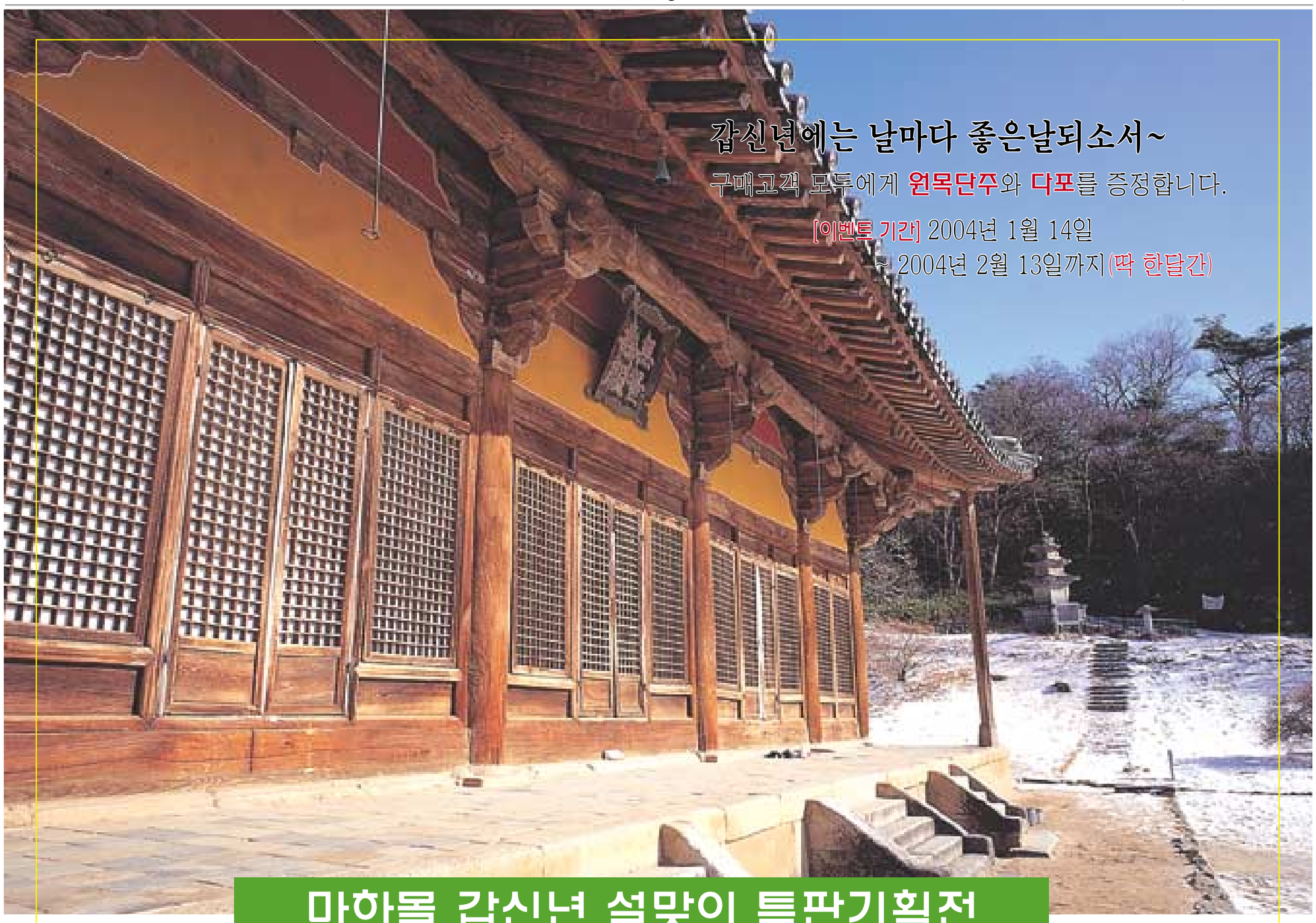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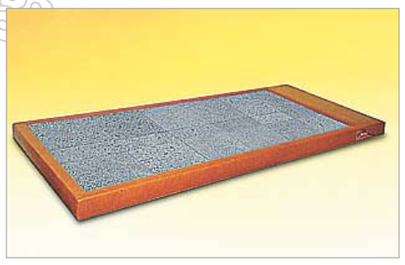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마하몰 갑신년 설맞이 특판기획전



● 희담석 스님용 보료 (15%할인)

판 매 가 : ~~2,800,000원~~

⇩

특 판 가 : 2,380,000원

사 이 즈 : 90cm X 180cm X 10cm

※ 설치비 별도(10만원)



● 희담석 방석 (20%할인)

~~판매가 : 198,000원~~ ⇨ 특 판 가 : 158,400원

사이즈 : 38.5cm X 35.5cm 색 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찜질팩 (20%할인)

~~판매가 : 38,000원~~ ⇨ 특 판 가 : 30,400원

희담석 체험사례

▶ 경안스님<전남 덕흥사>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 되어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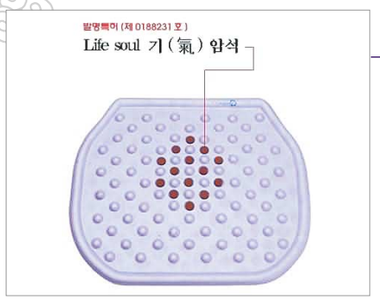
▶ 김용섭<여/66세,강북구 미아동>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열꽃이 솟고 팔꿈치 윗부분이 솜도 못 질정도로 아프던 지병 때문에 지난 10년간 좋다는 원적외선 치료기, 각종 매트등을 사용해 봤으나 일시적으로만 약간 나은 정도였다. 그런데 우연히 <희담 침대>를 알게 되어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온 몸이 푸근하고 편안했다. 보름 정도 자고 나니 10년 동안 느껴오던 그러한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제 사용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그렇게 극심했던 통증이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내 통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놀라와 했다.



37°氣 베개 +

37° 氣 제품 찬개더 100개한정 판매



37°氣 방석 +

● 37°氣베개 - 일반 메모리폼 베개가 아닙니다

40°C 이상의 전열을 가하여야만 원적외선이 방사되던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체온만으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기(氣)암석(Life Soul)이 부착되어 누울때 마다 건강이 증진 됩니다.

~~판 매 가 : 69,000원~~ ⇨ 특 판 가 : 60,000원(2개)

색 상 : 아이보리, 하늘색

사 이 즈 : 47cm x 29cm x 8cm

● 37°氣방석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기암석(LIFE SOUL)은 전열을 가하여 원적외선을 방사하던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신체 가까이만 닿아도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37°氣방석에 앉을 때 마다 건강이 증진됩니다.

~~판 매 가 : 20,000원~~ ⇨ 특 판 가 : 15,000원(2개)

색 상 : 연보라, 베이지

효 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냉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 불량에 좋습니다.

지압효과 : 표면의 돌기로 지압효과를 가져와 혈행을 촉진시켜 드립니다.

항균작용 : 숯가루를 첨가하여 장기간 사용해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온/방습효과 : 재질이 발포체(POLY URETANE FORM)로서 보온, 방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황토달마 100개한정 판매

● 황토달마

~~판 매 가 : 198,000원~~ ⇨ 특 판 가 : 98,000원

규 격 : 가로 25cm x 세로30cm

재 질 : 지리산 황토 100%





추천상품

지리산 선인에게 배운「황토 사용법」을 보급하는 山人, 明德 洪炫吾선생이 추천

건강 황토 단주 세트



특징 : 황토단주알을 굴리며 염불을 외거나 숫자를 세면 치매예방이 되고 황토의 기운으로 건강에 좋습니다.

~~정상가 : 60,000원~~ (15mm x 10개)

⇩

특판가 : 36,000원

~~정상가 : 55,000원~~ (10mm x 10개)

⇩

특판가 : 33,000원



한솔은(銀)세라믹매트

특 판 가 : 298,000원

사이즈 : 더블 200cm X 140cm
싱글 195cm X 100cm

+



▶ 사은품증정 : ❶ 달마수저 2set ❷ 원목단주 10개 中 택1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하몰 주문 전화 : 02)732-1520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배송료 3,000원 별도)



만화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향기전하고 싶어요



윤승운 화백 / 943년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난 그는 1968년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을 졸업했다. 1960년부터 여러 잡지에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1991년 제1회 한국만화문화상 저작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두심이 표류기>, <요철 발명왕>, <금봉이>, <맹꽁이 서당>, <겨레의 인걸 100인> 등이 있다. 현재 순천대학교 만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



불교만화 그리는 이웃 종교인 윤/승/운 화백

"불교는 우리나라 토착종교이고 우리 정신문화에 근간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비록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불교를 알지 못하고서는 나의 뿌리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소년중앙>, <어깨동무>, <보물섬> 등 30~40대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추억의 어린이 만화 잡지에서 '요철 발명왕', '맹꽁이 서당' 등을 연재했던 윤승운(61) 화백. 지금은 순천대학교 만화예술학과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의 작업실은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의 한적한 농가다. 평소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에 1980년부터 이곳에서 농사와 창작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불교 만화를 그린다는 것이 궁금해 대뜸 그 이유부터 물었다. 그러나 윤승운씨는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정다운 미소만을 내 보인다. '염화미소'일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이런 질문을 한 다는 것이 분별이었음을 알게 됐다.

"어린시절 부모님이 절에 다녔지만 1971년 결혼하면서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 나갈 때부터 가졌던 '나의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하고 남의 종교를 존중할 때 나의 종교도 존중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교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불서 읽기가 이젠 즐거움이 되었고, 심성적으로도 많은 교화를 받았습니다."

"불교 알지 못하면 자신의 뿌리 모르는 것"
내 종교 소중한 만큼 타 종교도 존중해야
불서 읽기 통해 심성적 가르침 많이 받아
중국, 한국 스님들 어록 만화로 만들 계획

윤승운 화백이 불교 만화를 그리게 된 것은 십여년전, 지금은 폐간된 <대중불교>라는 잡지와의 인연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당시 김희균 <대중불교> 편집부장에게 불교 월간지에 단편 만화를 그려달려는 청탁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종교인인데다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였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만화를 그려주게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그동안 읽은 불서만도 수천권. 금강경 등의 경전은 수십번도 더 읽었다. 그가 불교 만화를 그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만하다. 윤승운 화백은 그동안 <참된 사람 이야기>, <큰 사람 이야기>, <만화 삼국유사 이야기> 등의 불교 만화를 그렸고 <대중불교>, <동쪽나라> 등의 불교 잡지에 연재했던 만화는 최근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 <향기로운 부처님 나라>라는 두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윤 화백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중학교 재학 시절 할아버지 댁에서 우연히 읽은 역사책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그 이후부터 손에 잡히는 대로 역사 관련서적을 읽었다고 한다. 3000여권이 넘는 역사책이 그의 서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만 봐도 역사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1979년 한 잡지사로부터 시대물을 청탁받고 처음 역사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래 20여년간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캐릭터와 역사를 소재로 한 명랑만화를 그렸고, 그의 책은 어린 시절 우리의 정신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윤승운 화백은 스스로를 노력파라고 말한다. 한편의 만화를 그리기 위해 수백권의 책을 읽었고 직접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관련 자료를 모았다. 실제로 그는 1987년 한길사에서 기획한 한길 여행기행에 매주 참석, 전국의 사찰과 명승 유적지를 돌았고, 우리나라 고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 1993년부터는 성균관에서 7년간 사서삼경 등 13경을 공부했다.

"성균관에 다니면서 능허 스님에게 금강경을 배웠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불교의 교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로 알았는데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약간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종교로 믿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불교에 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우영, 신문수, 박수동, 길창덕, 이두호 화백과 함께 한국 만화 1세대로 통하는 윤승운 화백. 나이는 이미 회갑이 지났다. 젊은 시절 그렸던 만화들을 보고 자란 코흘리개 어린이들도 벌써 어엿한 30~40대의 엄마, 아빠로 훌쩍 커버린 지금, 그는 새해를 맞아 만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황폐해진 정신을 기름지게 만들고, 우리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주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그래서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맹꽁이 서당 – 고구려편'을 완간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스님들의 어록을 만화로 만들 계획이다. 큰 스님과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이 바르고 존중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다.

글= 김두식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불교가 산다



새로 나온 <프리즈냐 6권> 특별가 책정!!!
프리즈냐(6권)
35만원 ➔ 19만원<특별가>

6권(일반)의 종류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 49일 천도, 명절
2권(특별)의 종류 방생, 영가 천도, 각종 특별 행사 기도 법문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가족법회, 일요 수요 법회, 학생회, 대학생, 청년회,공무원, 회사원, 교수 교사 군 불자 법회나 가족 모임, 수련대회 각종 불공과 기도

법문 준비 시간에 다른 불사를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법문 내용에 소홀하지는 마십시오.

주제별 재일별로 독특한 구분 / 자유자재 응용 / 1편 분량 25분 소요 / 경전근거 / 시원한 활자 크기 / 겹친 내용 없음 / 수많은 특별 사례 소개/1편씩 분리 가능

찬탄과 헌공으로 가는 계획된 감동/ 진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명 법문 / 영험을 건져내는 새로운 눈빛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정진만 있고 법회와 설법이 없습니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한정 제작에 들어간 <프리즈냐>에도 눈 밝으신 법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 대 설 법 연 구 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믿음은 수행의 시작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중에서 <유마경>은 부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하는 '불국품'을 시작으로 전개됩니다. 이곳을 보면 바이샬리성에 사는 보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자의 아들이 자신의 친구 오백명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양을 올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친 공양물은 뜻밖에도 그들이 쓰고 왔던 아름답게 꾸며진 일산(日傘, 일종의 양산)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오백개의 일산을 하나로 만드시고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시니 그 하나의 일산에 수 많은 이 세상의 모습과 함께 모든 부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모여 있던 모든 대중이 한결같이 부처님의 그와 같은 신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설법 바로 들으려면 믿음 갖춰야

보적 장자는 부처님이 보이신 불가사의한 모습을 찬탄한 뒤 여기에 찾아온 친구들이 모두 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켰으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처의 나라는 어디 있으며 그 곳에는 어떻게 해야 태어날 수 있는 지를 설해달라고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중생의 국토가 곧 부처의 국토이며 그 국토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법을 이어가셨습니다.

대승경전이 거의 그렇듯 <유마경> 역시 고도의 상징과 비유의 기법으로 진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보적(寶積)이라는 젊은이는 이름부터가 보배를 쌓았다고 했으니, 이는 바로 부처님께 귀의한 중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항상 궁핍하고 초라하지만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바 없는 보배를 얻었으므로 보적이라 이름 한 것입니다. 그 보적의 아버지가 장자라 했으니 장자는 곧 부처님이고, 부처님께 귀의한 중생은 부처의 자식으로 뒤를 이어 역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오는 친구들 또한 부처님께 귀의한 중생들로, 오백이란 숫자는 신심을 일으킨 무량한 수효의 중생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바친 일산 또한 믿음을 상징한 것으로, 일산이 햇빛을 가려주고 비바람을 막아주듯 믿음이야 말로 능히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막아 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백명이 바친 그 많은 일산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 일체 중생의 모든 믿음은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이고, 발로 땅을 누르셨다는 것은 부처님이 발을 딛고 계신 장소는 이 세상 밖이 아니라 바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진 일산 속에 모든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중생들의 믿음이 부처의 깨달음으로 완성될 때,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차별이 없어진다는 이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불국토를 장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이고, 이것을 발할 때에 부처님의 설법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이로부터 수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고 명상을 닦기 전에, 자신에게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갖추어져 있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마선원장>

수행의 키워드 '견지 수증 행원'

見地 이론 修證·行願 보고 닦고 실천하는 것

'대만의 감산' 남회근 거사 수행법

불가 유가 도가 등 삼교에 회통한 가르침으로 불법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한 중국 명대의 고승 감산 대사가 되살아 나온듯, 활발한 강의와 저술활동으로 '현대의 감산 대사'로 불리는 남회근(南懷瑾, 86, 사진) 거사. 그의 30여 저술은 불유도 삼교의 수행법을 실제로 수증(修證)해 그 깊고 어려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어, 10여 년 전부터 중국 대륙에서는 필독서로 꼽히며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몇 년 전 <금강경 강의>와 <정좌수도 강의>에 이어 최근 출간된 <남회근 선생의 알기쉬운 불교 수행법 강의>(신원봉 역, 씨앗을뿌리는사람들)는 그의 수행법을 드러낸 대표작이다.



대-소승 수행법을 회통하고 있는 <불교 수행법 강의>의 장점은 수행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미혹과 기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착오에 대해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그 타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바른 수행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정면으로 제시하고, 정좌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보리의 증득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남 거사는 이 책에서 불법을 닦는 핵심이 견지(見地), 수증(修證), 행원(行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삼위일체로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견지란 이론(理)이며, 행원과 수증은 현실(事), 즉 사상(事相)이다. 견지란 견도(見道)이며, 도를 보려면 반드시 대지혜가 있어야 한다. 수증이란 경율론에 따라 선정을 닦는 것이다. 머리로 안 이치를 현실과 배합시키는 수행이다. 수증의 세 박자는 보고(見) 닦고(修) 실천(行)하는 것이다."

남 거사는 선종의 폐해도 과감히 지적한다. 견지의 측면에서 불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후세에 보리를 증득한 자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마조 선사의 '마음이 곧 부처(心卽是佛)'라는 가르침은 많은 도인을 배출하게 했다. 그러나 뒷날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치가 명확히 설명되면 될 수록 불학은 더욱 암담해졌고 수증 공부는 갈 수록 실질적인 토대가 없어졌다. 크기만 하고 실속이 없어서 차라리 지관(止觀)을 닦느니만 못하다. 관심(觀心)법문을 행하면 적어도 과위(果位)의 반 정도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 거사는 교리는 도외시하고 화두 하나만 들고 선(禪)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일부 수행자의 태도를 비판한다. 옛 조사들은 삼장 12부를 철저히 통달한 후, 다시 교리를 포기하고 직접적인 하나의 법문을 따라 깊이 들어갔으며,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련에만 전념하면 되지 경론을 꼭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중대한 착오라고 말한다. 이치에 밝지 못하면 관점이 바로 서지 않아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없으며, 공부가 시원찮은 것은 이치에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 거사는 수증의 방법으로서 소승(小乘)의 수행법도 강조한다. 대승도 소승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송(唐宋) 이전, 불교 교리가 지금처럼 극성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많았던 것도,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증의 방법을 붙들고 거기에 매진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 거사는 '화두는 지관 법문'이라고 규정한다. "화두 역시 지관(止觀)법문이지만 모든 의문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보통의 지관수행 보다는 탁월하다. 화두에 몰두해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떤 망상이나 잡념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지(止)이다. 그러다 어떤 기회에 갑자기 열려 이 문제 전체가 해결되어 버리니 비로 관(觀)인 것이다."

남 거사는 선의 진정한 중심은 달마 조사가 제시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 가운데 '행입'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이(理)'는 단순한 이치가 아니라 지관(止觀)과 관심(觀心)의 이론으로부터 시작해 나아가 도를 깨치는 것을 말한다. 행입은 십계(十戒) 및 보살의 행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인관계나 일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낱낱이 파악함으로써 도를 증득하고 깨닫는 것이다.

> "참 수행자는 늘 자신의 心行·사상·행위 검사하는 사람"

'수행의 마지막은 행원(行願)'이란 그의 말도 '행입'의 연장선상에 있다. "행원이란 자신의 심리적 행위를 바르게 닦아나가는 것이다. 심리 행위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공부가 진보할 수 없으며, 견지 또한 원만할 수 없다. 불제자가 이론만을 말할 뿐 생명의 근원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일만 겁이 지나도 성인의 경계를 증득하지 못한다. 참 수행자는 수시로 자신의 심행(心行)과 사상, 행위를 검사하는 사람이다."

남 거사는 "더 이상 의문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배우지 않아도 되며, 망념도 사라질 수 있다"며 영명수(永明壽) 선사의 <종경록>에 기록된 '깨달음 성취의 판단기준 10가지'를 제시한다.

△완전히 견성해 대낮에 색깔을 보듯 문수보살처럼 행할 수 있는가 △사람을 만나고 상황에 대처함에 모두 밝고 뛰어나 도와 상응하는가 △조사들의 언구를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을 수 있는가 △온갖 질문에 대해 능히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가 △언제 어디서든 지혜가 막힘없이 드러나 생각생각이 모두 원만하고 어떠한 경계에도 방해받지 않는가 △일체의 순역(順逆)과 호오(好惡)의 경계를 모두 알아 타파할 수 있는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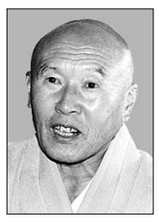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남회근 거사는

1918년 절강성 온주 낙청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유교, 불교, 도교의 주요 경전을 배우고 20대 초반에 불교에 귀의, 거사의 몸으로 사천성 아미산 대평사에서 3년간 폐관(閉關) 정진했다. 그 뒤 티베트에서 밀교를 깊이 연구하고 운남대학, 사천대학에서 강의하며 대장경과 중국 역대 전적들을 두루 섭렵했다. 1949년 대륙이 공산화되자 대만으로 이주, 보인대학 및 문화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중들을 상대로 삼교의 주요 경전들을 차례로 강의하여 황폐해지는 전통사상의 중요성과 의미를 일깨우는 데 진력하고 있다. 현재 홍콩에 거주하고 있다.

선어록·경전 함께 공부합시다

염불 참선과 함께 3대 방편문의 하나인 간경(看經)이 선과 교를 함께 닦는 선교쌍수(禪敎雙修)의 차원에서 대중화 되고 있다. 선어록과 경전을 강의하면서 실참과 생활선을 지도하는 사찰과 단체들의 공부모임들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법회도 늘어나고 있다. 경전 공부모임에서 불교를 바르게 알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1월 12~16일 저녁 7시 대학내 큰법당에서 울산 학성선원 조실 우룡(사진) 스님을 초청,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수심결(修心訣)' 대강좌를 연다. (042)624-6555



○…**공주 학림사**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금강경 오가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돈오입도요문론> 특강법회를 연다.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조실 대원(사진) 스님이 설법하며 주말 철야 참선정진도 직접 지도한다. (042)825-1724

○…**한국선문화연구원**(원장 성본스님)은 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서울 성북동 연구원 법당에서 '임제어록'을 중심으로 선어록 특강을 연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성본 스님이 설법한다. (02)765-6539

○…**서울 불심정사**(cafe.daum.net/buddhajukbi)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육조단경 강의'를 개설하고 매주 첫,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선 법문 및 문답 시간을 갖는다. 강의는 조실 청봉 스님이 맡는다. (02)534-7515

○…지난 1일 청주 세계사에서 신년 기도법회를 봉행한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0분 정진방식으로 <금강경> 5독송을 하며, 저녁 7시부터 8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2독송을 한다. (02)742-0172

○…**부산 무심선원**(www.mindfree.net)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8시30분 <완릉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5시 <원오심요> 및 <도덕경>, 매주 목요일 저녁 7~8시 <증도가>, 매주 목요일 오전 11~12시 <신심명>, 매주 금요일 저녁 7~8시 <증도가> 강좌를 연다. (051)515-7226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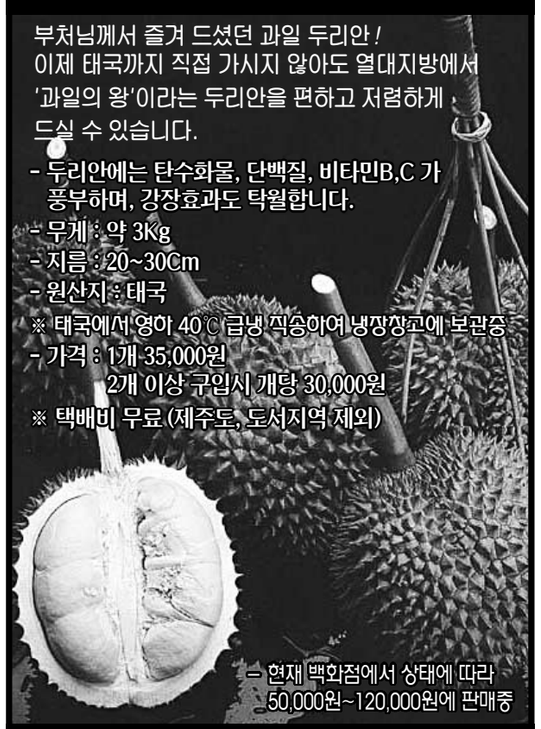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명상하면 성적 '쑥쑥'

인기상승 명상단체와 학습법



정신세계원에서 '명상학습법'을 강의하고 있는 조경현(왼쪽) 씨.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STUDY-ZEN', '학습명상' 등의 단어가 낯설지 않다. 명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행에 민감한 학생들이 명상으로 학업의 어려움을 풀어보려는 시도들이다. 이들은 학교와 수련회 등지에서 이 같은 명상법들을 수련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휴대전화 서비스까지 이용해 명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명상이 학습에 좋다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 국내에 소개된 몇몇 명상단체들의 명상학습법에 대해 알아본다.

美 성인 8명중 1명 명상 생활화

■ 초월명상(TM)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성인 8명 중 1명이, 인구로 따지면 천만 명 가량이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초월명상(TM: transcendental Meditation) 수행자들이다. 이들은 아침-저녁 하루 두 번 15~20분씩 만트라(진언)를 되뇌면서 명상에 빠진다. 이를 통해 모든 정신활동을 초월한 가장 깊은 상태 '초월의식'에 이르는 것이 이들 목표다.

휴식과 이완 담당하는 뇌파인 알파파 증가
상상할 수 없는 잠재능력 발휘할 수 있어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는 이 같은 초월명상 수행자들이 명상을 하는 동안 신체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에 비해 호흡할 때 산소를 17% 가량 덜 쓰고, 1분당 심장박동수가 3회 떨어진다. 그리고 휴식과 이완에 관련된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한다.

이 알파파는 인간의 기본 뇌파 14cps보다 낮은 상태로,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볼때 수면 상태의 뇌파다. 인류의 2~3% 천재들만이 의식상태에서 사용한다는 이 뇌파상태에 접어들면 상상 이상의 잠재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마하리쉬 초월명상센터 이윤근 원장은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는 영국 내 마하리쉬 학교는 이튼이나 웨스트미니스터 등의 명문학교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한다.

뇌가소성 증가…두뇌·인성 계발

■ 뇌호흡

명상으로 학습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뇌호흡 수련에서도 보인다. 한국뇌과학연구원 우종무 씨는 "뇌호흡은 다양한 신체동작, 명상 등을 통해 뇌파의 안정된 알파파 상태를 유도하고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며 "뇌호흡 프로그램은 안정되고 건강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뇌의 망을 형성시킴으로써 뇌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뇌호흡 유치원 조태임 원장은 "뇌감각 깨우기, 뇌 유연하게 하기, 뇌 정화하기, 뇌 통합하기, 뇌 주인되기 등 뇌호흡 각각의 단계 근본은 명상"이라며 "명상을 위한 준비체조로 학습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명상을 통해 개념을 이미지화하는 가운데 두뇌·인성계발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대표 양궁선수들 집중 훈련

■ 마인드컨트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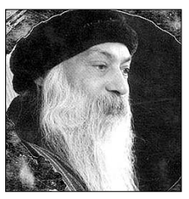
마인드컨트롤 역시 같은 원리다. 미국의 호세 실바 박사는 22년의 연구 끝에 '실바 마인드컨트롤'이라는 정신력 개발 시스템을 고안해 냈다. 알파 뇌파의 명상의식 상태에서 인간의 두뇌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대표 양궁선수들의 명상법으로 잘 알려진 마인드컨트롤은 신체를 이완시킨 가운데 명상에 몰입, 상상력을 통해 사물의 이미지 조절을 반복하며 사물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마인드컨트롤 과정을 이수하고 정신세계원에서 명상학습법을 강의하고 있는 조경현 씨는 "비교적 간단한 지도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참선과 호흡법 등을 결합한다면 명상학습과 관련해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피라밋 명상원서 대규모 오쇼 축제



오쇼 라즈니쉬 명상의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펼쳐진다.

한국오쇼협회(OSKA:Osho Sannyas Korean Association)는 인도의 대표적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가 '깨달은 날(사마디)'을 맞이해 이달 17~18일 강원도 원주 피라밋 명상원에서 대규모 명상축제를 연다. 오쇼 국제재단 한국지부, 오사모(명상나라내 '오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니케타나 명상센터, 오쇼 명상클럽 등 오쇼 관련 10여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쇼 관련 단체 및 개인간 친목도모를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비롯, 8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오쇼 열풍'과 한국의 명상문화를 진단·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마련된다.

특히 18일 심포지엄에서는 명상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5개의 주제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김진묵(음악평론가)의 <오쇼와 뉴에이지 문화>, 길연(테라피스트)의 <오쇼명상과 테라피>, 회광(회광공 연구회 대표)의 <오쇼와 인터넷 문화>를 비롯, 손민규(명상나라 대표)의 <오쇼관련 출판문화>, 최항식(전 니케타나 센터 원장)의 <현실 속에서의 삶과 명상>등을 주제로 2시간동안 토론 및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오쇼협회 윤구용씨는 "이번 행사는 한동안 주춤했던 오쇼명상을 실생활에서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참가비 5만원(1박3식). (031)765-9774

사띠아난다 요가과정 개설

정신세계원은 1월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12회 과정으로 '사띠아난다 요가 과정'을 연다. 강의는 요가니드라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요가 수행법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도강사는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 아쉬람에서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최근 장흥에서 싸띠아난다 한국요가센터를 개설한 스와미 싸띠아미뜨라. 참가비는 회원 18만원(비회원 19만 2천원) (02)747-7033

선무도 화랑 겨울수련회

경주 골굴사는 2월까지 수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무도 화랑 겨울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선무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선과 명상, 선체조, 선기공, 선무술, 활쏘기 등 선무도 수련과 한국전통무용, 다도 교육도 실시된다. (02) 734-8179

필라테스 기본교육 세미나

필라테스협회는 2월 6~9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서울 포이동 밀물아트센터에서 필라테스 기본교육 세미나를 연다. 국제 필라테스협회와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필라테스(인도 요가와 서양스트레칭의 결합) 역사와 철학 소개 등의 기본 이론 교육을 비롯, 호흡법과 자세 등의 실습교육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4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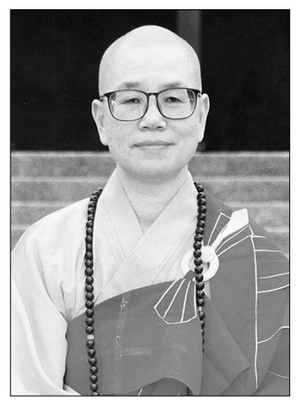
042-828-6969) caremedi.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이 스님 (上)

불광대사전 펴낸 주역

대만의 불광대사전을 편찬한 주역인 자이(慈怡) 스님이 불문에 인연을 맺은 것은 조모의 덕택이었다. 타이쫑 왕전(王田)이란 곳에 선왕사(善王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조모는 늘 가장 총애하는 맏손녀인 자이 스님을 데리고 절에 갔다. 스님의 기억에 의하면 5, 6세 되던 그 무렵에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가면 한쪽에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하고는 할머니는 예불드리곤 했다.



우연히 접한 책 한권이 운명 바꿔
불교 알고 싶어 절에 갔다가 출가

자이 스님은 1943년 생으로 속성이 양(楊)씨이고 타이쫑 오일향(烏日鄕)에서 태어났다. 증조부, 조부 그리고 부친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모두 문사(文士) 집안이어서 딸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다. 덕분에 스님도 그 시절에는 드물게 타이쫑에서 여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 스님은 뛰어난 성적과 용모 등으로 공로국(公路局; 도로공사)에 선발되어 요즘의 스튜어디스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창의 나이에 남부러울 것 없이 청춘을 구가하던 자이 스님은 우연히 접하게 된 책 한 권에 의해 운명이 바뀌게 된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던 자이 스님에게 한 친구가 <석가모니불전>이라는 책을 빌려주었다. 너무 재미있게 읽은 자이 스님은 저자인 성운 대사가 옛날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친구에게서 그 성운 대사가 타이쫑 신제당(愼齊堂)이라는 곳에 와서 <관세음보살보문품>을 강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이 스님은 몇 명의 친구들과 그곳에 갔는데 법문을 듣기 위해서라기 보다 저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였다.

그러나 성운 대사를 처음 본 순간 자상하고 장엄한 모습에 감동된 데다 대사가 직접 <십대제자전>과 <옥림국사(玉琳國師)> 등의 책이 있으니 더 읽어보라고 일러주었고, 그 후에 순간(旬刊)잡지인 <각세(覺世)>도 보내주었다. 이러한 일이 계기가 되어 혼자서 열심히 불교공부를 했으나 알 듯 모를 듯 지적 욕구만 더 강렬하게 일어났다.

그러던 차에 <각세>에서 홍콩 동련대학(東蓮大學)이 불교를 공부할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즉시 서신으로 신청서를 냈다. 입학 허가서는 곧바로 보내져 왔고 자이 스님은 마음이 들떠 있었으나, 당시에는 출가자에 한해서 출국허가를 내어준다는 규정이 있어 재가자인 자이 스님은 허가를 얻지 못했다. 낙심한 자이 스님이 이를 성운 대사에게 알렸더니 성운 대사는 당신이 지금 수산사(壽山寺)라는 절을 짓고 있으니 공부가 하고 싶으면 수산사불학원에 와서 공부해도 좋다고 했다.

자이 스님에 의하면 그 당시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무조건 수산사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선포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절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출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결사 반대를 했고 스님은 할 수 없이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수산사로 갔다.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가족들이 모두 수산사로 찾아가 스님을 잡아오려 했으나, 가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스님은 뒷문으로 도망해 수산공원 안에 숨어버렸다.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부친이 경찰을 대동해 잡으러오기까지 했지만, 진리를 향한 소녀의 불같은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수산사불학원이 온갖 어려움 끝에 마침내 개원했을 때 스님은 더욱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다. 삭발하는 그 순간 자이 스님은 반야의 지혜로 들어가는 통행증을 얻은 셈이라 느꼈고, 성운 대사를 은사로 출가한 수산사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법호를 의명(依明)으로 하고 내호를 심의(心儀)라고 했다. 자이는 귀의법명이다. (계속)

김재경 기자

능인선원에서 행자님을 모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스님들 모십니다"

●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머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새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머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기대합니다.
소정의 수행기간이 끝난 후 자신의 원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시거나 대학원등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포교를 원하시거나 외국진출에 뜻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이미 스님이 되신 분들 가운데도 포교를 원하시거나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모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가운데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능력과 원력에 따라서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의 지원 바랍니다.

▶『행 자』
– 자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스 님』
– 대학원에 진학코자 하시는 분
– 승적증명서 입방원서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문의 : 577-5800 교 202 • e-mail : neungin@chollian.net
H·P : 011-302-8435, 011-249-3378, 011-898-4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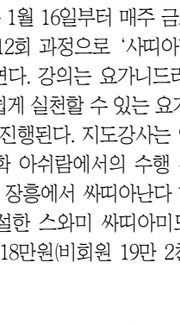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삐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조끼·몸배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8. 셔 츠 ₩6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 지 ₩7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30,000 ~ ₩35,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권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제3회 전국 불교만화공모전

최고상 ★문화부장관상★ 에 도전하세요

★ 총 2,000만원 고료!
★ 2004년 1월 31일까지
★ 누구나 참여가능!!

분 야
애니메이션, 인쇄만화, 캐릭터 및 기타
(편수제한없음/컴퓨터 제작품은 CD와 프린트물 제출)

접수처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2번지 9통 11반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
불교만화공모전 담당자 앞

문의전화
(서울) 02-3392-0334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www.okbuddha.com





한영 스님(1870~1948): 전북 완주 生. 위봉사에서 금산 스님에게 출가. 만해 스님과 불교유신운동전개. 개운사 대원암 강원설립해 20년 강의한 근대 대표적 강백.

네티즌 교리문답

'귀의(歸依)'는 그냥 의지하는 것?

문 귀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불교에서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을 하는데 '귀의'의 뜻이 막연히 의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붓다뉴스 ID '신입생')

답 1 : 귀의'는 믿고 따른다는 뜻의 불교 용어입니다. '귀명(歸命)'이라고도 합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귀순하여 의지하는 것으로, 훌륭한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삼귀의(三歸依)로 표현되는데, 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승단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ID '김성우')

답 2 : '귀의'의 의미는 여러 경전에 나오는데요, 특히 <화엄경>에 "스스로 부처에게 귀의하니 마땅히 모든 중생은 진리를 깨달아 보리심을 낼 것이다(歸依佛), 스스로 바른 법에 귀의하니 마땅히 모든 중생이 진리의 창고에 들어 지혜가 바다같이 넓어질 것이다(歸依法), 스스로 승가에 귀의하니 마땅히 모든 중생은 화합하고 대중을 감싸안아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질 것이다(歸依僧)"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ID '숭죽')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㉖

견성성불(見性成佛)-13

분별심·아집을 철저히 부수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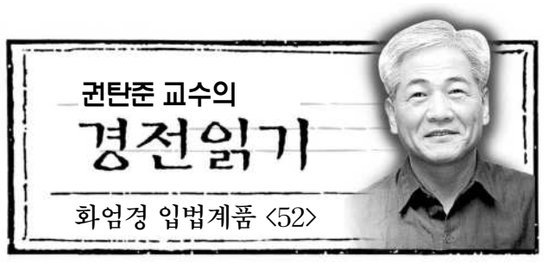
견성이란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죽이고 연기적인 존재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다. 개별자로서의 자신을 죽인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한다는 비유를 소개하였다. 부처와 나 사이의 분별을 포함한 모든 분별의 원천은 개별자로서의 자아(自我) 의식이니,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온갖 분별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교의 박성배 교수가 또 다른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한 것이 있다(<깨침과 깨달음>(예문서원)). 불교의 깨달음을 일컬어 중국에서는 '오(悟)'라든가 '각(覺)'이라는 말을 쓰고 특히 선종에서는 '견성'이라고 하는데, 한국 선찰(禪刹)에서는 깨친다는 말을 쓴다. 깨친다는 말은 깬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깬다는 말은 우선 부순다는 뜻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뜻도 있다. 잠에서 깬다거나 술에 취했다가 깬다거나 알에서 깨어난다거나 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이 두 번째 뜻도 우선은 무엇을 부수어 버린다, 기존의 상태가 깨져 버린다는 뜻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불교에서 궁극적인 종교체험에 대해서 '깨친다'는 말을 쓰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가 부수어지는 체험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어지는 것, 깨지는 것은 한 마디로 분별심(分別心)과 아집(我執)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이야기이다. 그것을 박교수는 공안(公案) 타파(打破), 즉 공안을 깨는 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나가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는 접어두기로 한다. 아무튼 요지는, 중생이 부처라는 가르침, 달리 말하자면 바로 내가 부처라는 가르침을 도저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별심과 그 분별심을 낳는 아집 때문이고, 그것이 철저하게 부수어져야만 비로소 부처님으로서의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이다.

중생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면서도 아집과 분별심을 지닌 중생으로서의 자아를 철저히 부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좀 아리송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중생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교리와 본각(本覺) 개념을 그렇게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흔히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중생으로서의 자아를 부수는 것을 비롯해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비로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한편 중생이 엄연히 중생으로 살고 있지 부처님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생이 그야말로 그대로 부처일 수는 없고 뭔가 일이 벌어져야만 부처가 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것은 선의 교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라고 할 만한 문제이다.

사실 이에 대한 견해에 따라 선종 안에서도 종파가 갈렸을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른바 임제종(臨濟宗)과 조동종(曹洞宗)이 그것이다. 임제종 전통에서는 간화선(看話禪)을 개발하고 공안타파라는 '시각(始覺)'의 사건을 강조했고, 한편으로 조동종에서는 모든 작위적인 수행을 부인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해서 '본각(本覺)' 쪽을 강조하였다. 아무튼 양쪽 모두 그 근본적인 딜레마를 붙들고 씨름해왔다. 그 이야기는 다음 회의 글에서 더 잇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희목관찰중생 주야신의 법문

십바라밀로 중생 이롭게 하는 길 밝혀

인욕·자비 행하며 기쁜 눈으로 관찰

선재동자는 보덕정광 주야신으로부터 마가다국 보리도량의 오른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희목관찰중생(喜目觀察衆生) 주야신을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선재동자는 선지식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만나보게 되면 한없는 공덕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선지식을 친근하여 힘차게 정진 수행해서 불도를 성취하려는 생각을 내었다.

선재동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희목관찰중생 주야신에게 나아가니 그 신은 여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함을 표방하는 해탈(大勢力普喜幢解脫)'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희목관찰 주야신은 그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한량없는 몸구름을 나타내게 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묘한 음성으로 법을 말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를테면 한량없는 몸구름을 나타내어 보살의 열(十) 바라밀과 한량없는 종류의 중생 세계의 모습 등을 보이었다. 이것은 바로 경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함을 표방하는 해탈'을 구체적으로 설한 것으로서, 하나 하나가 모두 보살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십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는 법을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희목관찰중생 주야신의 법문은 보살이 십바라밀로써 중생을 섭화해서 그들을 성숙케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잠깐씩 시방으로 각각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 국토들을 깨끗하게 하며, 한량없는 악도의 중생을 제도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인간과 천상에 나서 부귀하고 자재하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머물게 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여래의 지위에 머물게 하였다.

주야신의 하나 하나의 털구멍에서 무량한 변화신운과 십바라밀 등을 나타내 보인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닦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희목관찰중생주야신이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함을 표방하는 해탈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불도수행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어 중생들이 윤회하는 삼계에 속박되지 않게 되어 세간 속에 처할 때에 항상 인욕행과 자비행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야신은 비로소 일체의 선악 중생에 대해서 늘 환희하면서 싫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주야신의 명칭이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는 밤을 주관하는 신(희목관찰중생주야신)'인 것도 삼계의 오염된 세계와 청정한 세계의 어디에도 걸림이 없게 되어 선악의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싫어해서 버리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보살행을 수행하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선재동자는 위의 모든 희유한 일을 보고 듣고는 생각생각에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깊이 들어가 편안하게 머물렀으며, 부처님의 위신의 힘과 해탈의 힘을 받잡고, 보살의 부사의한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함을 표방하는 당기의 자재한 힘을 내는 해탈을 얻게 되었다.

선재동자는 주야신이 펼쳐 보이는 훌륭한 경계에 깊이 공감하여 자신도 세간 속에 머무르며 인욕행과 자비행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일체의 선악 중생을 항상 기쁜 눈으로 관찰하면서 교화하여 성숙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어떻게 해서 주야신이 나타낸 여러가지 희유한 일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써 주야신이 갖추고 있는 해탈을 터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경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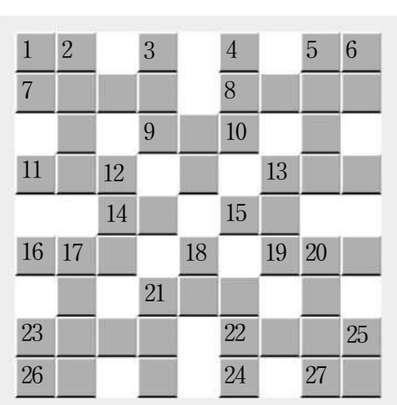
"무슨 까닭인가.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는 밤 맡는 신'과 더불어 옛날에 함께 수행한 연고며, 여래의 신통한 힘으로 가피한 연고며, 부사의한 선근으로 도와주는 연고며, 보살의 모든 근성을 얻은 연고며, 선지식의 힘으로 거두어 주는 연고며, 저러한 선근이 이미 성숙한 연고며, 보현보살의 행을 닦을 만한 연고이니라."

경문에서는 이어서 주야신의 오랜 과거 세상의 본생을 설하고 있다.

희목관찰중생 주야신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을 기뻐하고 진정으로 보살의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아득한 과거의 생애로부터 불법과 인연을 맺어 오면서 부처님의 신력의 가피를 입고 선지식의 지도를 받으면서 선근 공덕을 쌓아온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온전한 덕행인 보현행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생활은 이러한 신념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부처님 신력의 가피와 선지식의 지도에 의해 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가던 그 거룩한 옛길을 금생에서 또 다시 걸어간다고 하는 신념이 선재동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함을 표방하는 해탈'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부처의 성품 5. 복족류에 속하며 한자어로 복(鰒)이라고도 함 7. 편도에 생기는 염증 8. 온갖 고생과 시련을 겪어 경험이 많음 9.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11.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의 약칭(大日經) 13. 간결한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14. 조상으 위해 지내는 제례 15. 남을 타일러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 16. 유비, 관우, 장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중국 소설 19. 수행자들의 스승을 이르는 말 21. 볏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일 23.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자연 24. 그림 그리는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 26. 끝없는 세월 27. 바람이 통하도록 아래에 구멍을 낸 작은 화로.

세로 1. 편하지 않음 2.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 음력 12월 8일 3. 병원체가 생물체에 정착하여 증식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증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4. 물건값의 청구서 5. 모두가 찬성하여 가결함 6. 복덕을 생산하며 행복을 키우는 마음의 밭이라는 뜻 10. 사후에 받는 복덕 12. 매일경제 등 경제 전문 일간 신문 13. 화두를 근거로 공부하는 선풍 17.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정무직 공무원 18. 항공기의 안 20. 사대.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우리의 육신 등 일체 물질의 원소가 이 4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21. 절에 재물을 기부하도록 권하는 글 22. 서력 기원의 이전을 뜻함 23. 그림자가 없음 25. 아래위 방향에 대해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

기자 출신 노신사와 실크로드를 걸어보자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1099일에 걸쳐 도보로만 여행한 베르나르의 답사기는 일종의 '구도기'에 가깝다.

'나는 걷는다 1·2·3'

베르나르 올리비에 지음 / 임수현 옮김

효형출판 / 각권 9천8백원

책속의 밑줄긋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동방법인 걷기는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규격화된 문명과 온실속 문화에는 이제 싫증이 난다. 내 박물관은 길들과 거기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고, 마을의 광장이며, 모르는 사람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마시는 수프인 것이다."

▷"'이렇게나 먼 곳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다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굴복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가야만 했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가야 하니까."

▷"매 걸음을 옮기면서 그동안 내 자신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걷는 동안 내가 소유한 이것 이외에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발견했다."

1999년 한기(寒氣)가 아직 남아 있는 봄, 30년간의 기자 생활을 끝낸 프랑스 노 신사가 배낭을 꾸려 혼자 도보여행을 떠났다. 국내가 아닌 터키의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중국 시안(西安)에 이르는 1만 2000㎞의 대장정이었다. 총 3차례에 걸쳐 4년 동안 만행하듯이 여행을 끝낸 그는 돌아와 해박한 식견을 섞은 여행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 놓았다.

이 책 <나는 걷는다>는 몇년전 우리나라를 방문해 남산 순환도로를 걷기도 했던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쓴 <나는 달린다>와 비슷한 제목이지만 스케일에서는 비교가 안될만큼 방대하다. 1권은 터키를 횡단해서 이란 국경에 이르기까지, 2권은 이란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까지, 3권은 마침내 중국의 시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세 권을 합쳐 모두 13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분량도 분량이지만,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에 이르는 머나먼 길을 1099일에 걸쳐 혼자 걸어간 기록이라는 점에서 여행기라기 보다는 일종의 수행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이 책의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65)는 30여년 동안 '르피가로' '파리마치' 등 프랑스의 유력 신문과 잡지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부를 두루 거친 퇴직 기자이다. 현역 기자 생활을 청산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TV와 소파가 있는 안락한 여가를 누리는 대신 오래 전부터 꿈꿔온 원대하고 황당하기까지한 돈키호테식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그것은 실크로드를 걸어서 여행하는 일이었다.

실크로드는 700여 년 전 마르코 폴로가 서양에 동양의 존재를 알린 이후 두 세계 간에 무역과 문화의 통로가 되었던 길이다. 대상들이 낙타를 끌고 행군했던 그 신비로운 미지의 길을 여행하면서 저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걸어서 갈 것, 서두르지 말고 느리게 갈 것 이라는 대원칙을 세운다. 이처럼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발로 체험한 실크로드 여행을 기록한 것이다. 저자는 생생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으며, 다양한 시선으로 실크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에 대해 간결하게 써냈다.

> "어떤 일이 있어도 서두르지 말고 걸어서 느리게 갈 것 … 홀로 걷다보면 근본적인 것에 닿아"

기자 출신답게 꼼꼼히 실크로드를 추적한 그의 글은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선다. 그래서 진시황, 알렉산더, 티무르, 칭기즈칸 등 역사 인물이 책 속에 되살아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글의 곳곳에서 느껴진다. 그는 "걷는 여행을 통해서만 문화의 속살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떠난 것은 아니었다. 첫 목적지는 성 바울로의 유해가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델라였다. 그는 파리에서 스페인 목적지까지 2325Km에 달하는 길을 걷고 끝없는 희열을 느꼈다. 도보순례의 매력에 흠뻑 빠진 그는 방향을 신비의 실크로드로 바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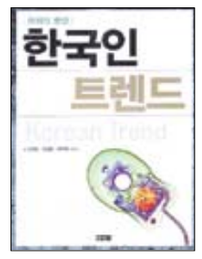
걷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는 완벽한 희열을 맛본다. 하루종일 걷다 보면 모든 게 단순해 지는 법. 그것도 3년을 이어갔으니 그 단순의 정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불필요한 짐은 물론 쓸데없는 잡념도 사라지고, 오직 자신이 그날 경험한 것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다. 물질의 무거움에서 해방된 뜨거운 몸은 밀밭과 경작지 위에서 날개를 달았다. 걷기에의 몰입은 무신론자였던 자신의 세계관까지 바꿨다. 어떤 종교든 신도들이 순례에 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은 그래서 나왔다. 홀로 발걸음을 옮기며 잠긴 생각으로 근본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책을 읽을 수록 평화통일 도보순례 등 우리국토의 방방곡곡을 행선(行禪) 수행하신 천축사 무문관 출신 원공 스님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된다.

모든 여행이 다 그렇겠지만 도보 여행처럼 많은 사람을 짧지게 만나는 경우가 또 있을까.

책은 머리로 세상을 배우지만, 여행은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깨닫게 한다는 진리가 책 속 구석구석에 녹아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한국인 트렌드…'

김경훈 등 지음

책바치 / 1만8천원

2000년대에 들어 무수히 쏟아져 나왔던 사회 변화의 설명서들은 세계화나 정보화가 초래하는 거시적 담론에만 집중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변화'는 간과하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나 <한국인 트렌드-변화의 물결>는 한국 사회에 닥치고 있는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 제시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중인 미시적 변화까지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는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렌드 분석가인 김경훈(38 · 자유기고가) 씨 등 저자는 이 책에서 서구의 거대담론을 다루는 미래학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감식안으로 우리 사회를 전망하고 분석한다.

그가 말하는 한국인의 변화추세는 크게 세갈래. 1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형도를 바꿀 새로운 흐름들'을 통해 도전적인 미래상 6가지를 살핀다. 그 중 한가지는 생산 · 소비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능동적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두 손 문화' 다. 컴퓨터의 클릭기능이 수동적인 '한 손 문화'라면 상품 구매리뷰 등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키보드를 두들기는 행위는 '두 손 문화'다. DIY(Do It Yourself: 네 손으로 해라)산업도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25년만에 DIY산업이 3백배나 성장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굴레없는 관계 맺기를 지향하는 '임의 접속의 문화'. 1인당 평균 7개의 인터넷카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아날로그식 인맥이나 붙박이식 삶은 점점 퇴조하고 있다. 상품 또한 소유보다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10년만에 다시 쓴 한국 미래

새로운 인재상 등 20가지 트렌드 제시

2부에서는 자본주의적 트렌드들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다양한 경험과 여러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새로운 인재상 '멀티태스커'. 한우물만 파는 프로페셔널에 이어 프로랜서, e랜서 등이 각광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분야의 전문가이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준 전문가의 재능과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원한 젊음을 꿈꾸는 '네버랜드 러시'도 눈길을 끈다. 네버랜드는 '피터팬'에 나오는 신비한 섬. 거기서는 아무도 나이를 먹지 않는다.

3부에서는 '사회 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질서 찾기'. 일생에 걸쳐 단 한번의 1등으로 승자독식의 이익을 꿈꾸는 할리우드식 1등주의, 돌발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나타나는 충동조절 장애 신드롬, 내부자 커뮤니티의 변화를 얘기하는 '체온 커뮤니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책에 담긴 20가지의 크고 작은 트렌드들은 개인의 삶과 비즈니스 현장,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인 그림과 맞닿아 있다.

1994년에 출간돼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던 <한국인 트렌드>를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첫째는 트렌드 주기가 최소 10년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흔히 한 번 내고 마는 트랜드 서적과 달리, 첫 책에 이어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흐름을 성실히 추적한 토대 위에서 향후 10년의 변화를 분석한 저자의 성실성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이창환 / 하나로통신 강원지사 팀장

<한국인 트렌드>는 제목 그대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동향까지 한국인의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한 책이다.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차량용 가정용

제조원 山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2월 12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2월 10일 출발

중국불교 4대 명산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항주 5일 850,000원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상해 5일 790,000원
▶구화산, 보타산, 황산, 영파, 상해 8일 1,150,000원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성도 5일 850,000원
※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한번 듣고 해탈하는 수행법이 있다?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

황엽 지음

도피안사 / 1만2천원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는 ‘그곳에 가면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과감히 일상을 접고 티베트로 떠난 시인 황엽 씨의 티베트 불교 체험기다.

문학잡지 <문학예술>을 발행하던 지은이는 1997년 ‘스스로를 전율케 하는 무엇인가가 내면에서 솟구치는 젊은이처럼’ 깨달음의 길을 찾아 떠났다. 중국 시닝(西寧)에서 따시 린포체를 만나 ‘1년에 40만 번의 오체투지’라는 입문과제를 통과한 후 스승으로부터 “명심하거라. 세상에 한 번만 듣고 해탈에 이르는 법은 없다. 살아 있을 때 부지런히 <바르도 퇴돌(티베트 사자의 서)>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본격적인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40년 간 동굴에서 밀실수행을 하고 있는 추잉도제 린포체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은이는 자신의 수행담과 밀법수행이란 무엇인지를 들려준다.

경운기 타고 마을로 내려온 스님



경북 봉화군 청량사 사하촌의 주말. 경운기 한 대가 마을을 지나가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른다.

“스님! 오늘은 저희 집에도 와 주세요.”

길이 멀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경운기를 몰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방문법회’와 가까운 곳에 사찰이 없어 절에 갈 수 없었던 농촌 불자들을 위해 마을 회관을 빌어 ‘출장법회’를 열고 있는 청량사 주지 지현(사진) 스님. ‘마을로 내려온 스님’이라는 애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스님의 지역 포교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최근 선보인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다 쓰러져 가던 청량사를 손수 고치고, 그 절을 농촌불자들을 위한 포교 중심도량으로 키워 온 지현 스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지현 스님 지음

세상을 여는 창 / 9천5백원



청량사의 사계절 모습과 따뜻한 주민들의 이야기

스님은 책에서 청량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과 절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 년에 딱 하루, 초파일이면 어김없이 청량사를 찾는 맹인 김 거사와 휴가 나온 손자의 등에 업혀 사찰을 찾아 온 대월심 보살, 농사가 끝나면 수확한 쌀과 배추, 무 등을 지고 와 부처님께 올리는 고계리 불자 부부 등 사하촌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또한 스님은 산사에 핀 목련꽃에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여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살아 있는 우리의 의무”임을 깨닫기도 하고, 수해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정치판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한다.

청량사를 이야기하며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산사음악회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매년 전국에서 5천여 명이 몰려들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하다. 지현 스님이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종교적 색채를 최소화시키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축제로 꾸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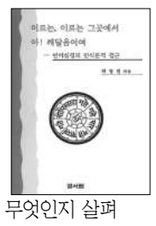
영주장애인복지관장으로, 창작 찬불가를 제작 보급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의 총재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스님이지만 산사음악회에서 지역민들과 마주 앉아 함께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노래 한 자락에 웃고 울며 화답하는 모든 청중들이 곧 부처고 보살”이라는 스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번뇌 업 고통>(정승석 지음, 민족사, 8천5백원)=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의 개정판. ‘끊임없이 발동하는 속마음 번뇌, 생사 윤회의 질긴 끈 업, 극복해야 할 삶의 진상 고통’이란 주제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밝히고 있는 지은이는 “번뇌와 업, 고통 이라는 주제는 모두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이르는, 이르는 그곳에서 아! 깨달음이여>(하영진 지음, 경서원, 9천원)= <반야심경>에 인식론적으로 접근한 책. ‘나’라는 인식자를 철학의 전면에 등장시킨 데카르트와 이를 완성시킨 칸트의 철학을 소개하고 이들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김정빈 지음, 동쪽나라, 1만8천원)=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은 세종대왕과 조조를 비롯해 에디슨, 베토벤 등 자신의 삶을 방식을 개혁하고 시대를 이끈 리더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일깨워준다.



■<아기는 뱃속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이케가와 아키라 지음, 김경옥 옮김, 샨티, 8천5백원)= 산부인과 의사인 지은이는 어린이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뱃속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책에서는 태아와 부모의 관계, 출산의 의미와 방식, 아이 키우기에 관한 지은이의 노하우가 담겨있다.

하이데거와 禪의 관계는 …

‘하이데거와 형이상학…’

김종욱 지음

철학과 현실사 / 1만2천원



“존재야 말로 사유의 근원 테마”

불교의 선(禪)을 학문적으로 가장 깊이 천착한 서양 철학자로 평가받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해석한 두 권의 책이 잇달아 선보였다. 동국대 불교학과 김종욱 교수의 <하이데거와 형이상학 그리고 불교>와 ‘목수 철학자’인 최경호 씨가 쓴 <존재에서 규명한 선>이 그것이다.

불교사상을 서양철학과 접목시켜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려는 작업을 일관되게 추구해 온 김종욱 교수의 <하이데거와 형이상학 그리고 불교>는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을 추적하면서 서양 철학의 근본 성격을 재점검해 보고, 이것이 불교 사상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탐문해 보기 위한” 책이다.

수년에 걸쳐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해 책으로 엮은 김 교수는 “존재야말로 사유의 가장 근원적인 테마이고, 이런 근원적인 사유의 사태를 서구 사상의 전체 역사 속에 집어넣어 탐문했다는 점은 하이데거 철학의 깊이와 진폭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고 말한다.

1부 ‘존재론적 차이와 형이상학’에서는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갖는 의미와 형이상학과 존재론적 차이를 밝히고 있다. 2부 ‘근대 형이상학의 비판’은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존재록적 이해와 형이상학적 주체의 형성과 해체를 다루고 있다. 3부 ‘하이데거와 불교’에서는 하이데거의 ‘무(無)’ 사상과 불교의 ‘공(空)’ 사상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핀다.

<존재에서 규명한 선>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선(禪)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후설사상의 발달> <신체의 현상학>등 4권의 철학서를 번역하고 <현상학적 지평에서 규명한 선>을 펴내기도 한 최경호 씨는 이번 책에서 ‘선에 있어서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을 체험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 존재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지은이는 “하이데거 철학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선의 경지에 들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난 2년간 출퇴근하는 지하철과 공사 현장에서 틈틈이 메모한 4천매 분량의 원고를 책으로 묶은 지은이는 “존재에 의한 사유의 과정은 선의 입장에서 조명한 존재의 사유를 진술한 것이지 하이데거의 존재의 사유를 논한 것이 아니다”며 “하이데거의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하이데거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여 적어내려고 했다”고 말한다.

1부에서는 직접체험으로서의 선체험을 기술하고, 2부에서는 선을 하나의 학문으로 다루는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과 해석학을 설명하고 있다. 3부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있어 존재의 사유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을 담고 있다.

여수령 기자

‘존재에서 규명한 선’

최경호 지음

경서원 / 3만8천원



“선 체험을 통해 존재 밝힌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틱 낫 한	장 경 각
2	산문	현진 스님	열 림 원
3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4	이거룡의 인도사원순례	이 거 룡	한 길 사
5	밥상에 도가 있다	정 세 채	모 색
6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은인연
7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8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거사	불 광
9	금강경	우룡 스님	효 림
10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전 스님	조계종출판사

도서 안내 :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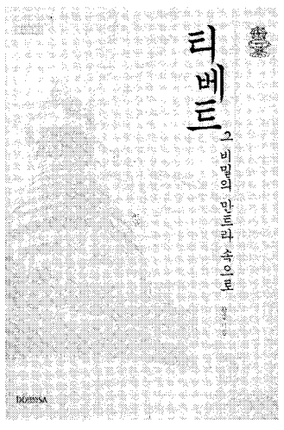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到·彼·岸·社·의·雪·域·高·原·시·리·즈

티베트 민족의 고난은
‘인류를 구하라’는 부촉

화제의 신간

나라를 잃고 망명객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도는 티베트 민족,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온갖 고통과
슬픔을 딛고 인류의 새로운 정신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원수마저 관용으로 대하면서…!
— 미국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응징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를 뿐입니다. 달라이 라마 – 9.11 테러 후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

글 · 황엽 / 신국판 / 384쪽 / 값12,000원

티베트
그 비밀의 만트라 속으로

여기 티베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 주는 고백서가 나왔다.
시인이자 월간 「문학과 예술」의 발행인이기도 했던 황엽은 6년 전 어느 날, 지금까지의 삶을 180도 바꾸어 티베트 행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스승을 찾았고, 명에 따라 40만 배(拜)의 오체투지로 입문식을 마치고 그들의 정신세계로 푹 안겼다. 이 고백서는 시인의 영감으로,
지성으로, 온 몸으로 써 내려간 티베트 정신의 현주소다. 단지 보고들은 여행기가 아닌 체험으로 직관한 티베트 사람들의 내면이다.

※ 티베트 관련 단체에서 10권 이상 구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티베트의 정신과 자연을 소개하는 책

티베트 금강경
— 까말라쉴라 광석
양승규 옮김 238쪽 · 값 9,000원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 포탈라에서 수미산까지
글 · 김규현 416쪽 · 올컬러 · 값 17,000원

지도의 공백지대를 가다
— 티베트 8만 Km
글 · 박철암 384쪽 · 올컬러 · 값 15,000원

“톡서는 깨달음의 길”의 도서출판
DOPIANSA 전화 : 031-676-8700 전송: 031-676-8704
E-mail : dopiansa@kornet.net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우수상 (현대불교신문사장상)

배장환 (서울대 3학년)

아버지 <하>



그림 · 문병성

"세상 원망스럽고 나 자신이 미웠지만 기도 끝난뒤 마음이 불국토인줄 알았죠"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생각, 아버지의 꿈이 곧 나의 생각, 꿈과도 같습니다. 제 자신 안에 항상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3시간의 정근 시간이 끝나가도록 눈에서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을 향한 부끄러움과, 바로 제 안에 있던 아버지를 이제야 찾았다는 깨달음이 저를 흐느낌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붙잡습니다.

여태껏 아버지는 능력도 없고, 술도 많이 드시고…. 안 좋게만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저 자신은 혼자서 훌륭히 컸다고만 생각할 뿐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것은 별로 없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눈 앞에 있는 탱화에 계신 한 분이 마치 아버지 같습니다. 저를 인자하게 내려다 보십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얼굴로 대중을 보시듯! 이제야 제가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아상에 빠진다는 것을 경전에서 익히 보고 들어서 알았지만, 제 자신이 그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1주일간의 수련대회가 이젠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지막 기도를 할 시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느껴집니다. '그 길었던 정근 시간들에서 과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1주일간 정근을 제대로 했는지.' 뒤숭숭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들어갑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입도 벙긋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는 생각만 납니다. 막막합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 하나 떠올려봅니다. 말(표현)을 잘 안하는 것, 얼굴에 표정이 없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처님 또한 공경하지 않는 것, 모든 일에 소극적인 것 등등…. 마음이 더욱 캄캄해져 갑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생겼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왜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했는지,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제 자신이 미워집니다.

문득 어제 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윗사람이 윗사람처럼 안보이고, 무시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환경을 비관해서 자기 자신조차 부정하기까지 이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남에게 알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에도 적극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저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내 그것들이 왜 생겨났는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저는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제 자신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면 모두 다 당연한 이치로서 겪어보지 않더라도 헤아려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도 빨리 부처님 법을 이해해서 제 문제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제 모습에서 절망감만 느껴집니다.

저는 제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슬프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에 빠지곤 했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제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 감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고등학교를 거쳐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다보니 이러한 제 자신을, 저의 감정을 잊고 살아 왔습니다.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어릴 때는 이불 속에서 지금과 같은 감정으로 자주 울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제 자신이 불쌍합니다. 너무나도 가엾습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가 왜 그리 서글피 우는지…. 뭐가 그리 원망스러운지…. 어린 시절의 저는 무슨 업보로 자기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 원망합니다. 그런 제 자신이 싫습니다.

이젠 저도 훌쩍 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미워하는 그 감정은 어린 시절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는 것보다, 제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싫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법당을 나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22년의 세월이 원망스럽고 후회가 됩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지었길래 그렇게 슬퍼했어야 하는지…. 힘들었어야 하는지…. 스님은 업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봅니다. 여태껏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며 가슴만 쥐어뜯던 제 자신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어린 시절의 제 자신도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가족이 그립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저도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도 조금 생겨납니다. 하루빨리 부처님 법을 이해해서 모든 이의 마음에 불국토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아직 말로써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좋습니다. 요즘은 좋은 것을 보면 아버지에게도 보여드리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버지와 함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집에서 홀로 떨어져 나와 살고 있지만 언젠가 아버지를 모시고 한 집에 살 생각에 제 마음은 흐뭇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上>



백유진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신나던 대학 1년 때 '폐기흉'으로 휴학 생명의 활기 찾던 중 불교학생회 가입

나는 1966년 2남 1녀중 막내로, 부산에서 태어났다. 모친께서 태몽으로 하얀 목련을 보셨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교적인 가풍이 강한 분위기였는데, 어머니는 가끔씩 가까운 산에 있는 절이나, 대처승이 주지를 맡고 있던 동네 바로 위의 절에 불공을 드리곤 하셨다. 어머니는 어느 보살님이 주지로 계시는 절에 나를 부처님 아들로 등재하였다고 하시고, 그 보살님이 진짜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절집 분위기에 어색하지 않았지만, 불교에 대한 깊은 인식은 없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연세가 지긋하셨는데, 상당한 지식인이셨다. 깡마른 몸매에 머리는 새하얗게 새셨고, 눈빛은 형형하셨다. 일제시대 때 지주집안 출신으로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월남 후 연좌제에 걸려 독서로 소일하고 계셨는데, 친구들이 찾아가면 차를 마시면서 철학이나 정치, 맑스주의, 종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곤 했다.

그분이 하루는 "마음은 저 우주 바깥으로도 나간다. 참선은 한 생각을 오롯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셨다. 당시 어렸던 나는, 명상이나 참선이 무념(無念) 무상(無想)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곳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여겼다. 그게 사실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당시에는 대학 입시가 목전이라서 경황이 없었다.

서울로 진학하여 대학 신입생으로 신나는 1학기를 보내는 도중 폐기흉이라는 병이 찾아왔다. 마르고 키가 큰 젊은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치료는 별 어렵지 않지만 재발이 자주 되는 질병이었다. 이 질병으로 나는 한 학기를 휴학하고, 낙향하였다. 우울한 젊은 나날이 지속되었다. 신경은 아주 예민해져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 일어나곤 했다.

당시 처해 있는 우울한 상황에 대한 탈출구로 독서에 매달리고 있는 와중에 불교 월간지가 배달되어 왔다. 아버지의 고향 친구 분이 발행인으로 있는 월간지였는데, 그분이 구독을 부탁하셔서 한 3년간 정기구독을 신청하셨던 것이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격조 높은 불교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다시 복학하였다. 당시 시대는 암울하였고, 늘 시위와 최루탄 가스가 대학캠퍼스를 뒤덮고 있었다. 학생운동이 절정에 달한 때였으나 맑스주의는 나의 해방구가 될 수 없었다. 학과 공부를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관념적인 철학책으로 애써 메우고 있었다. 당시 니이체나 러셀, 화이트헤드, 비트겐슈타인 등을 탐독하였고, 원서를 구해서 읽기도 하였다. 그렇게 의예과 시절이 지나갔다. 돌이켜보면 암울한 2년이었다.

예과를 마칠 때쯤 니이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읽으면서 뭔가가 쾅하고 나의 깊은 저 밑바닥을 쳤다. 생명의 활발한 기운이 꿈틀거리며 되살아났다. 자신감이 되살아났다. 우울한 니이체의 책을 읽다가 활력을 되찾은 아이러니였다. 나는 힘차게 본과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학 공부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모색했다. 어떤 동아리 활동이 좋을까를 고민하던 나는 한의학 동아리의 문을 두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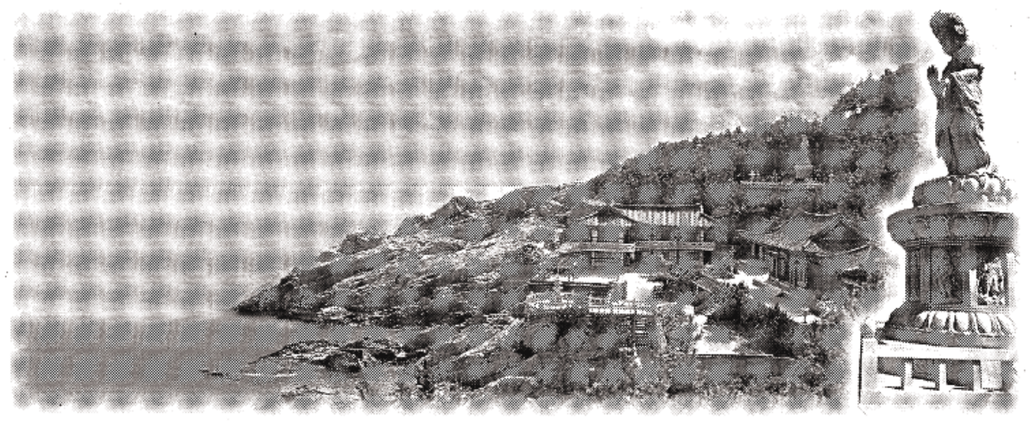
그런데 마침 한의학 동아리는 멤버가 적어서 거의 폐쇄 상태였다. 바로 옆방이 불교 학생회 동아리 방이어서 잠시 들렀다가 딱 걸려들어 버렸다. 그것이 바로 인연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불교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계속)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송이 송이 내리는 눈이 딴곳으로 안떨어지듯 한번도 자신이 우주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체를 버려서 무에 들었거던 다시 일체를 끌어 안아 자연이 되라. 나 없는 자리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천문을 열며,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자리를 찾으면 묘정봉에 오른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 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4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



경전을 통해 본 붓다

흔히 불교를 기도와 신앙을 강조하는 유일신교와 구별하여 자력(自力) 종교라고 한다. 초기 불교의 불타관(佛陀觀)을 살펴보면 붓다는 기도의 대상이나 의존의 대상이 아니다. 붓다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는 이른바 전능한 구제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 담마파다(Dhammapada)에서 "자기 자신이야 말로 자신의 구세주이지,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겠는가?"라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그럼 과연 붓다는 우리 중생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붓다는 중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당신의 역할을 "길을 가르쳐 주는 길잡이"로 밝히고 있다. 붓다는 고통에서 벗어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붓다가 남겨놓은 약도를 가지고 열반이라는 보물섬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음의 경전은 전하고 있다.

중부 니카야의 가나카 목갈라아나 경전(Ganakamoggallana-Sutta)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자.

이교도인 가나카 목갈라아나(Ganaka Moggallana)는 붓다께 여쭈었다. "붓다는 모든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모두들 구경의 지혜를 얻어 반드시 열반을 얻게 됩니까?" 목갈라아나의 질문에는 붓다의 교화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 붓다가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제자들을 모두 열반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힐난이다. 붓다는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얻지는 못하여 혹 얻는 자도 있고, 혹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 라고 대답한다.

붓다의 대답에 목갈라아나는 만족해 하며 붓다가 무능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냐고 다시 묻는다.

붓다는 반문한다. "그대는 왕사성이 어디에 있는 지를 알고, 또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나는 왕사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왕사성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내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여기서 이 길을 따라 가면 어느 마을에 이르고, 그 어느 마을에서 더 가면 어느 읍에 이를 것이니, 이렇게 계속 가면 왕사성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네 말을 듣고 가르쳐 준 길을 따라가다가 얼마 안 가서 곧 바른 길을 버리고 나쁜 길에 헤맬 경우 그는 왕사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왕사성에 가는 길을 묻는다면 너는 앞서 지시한 것처럼 정확하게 가르쳐줄 것이다. 이 사람은 그대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지시한대로 걸어가면 왕사성에 도달할 것이다. 목갈라아나여!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왕사성에 이르지 못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왕사성에 도착하였다. 그대는 길잡이로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었다. 누구에게 허물이 있는가?"

"저에게는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제가 왕사성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첫째 사람은 제가 가르쳐 준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붓다는 다음과 같이 당신과 제자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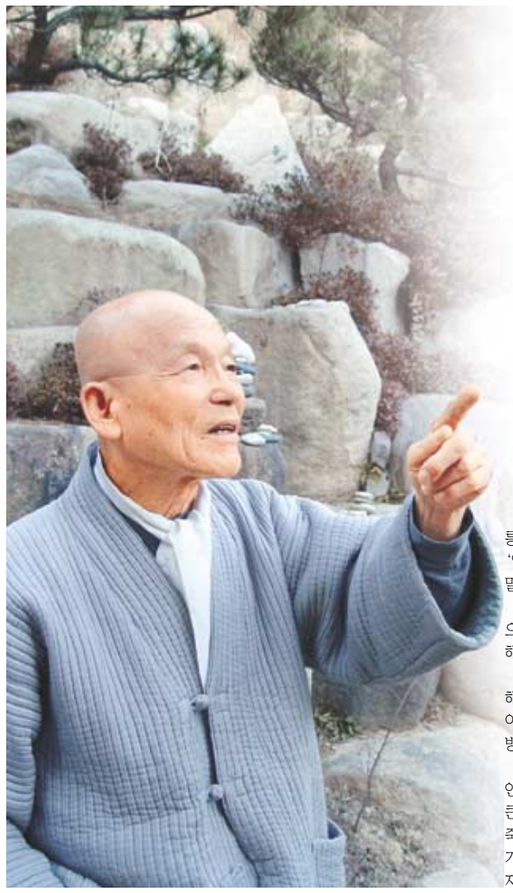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나도 또한 제자들의 열반 성취에 책임이 없다. 내가 길잡이가 되어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지만, 혹은 구경의 열반을 얻기도 하고 혹은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것은 단지 각자 정진하는 수행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나는 단지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붓다는 당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단지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할 뿐이므로 제자들은 정확하게 붓다의 지시를 이해하고 받들어 실천해야 한다. 길은 각자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붓다가 중생을 짊어지고 열반이라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쁜 꿈에 시달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을 깨우는 것이다. 아기의 꿈속으로 들어가 괴물을 퇴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붓다는 무지의 잠에서 꿈에 집착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깨어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꿈을 꾸며 꿈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실재로 여긴다. 꿈속에서 울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깨어나면 꿈속에서의 일들은 모두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날 것을 가르치는 붓다는 우리의 꿈속까지 들어와 악마를 퇴치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자기 자신이야 말로 구원자 나는 단지 길을 가르쳐 줄 뿐"



앞산을 가리키며 "새해에도 산처럼 변함없이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라"고 당부하는 송암 스님.

"자기가 주인이 되면 순간 순간이 새해"

지상 백고좌

송암스님

(죽림정사 주지)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 놓으면 곧 자유로워

"얼굴이나 보고 가. 그리고 차나 한잔 해."

불현듯 2년 전 스님을 처음 뵈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법문을 청하자 '문무왕릉 앞바다의 파도나 보고, 감은사지탑에 부는 바람소리를 듣고 가라' 던 말씀이 '얼굴이나 보고 가라' 는 말씀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2년 전의 시공(時空)이 확 밀려옴을 느꼈다.

차관과 찻잔을 챙긴 뒤 이어 송화가루로 된 다식까지 곁들여 접시에 담아 놓으며 "차나 한잔하고 가"라며 차를 권하는 스님께 새해를 맞은 마음가짐에 대해 여쭈었다.

"사람들이 새해라고 해돋이를 본다고 바닷가에 몰려들거든. 새해는 무슨 새해야? 만날 뜨는 그 해인데. 천년 전부터 뜨던 그 해야. 가만히 있으면 해가 찾아오는데, 사방 찾아다니고 그래. 다 부질없는 일이지. 참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질문과 함께 스님의 '이야기 보따리' 가 풀리기 시작했다. "노스님(은사스님인 경봉 스님을 말한다) 모시고 극락암에 있을 때, 32살 먹은 젊은 부인이 와서 큰스님을 꼭 뵈어야겠다고 해.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내년에 죽을 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올상이야. 그래서 내가 '내가 볼 때도 죽겠다' 고 했더니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또 물었지.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어디 가서 물어 봤더니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살고 싶나?' 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울면서 애원을 하는 거야. 사는 방법이 있다. 내 말만 들으면 꼭 산다. 그 빌어먹을 죽는다는 생각만 놔 버려라. 그 생각만 없애면 살고, 그냥 있으면 죽는다. 집안 살림살이 잘 사고 애들이나 잘 보살피면 되지 공연히 돌아다니면서 돈 허비하고 죽을 병 얻고 다니느냐고 호통을 쳤지. 그러고 가더니 몇 년을 두고 스님 법회에 다니면서 안 죽어. 허허허."

일체를 놓아라. 스님의 방하착(放下着)에 대한 가르침은 편하고 수월한 삶의 길을 열어 보인다. 삼재기도를 해 달라는 불자에게는 '삼재를 내놓으면 없애주겠다' 고 해서 돌려보내고, 이사가는 날을 택 해달라고 하면 '날씨 좋고, 일손 많은 날로 하라' 고 충고한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곧바로 자유롭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스님의 법문은 이처럼 '불교는 이래서 좋다' 거나 '이래서 불교를 믿어야 한다' 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만한 삶의 지혜를 들려줄 뿐이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술술 풀려 나온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순간 순간이 새해"라고 진정한 새해 맞이를 당부한 스님은 편협된 종교관도 놓아버릴 것을 당부했다. "사람이 나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종교가 생긴 거야. 종교가 있고 사람 있는 것인데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맹신, 광신하는 이들이 많아. 심지어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자기들만 천국에 올라간다는 얘길 하는 이들도 있잖아? 얼마나 욕심이 두꺼웠으면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자기들만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얘길 하느냐 말이야. 제자리를 모르니까 그래. 몇 미터 꼭대기가 하늘 꼭대기야? 지금 앉아 있는 여기가 하늘꼭대기야. 이 자리가 극락이고 이 자리가 천당인 줄 알아야 해. 며칠 전에도 몇사람이 찾아왔는데 한사람이 여기에 안 들어와. 천주교인이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

금강불교대학 2548년(2004)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과과정	지역 (기수)	교육년한	교 과 목	교 육 일 시	지 원 자 격	특 전
불교학과	초급과정	1 년	신행입문, 원시불교, 불교학개론, 불전이해, 불교경전개설	매주 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중급반 진학 자격취득
	중급과정 (서울21기, 부산16기)	1 년	한국불교사, 법화경요해, 대승불교사상, 천태지관	매주 화요일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11기) 부산(11기)	1 년	정토사상, 유마경, 금강경, 포교방법론, 화엄학, 비교종교, 밀교사상, 천태종학, 열반경	매주 수, 목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① 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 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종단내 교법사 선발

학과	모집정원		제 출 서 류	면 접 일 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전형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 부산 각 120명	초급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명함판사진 4매(원서용포함)	*서울 : 2004년 2월 26일오후 6시 *부산 : 2004년 3월 1일오후 6시	가. 기 간 : 2003년 11월 20일 ~ 2004년 2월 16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원서료 :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2004년3월6일 오후 2시 *부산:2004년3월7일 오전 11시
		중급과정	가. 중급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2매	서류전형				
교법사과정	서울 · 부산 각 50명	가. 교법사과정 지원서 1부 나. 사진 1매		*서울 : 2004년 2월 27일 오후 6시 *부산 : 2004년 3월 2일 오후 6시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장충식-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이봉춘-동국대교수 조용길-동국대교수
박경준-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권탄준-금강대교수 지창규-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허경구-동국대교수 김승일-국민대교수 이동우-동국대교수 최기표-동국대교수 정성준-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오지연-동국대교수 김은희-동국대교수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룡사 02-336-2052 봉천동명락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삼룡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분당 대광사 031-715-3000 인천연화사 032-873-0747
수원용광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화성사 031-745-1482 구리금성사 031-563-9364
평택법장사 031-655-9090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울산정광사 052-277-7100 마산삼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부산 금강불교대학

◆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가

주인 되면 순간 순간이 새해”

지금 이 순간 충실하면 만물에 깃든 불법 알게 돼 “불교는 내가 부처되는 공부”



불자들에게 늘 일상사를 소재로 선(禪) 법문을 하는 송암 스님(왼쪽). 차 마시는 일도 법문의 연장이다.

로 나잖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나 빼면 뭐가 있어? 나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게 있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제일 중요하면 내 부모 형제 자식이 중요해. 내 부모, 내 형제, 내 처자가 중요하면 상대방 부모 형제도 중요하잖아. 그걸 알아야 해. 얼마나 속이 좁으면 옆집 어른 보고도 인사를 안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냐 말이야. 내 스승 중요하면 남의 스승 중요한 것도 알아야 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것, 내 생각, 내 종교만 중요한 줄 알면 대나무통으로 하늘 쳐다보는 격이야. 대통으로 하늘을 보면 밤새 쳐다봐도 별 하나밖에 못 봐. 그 거추장스러운 아집을 다 버리고 그냥 보면 온 하늘이 보이는데도 말야.”

스님은 사람들이 법문을 듣겠다고 찾아오면 ‘불교는 내가 부처 되는 공부다’고 한마디 일러준다. 그리고는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주고받는 동안 불교가 생활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임을 일깨워준다.

“잘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잘 사는 게 돈이 많아 잘 사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 그냥 세상 사는 얘기나 하고, 그게 모두 부처님 말씀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만 그런 것은 없어. 요즘 사방에서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떠들어대지만 우담바라 꽃이 피었으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불가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했는데. 금강경에도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해 놓았어. 부처가 나왔느니, 우담바라가 피었느니 해도 속지 말란 말이야. 기도하는 이들이나 참선하는 이들도 어떤 경계가 와도 그것에 속지말고 정신을 차려야 해. 주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허공에 다니던 잡귀들이 ‘주인 없는 집 이구나’ 하고 도둑질 해 버려. 제 정신이 없어서 자꾸 환상을 만들어. 정신을 차려야 해.”

불교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덧붙여서 중생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란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찾는 것이니 문턱이 낮아야 한다”며 출가자가 본분을 다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을 다하는 근본임을 강조했다.

“출가해서 중이 되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 출가는 명예를 구하는 것도 편안함을 구하는 것도 아냐. 삼계를 벗어나서 일체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발원이야. 그런 내용이 옛조사들의 말씀에 다 있고 행자노릇 할 적에 이미 다 배웠으니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걸 하려고 무슨 경전 읽고 무슨 경전 읽고 하면서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내용은 휴지처럼 내 팽개쳐버려. 그 내용대로만 하면 올바른 스님이 될 수 있는데도 그것은 유치원 아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무시하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많이 아는 것 보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세수 팔순 하나, 스님은 지금도 초발심을 놓지지 않고 있다.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몰라. 밥 먹고 말하고 걷는 이놈을 참구(參究) 하다보면 그렇게 돼. 마음은 첫 마음 그대로인데, 몸은 오랫동안 썼더니 여기 저기 고장이 나. 그래도 이만 하면 감사하지. 눈 수술도 해야 하지만 그냥 있어. 얼마 쓰지 않은 기계랑 갈아 수는 없으니 조금 더 적게 먹고 몸에 맞추어 살면 그만이지.”

죽림정사를 둘러싼 대숲에 묻혀 사는 스님은 두두물물(頭頭物物), 눈앞에 전개되는 산하대지가 그대로 진리라는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특별히 잘 살려고 하지마. 불교는 내가 부처님같은 인격자가 되겠다는 발원이니 그 발원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잘 살면 돼. 지난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고 뭘 잘못했으면 그걸 고치면 돼. 공부도 그와 같아서 꾸준히 하다보면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 하나 노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해.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을 즐거이 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새 우짖는 소리 그게 다 조사의 소리 아닌 게 없고, 불법 아닌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만물에 불법이 깃들어 있어.”

경주=천미희 기자

송암 스님의 수행법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는 수행이라고 할 만한 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송암 스님은 수행법을 묻는 기자에게 밥 먹고 잠자는 일상 외에 특별한 수행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 스님은 밥 먹고, 말하고, 걷는 그 놈이 무엇인지 관하고 살피는 그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했다. 일상이 그대로 수행이고 정토임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을지 재차 여쭈었다.

“그냥 하면 된다. 밥 먹는 건 누가 가르쳐 줘서 먹나? 불교 공부는 버리는 공부야. 나라는 거 버리고, 내가 안다는 것 버리고. 다 버리면 돼. 그래서 마음이 백지상태가 되면 거기다 옥동자도 그리고 황금송아지도 그릴 수 있지 않겠어?”

“일상생활이 곧 수행”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늘 관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

방하착(放下着). ‘이것이 수행이다’라는 고정관념은 물론 일체의 집착을 놓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라는 말씀이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가면 안 돼. 왜 불법을 공부하는지 투철하게 생각해 봐야지, 어영부영해선 안 돼. 그리고 조급하면 안 돼. 꾸준히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불교인의 자세야. 밥 먹고 잠자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비춰 부처님 같은 인격체가 되겠다는 발원부터 해. 별난 수행법만 찾지 말고. 특별한 게 없는데 자꾸 특별한 것을 만드니 더욱 더 혼돈만 생길 뿐이야.”

갈증나면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야 하듯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이라면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엔 물러서지 않는 정진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이다.

“차 한잔 마시는 것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어. 차를 우려내기도 전에 이미 차를 다 마셔버리는 거야. 차나 한잔 해.”

“허허 그것 참, 실없는 소리 많이도 했네.”하며 스님이 건네신 차는 빛깔도 곱고 맛도 참 좋았다.

천미희 기자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 형공 스님



“가르친 도리를 잘 터득하자. 자유의 경지를 얻은 후에 할 일은 이것이다. 유능하고 솔직하며 그리고 단정할 것, 좋은 말을 하고 온화하고, 교만하지 않을 것, 족함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잡스러운 일에 구애받지 않고 간소하게 살아 갈 것, 오근이 청정하고 겸허할 것, 단월의 집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 것, 비천한 짓을 하여 식자의 비난을 받지 말라. 다만 이런 자비심을 닦을 지니,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행복과 평화와 안락함이 있을지니.“

<자경>이라 명명한 경전의 일부다. 비구들은 조용한 장소에서 명상할 때 이 글귀를 생각 하면서 앉아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 경을 음악으로 들으면서 명상에 잠긴다. 같은 음률이 반복되는 음악 자비경은 나를 깊은 명상에 빠지게 한다.



그림 · 문병성

직접 선곡해 보낸 CD 평온과 영혼의 울림 선사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있으면 편안하다. 이런 이완은 삶의 행복 가운데 하나다. 생각도 몸도 모든 활동을 쉬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하다. 구할 때 부족하고 쉬면 편한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 자경이라는 음악 안에서 나는 비로소 편안한 쉼을 얻는다.

‘자경’이라는 제목의 음악은 지금 지리산 국사암에 머물고 있는 형공 스님이 보내 주었다.

스님은 내게 음악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편안함도 함께 보낸 것이다. 내가 주지직을 그만 두었을 때 스님은 내게 명상음악을 좀 들으라고 했다. 편한 시간에 음악을 들으면 마치 마른 땅에 비가 고이듯 음악이 영혼을 적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음악 듣기를 권했다. 그리고 스님은 그 말을 지키기라도 하려는 듯 좋은 음악들을 CD로 구워 음악의 문외한인 내게 보내주었다. 처음에는 성의가 고마워 들었던 것이 이제는 좋아서 듣는 경지가 되었다. 대단한 발전인 셈이다.

형공 스님은, 모르긴 몰라도 음악에 대단한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음악의 선곡이 신비롭고 또한 빼어나다. 문외한인 나를 음악의 세계로 이끌 만큼 그 마음 또한 섬세하다. 스님의 생활 또한 음악처럼 조용하고 감미롭다. 해제 때는 홀로 토굴에 살고 결제 때는 선방에 다닌다. 그 생활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그리던 생활이다.

나는 스님이 사는 토굴에 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가보지 않았어도 토굴에서의 스님의 생활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스님의 어투나 자세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좌선을 하고 밤이면 별을 보며 음악을 듣고, 생활은 언제나 고요와 평온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치 <자경>의 말씀처럼 조용한 자리에 앉아 족함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잡스러운 일에 구애 받지 않고 간소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와 안락함을 위해 기원할 것이다.

스님과 가끔 만나면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신다. 대화는 거의 없다. 조용한 가운데 나누는 차와 침묵 속에 듣는 음악이 이토록 깊게 다가온다는 것을 새삼 만날 때마다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을 너무 많이 해 만남이 번잡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형공 스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편안하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면 결코 어색하거나 서먹하지 않은 것은 그런 만남의 편안함을 서로 공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관계야말로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무언가 자꾸 할 말을 찾아야 하는 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다. 할 말이 없어 멋쩍게 앉아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그런 관계의 사람들은 침묵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상대방의 침묵이 따뜻하게 다가 올 때 그 관계는 편하다.

형공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편한 사람이다.

언젠가 한번은 도반 스님의 암자에서 함께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그때도 우리는 밤새도록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고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끔 밖에 나가 별을 헤었을 뿐 잡다한 대화는 삼갔다. 그럼에도 그 밤의 기억은 아직 내게 선명하게 남아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밤, 말없는 말 속에서 가장 많은 말을 나누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얘기는 우리를 넘쳐 하늘과 바람에게도 이르렀던 것은 아닐까. 말이 없어도 가장 많은 대화를 건네는 스님의 침묵 화술을 나도 배우고 싶다.

긴 여행에서 돌아와 그가 보낸, 구운 CD를 만나는 일이 이제 내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있다. 다음에는 어떤 음악을 구워 보내줄까. 그가 보낸 CD를 받을 때 마다 나는 다음에 받게 될 음악이 궁금해진다. 음악같이 감미로운 스님, 분득 형공 스님이 안거를 나고 있는 국사암이 그립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禪

참 선 교 육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데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범부선- 참선과 인과 법,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채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채 상식), 참선할때 마음가짐, 참선전에 해야할 일, 참선할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한철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토굴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토굴생활 하는 법) 선사와의 백문백답(진제선사와 백문백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소제와 부제, 화두-생각-망상, 선어록(禪語錄), 禪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입제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근일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려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련법을 제시함,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도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기란 무엇인가?, 도에 쉽고 어려움이 있는가?,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복,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분 주파수, 편안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염불수행,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십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바꾼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담선사와 백문백답, 정일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영명선사와의 백문백답]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중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조~28조, 중국사 28조~56조, 한국사 57조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찰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각권 1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참선교육 63기 교육(2월 10일 화) 오전 10시, 오후 7시 교육비 3만원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 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원광식

● 문의처 : 02-733-6141(代)
032-772-5451(代)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송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원고 송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앰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 50 - 100W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변경, 알람시간조절, 음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 INCH 3개, MP3기능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앰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저있습니다.
● 소비자가 : 4,500,000원(종 25관 + 종틀 + 스피커 3개 + 기타 = 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장보고·신돈 등 역사속 불교인

드라마로 만난다

이순신·토지 등도 준비
방송3사 수억원 투입
5월부터 잇달아 선보여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 3사는 올해 황석영, 박경리, 최인호 씨를 비롯한 유명 작가의 소설을 대형드라마로 제작한다. 지난해 사극열풍으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 방송사들마다 줄거리가 탄탄한 소설에 눈을 돌린 것. 특히 각각 신라, 고려시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인 장보고와 신돈을 집중 조명한 소설도 드라마로 제작돼 눈길을 끈다.

KBS2는 오는 10월 최인호 씨의 동명소설을 극화한 역사드라마 '해신(海神, 연출 강일수)'을 방영한다. 이 드라마는 신라시대 해상왕으로 법화원 건립 등 각별한 불심을 지녔던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전남 완도에 청해진 본영, 객사, 당나라 신라방을 재현한 오픈세트장이 건설된다.

이에 맞서 MBC는 고려시대 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신돈(극본 정하연)'을 방영한다. 이를 통해 고려말 개혁세력과 수구세력 사이에서 공민왕의 측근이었던 신돈을 요승이 아닌 개혁의 중심인물로 재평가한다. 월탄 박종화 씨의 소설 <다정불심>을 원작으로 했다.





드라마 '토지'의 역대 주인공들. 1대 서희 한혜진(왼쪽), 2대 최수지(아래), 3대 김현주(오른쪽).

또 황석영 씨의 소설 <장길산>이 80부작 드라마(연출 장형일 · 극본 이희우)로 제작돼 오는 5월 SBS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조선시대 노비의 몸에서 태어나 봉건체제를 타파하는데 앞장섰던 장길산의 일대기와 당시 민중들이 꿈꿨던 미륵사상이 그려진다.

이밖에도 7월에는 김탁훈 씨의 소설 <불멸>과 김훈 씨의 <칼의 노래> 등을 각색한 100부작 드라마 '이순신(연출 이성주 · 극본 윤영수, 윤선주)'이 KBS1에서 방영된다. SBS도 7월부터 박경리 원작의 대하드라마 '토지(연출 이종한 · 극본 이홍구)'를 방영한다. 지난 1979년과 1987년 KBS에서 두 차례 드라마로 제작됐지만 1994년 완간이후 5부작(전 21권) 전체가 극화되는 것은 처음. 이미 30억원을 들여 건설한 경남 하동군 야외세트에서 촬영이 시작됐다. 1대 한혜숙 씨, 2대 최수지 씨에 이어 김현주 씨가 주인공 서희로 낙점됐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극장가



▶ 피터팬(Peter Pan) / 가족, 판타지 / 105분
-개봉예정일: 1월16일
-감독: P.J. 호건
-출연: 제이슨 이삭스, 제레미 섬터, 레이첼 허드-우드 등
-피터팬과 웬디 등 주인공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초점을 맞춘 성장영화.



▶ 말죽거리 잔혹사 / 액션, 드라마 / 116분
-개봉예정일: 1월 16일
-감독: 유하
-출연 : 권상우, 이정진, 한가인 등
- 1978년 강남 말죽거리의 남자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당시 군사정권 아래의 학교 분위기, 젊은이들의 일상, 사랑 등을 담았다.



▶ 안녕! 유에프오 / 로맨스 / 105분
-개봉예정일: 1월30일
-감독 : 김진민
-출연 : 이범수, 이은주, 봉태규 등
-시각장애인 여성을 향한 버스 기사의 사랑이야기.



▶ 자토이치 (座頭市: Zatoichi) / 액션 / 115분
-개봉예정일: 1월 30일
-감독: 기타노 다케시
-출연: 기타노 다케시, 아사노 타다노부 등
-맹인이지만 신기에 가까운 검술을 지닌 자토이치가 원수를 갚으려는 게이샤 자매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생명 존중' 담아낸 디즈니 애니메이션

브라더 베어 16일 개봉

생명을 주제로 한 디즈니의 새 애니메이션 '브라더 베어(Brother Bear · 감독 로버트 월커, 애론 블레이즈)'가 1월 16일 개봉한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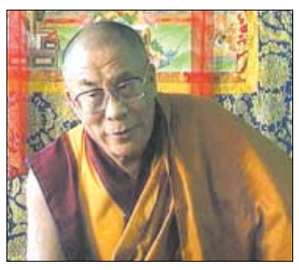
빙하기 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에스키모 삼형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삼형제의 막내 키아니는 이유 없이 곰을 미워하다 저주를 받아 곰이 돼버린다.

'브라더 베어' 미국 인디언 신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 문화권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템'이 녹아있는 영화다. 이와 함께 마치 '단군신화'를 뒤집은 것처럼 인간인 키아니가 곰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 영화의 주제인 생명, 자연, 가족애의 소중함을 관객의 가슴에도 심어준다.

애니메이션 '타잔'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필 콜린스가 영화음악에 참여했다. 한상희 기자

불교TV 설날 특집

달라이 라마의 법문 들어보세요



불교TV는 설을 맞아 1월 21일 14시 25분부터 한 시간 동안 '한국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 법문(연출 강영호)'을 방영한다.(사진)

이 프로그램은 지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한국불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법회를 담았다. 한국불자들을 위해 티베트 경전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의 10장 가운데 4장까지를 설법한 달라이 라마의 육성을 접할 수 있다. <입보리행론>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지침서다.

달라이 라마는 또 법문에 이어 특별히 한국불자들에게 새해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한상희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5: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10:05 신행상담실
15:05 음악의 마을
17:10 무명을 밝히고
21:30 BBS 초대석
24:00 살며 생각하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4일 15:25 성운대사 불경강좌
15일 09:10 밥상에 도가 있다
16일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17일 11:30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
18일 15:00 열린 마당
19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20일 12:50 설날특집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BBS 신행상담실(1월 19일 10:05~10:55)- 불교의 교리와 신행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매주 월요일에는 강남포교원 성열 스님과 함께한다. 이날 방송은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초기 불교에 대한 스님과의 상담으로 꾸며진다.

■불교텔레비전: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1월 17일 11:30~11:50)- 해인사에서 출가한 정경 스님이 직접 고안한 참선요가를 선보이는 시간. 이번 주 방송에서는 그동안 40가지 동작에서 발전해 80가지 동작을 선보인다. 17일 방송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된 '무릎 세워 비틀기'부터 '옆으로 기울이기 동작'을 연속으로 보여준다.

전시

현대예술관, 허왕 · 황영성 개인전



울산 현대예술관 갤러리는 2004년 신년 특집전으로 '허왕 · 황영성 개인전'을 1월 13일~2월 13일까지 개최한다.

부산시립미술관장이자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인 허황 선생은 모노크롬회화(단색 평면회화)부분 국내 최고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70년대부터 '가변의식'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와 형태를 표현한 흰색 히와의 정수를 보여준다.

조선대학교 황영성 교수도 사람, 동물 등의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가족 이야기' 등의 작품을 통해 기계화의 물결 속에서 점점 개인주의화 되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가족상을 따뜻하고 서정적으로 제시한다. (052)235-2143

대구 대표 화가 60인 자화상전

대구지역 유명 화가들이 자신들의 인물을 모티브로 한 자화상을 선보이는 이색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대백프라자갤러리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작고 · 생전작가 60명의 자화상을 한 자리에 모은 '자화상 60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쾌대, 강우문, 변종하 등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눈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담은 자화상이 소개된다. (053)420-8013

김두식 기자

<20면 「상식퍼즐」 정답>

불	성		감		계		전	복
편	도	선	염		산	전	수	전
	재		증	명	서		가	
대	일	경		복		간	결	미
		제	사		교	화		
삼	국	지		기		선	지	식
	부		모	내	기		수	
무	위	자	연		원	로	화	가
영	원		문		전		풍	로



남현우 씨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중에서.

디지털로 보는 전통 이미지

평창동 상원미술관서 14~20일까지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상원미술관은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남현우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전을 개최한다. '태어남과 순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형상화시키고 재해석한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남 씨의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생로병사의 인간 삶의 과정 가운데 생명의 탄생 과정을 디지털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 씨는 "한국의 신화를 '태어남으로의 순화'라는 주제를 갖고, 디지털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생명의 신비를 표현하고 싶었다"며 "작품들은 수작업 한 이미지들을 벡터 그래픽으로 변환작업을 거친 후 디지털 컬러링을 한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했기에 기성 미술과는 다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396-3185~6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게시판

■보문사, 복지 기금 마련 법회

조계종 보문사(주지 송운)는 1월 15일 오후 2시 불교TV 무상사 대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안양원' 기금 마련을 위해 석주 스님 반야심경 병풍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석주 스님 반야심경 병풍은 모두 여덟폭으로 앞면에는 큰스님의 친필 반야심경이, 뒷면에는 이한동 거사의 산수화에 수안 스님의 화제(그림위에 쓰는 시문)가 적혀있다. (02)3272-3411

■불교만화공모전 31일까지 접수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김선아, www.okbuddha.com)가 '제3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참가작을 모집한다. 불교적 소재를 다룬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이면 출품이 가능하며, 대상인 문화부장관상을 비롯해 2천만원의 상금과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과 27세 미만의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1월 31일까지. (02)3392-0334

■광진노인복지원, 봉사자 모집

서울 광진노인종합사회복지원은 주중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안내데스크, 상담실 및 프로그램 보조 등의 업무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466-6242

■청아 스님 초청, 기초교리 강좌

수원 공소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청아 스님을 초청, 기초교리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초발심 자경문을 비롯해 초심 불자들이 배워야 할 기초 경전들을 강의한다. (031)246-1001

함께 떠나요

■아동 눈썰매 축제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4일 해운대 BEXCO 실내 눈썰매장에서 '아동 눈썰매 축제'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부산 사하구 거주 초등학생이며 참가비는 1만 5천원. (051)264-9033

■조계사 성지순례

조계사는 1월 16일 오전 6시 30분 경북 영천 백흥암으로 1월 정기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장소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 (02)732-2115

클릭! 불교문화상품

옥불



고대부터 동양에서 귀히 여겨 장식석, 그릇으로 사용돼 온 옥으로 만든 제품. 한국불상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각가에 의해 중국 연태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섬세하게 조각된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는 한국불자들의 정서와도 잘 맞는다. 크기는 135×105×205㎜. 값12만원.(02)732-1520

어린이 법회 준비하며 온 가족이 '한마음'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

한순옥 포교사 가족





함께 신행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순옥 보살 가족(위). 한 보살 가족은 관음사 어린이법회(왼쪽)의 주역들이다.

어린이 법회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서울 사당동 관음사. 그 중심에는 1999년부터 5년째 어린이 법회를 진행해 오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한순옥 보살(47 · 문수행)이 있다. 한 보살이 어린이 법회를 시작한 뒤 평균 60~70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빠짐없이 법회에 참여한다. 국악, 찬불가 수업 등 어린이 불자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인기다.

한 보살이 이렇게 성공적인 어린이 법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힘이 컸다. 남편인 강희준 거사(50 · 석암)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법회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섭외부터 악보 등 준비물 챙기기

5년째 법회 진행
매주 60~70여명 참가
국악·찬불가 수업 등 체험 프로그램 '인기'

까지 크고 작은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어린이 법회의 매니저인 셈이다. 아이들 지도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 첫 회부터 함께 참여해 온 아들 강웅규(16) 군도 오늘의 어린이 법회가 가능하게 해준 숨은 공로자다.

"처음에 어린이 법회를 열려고 했을 무렵 사찰에 오는 아이들은 한명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도 먼저 솔선수범하자고 발원했죠. 이런 서원 때문인지 첫 법회 참가자는 우리 아들 뿐일 줄 알았는데 20명이나 왔더라고요."(한 보살)

올해로 중3이 되는 한 보살의 아들 강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린이법회에서 지금의 중 · 고등부 법회까지 빠짐없이 참가한 모범 청소년 불자다. 한창 사춘기인 요즘에도 매주 일요일 아침, 늦잠 투정 한번 않고 지도법사인 엄마를 따라 관음사에 간다. 이런 강 군의 꾸준한 참여가 있었기에 지금의 법회가 가능했고, 강 군은 이제 청소년법회의 맏형 격이 됐다.

이렇게 온 가족이 신행의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15년 전만해도 한 보살과 강 거사는 개신교 신자였다. 당시에도 한 보살은 성경공부와 각종 철학서를 뒤지는 '공부하는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한 보살의 종교적 갈구는 채워지지 못했고, 그러던 중 인연이 닿아 만난 한 노 보살이 추천해 준 불교서적을 통해 발심하게 됐다. 뒤늦게 눈뜬 불법에 대한 환희심으로 기도정진하며 불교대학을 다녔고, 지난 1998년 포교사 자격증까지 얻었다. 남편과는 종교를 이유로 단 한번의 갈등도 없었다. 옆에서 지켜보며 항상 묵묵히 부인의 결정을 따라준 것이다.

"서로가 좋은 사이라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선행하는 마음으로 바른 결정을 우선하기 때문에 언제나 믿고 함께하게 되지요."

한 보살의 가족은 정기법회에 함께 참석할 뿐 아니라 고아원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도 함께한다. 다른 불자가족들과 연계해 선재동자원에 정기적으로 방문, 아이들 내복이며 간식거리 등을 후원한다. 또 10년 전부터 매달 빠짐없이 자비정사를 후원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니세프 등 5~6곳을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지만 강 거사는 "매끼니를 먹는 것처럼 일상이 된 일인데 얘기할 거리가 되느냐, 부끄럽다"며 한사코 밝히기를 사양한다.

"신행, 신심 속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한 보살 가족. 이들은 새해를 맞아 가족 전체의 화두이자 가훈을 정했다. '무엇을 바라지 말라'.

"가족 간에 서로 바라는 마음 보다는 상대를 위해 먼저 베풀 줄 알아야지요. 가정에서 바탕이 돼야 타인에게도 먼저 보시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한 보살)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새해 자원봉사로 시작하세요

새해맞이 계획 세우기에 분주할 요즘, '올해는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또 불자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기도 하다. 이 때 머리 속에 스치는 생각, '자원봉사는 어떨까?'.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봉사를 시작하고 싶지만 막무가내로 덤빌 수는 없는 일. 먼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문화, 상담, 급식 등의 자원봉사에서부터 호스피스 등의 전문 영역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다.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 계발도 가능하다. 내게 맞는 자원봉사, 무엇이 있을까?

분야별 다채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
궁궐 지킴이·가정 상담·호스피스 등 다양
기본 교육 이수하고 6개월 이상 활동해야



급식봉사를 위한 반찬을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 문화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찾으면 입구에서부터 궁궐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을 한번 쯤 만나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정체는 '우리 궁궐 지킴이'. 서울의 주요 궁궐을 찾는 내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궁궐을 안내할 뿐 아니라 궁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를 들려주는 활동을 한다. '우리 궁궐 지킴이'가 되려면 수시모집에 지원, 2달에 걸쳐 총 60시간의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같은 기본교육 후에는 모든 궁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ID카드)을 발급 받고 6개월에 걸친 수습활동을 통과해야 궁궐지킴이로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재발견(www.palace.or.kr) 이나 한국청년연합회 서울지부(www.kyc.or.kr)에서 궁궐지킴이 선발, 교육과정을 담당한다.

여성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재)서울여성이 주최하는 '여성 문화 해설사 양성교육'에서는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를 배우고 유적지들을 현장 답사한다. 교육 후에는 서울시, 여성부의 요청에 따라 여성문화해설사로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다. (02)810-5042 www.seoulwomen.or.kr

▶ 가정 · 상담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정봉사원도 모집한다. 각 관련기관과 연계해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과 12시간의 자원봉사를 끝마치면 보건복지부 수료증을 수여한다. 매달 20명까지 수시로 모집한다. (02)571-2988

대구 자비의 전화에서는 매년 가정상담 및 청소년 상담요원을 선발한다. 모집을 통해 한달 동안 매주 4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봉사자에게만 상담자격을 부여한다. 오는 4월 교육예정. (053)654-9705 www.jabi.org

▶ 무료급식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하루 300여명의 급식을 위해 40명에서 50명 정도의 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명이상의 그룹 봉사자를 선호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4시간의 기초교육을 이수하면 봉사가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는 조리를 제외한 배식, 설거지, 테이블 정리, 잔반처리 등 식사제공 전반의 일을 맡게 된다. (02)739-9501 www.swcs.or.kr

▶ 전문영역-호스피스, 발마사지 등

환자의 안정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봐주는 호스피스는 불교 등 종교계의 관심이 높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정토마을과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다. 두 곳 모두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아직까지 호스피스 교육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초빙 등 교육에 드는 6만~20만원 선의 비용은 봉사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병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의 환자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을 얻는다. 정토마을 (043)298-2258 www.jungtoh.com

발맛사지(발반사요법) 자원봉사도 있다. 조계종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매주 2차례 총 6주 동안의 교육을 이수하면 관련 시설에서 자원봉사가 가능하다. 오는 2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3월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02)723-5101 www.mahayana.or.kr

▶ 자원봉사를 위한 마음가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대가나 보수를 바라지 않고 이뤄지는 일. 그렇다고 해서 전문직업 의식과 거리가 먼 것은 아니다. 단순 노동봉사와 전문분야 봉사 모두 전문가 못지않은 프로정신이 요구된다.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일정 비용까지 감수해야 한다. 교육 후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같은 의식이 부족해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지원했다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의 김기연 사회복지사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100명 중 30명 꼴"이라며 "그렇기에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수해 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목초 함초

화제의 발바닥 건강법 : 발바닥에 붙여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 목초수액시트 고객사은행사중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린분, 팔, 다리가 쑤시는분,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수액시트 특별가!



구입 찬스 고객사은행사 30 + 30매 45,000원

손발이 차거나 시린분 아픔에 시달리는분 등

몸속 해독 - 함초

바닷가 갯벌에서 자라는 신비의 식물! 함초는 순수한 염(해조류: 미역, 다시마)보다 많이 함유할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을 함유한 함초! 꾸준히 사용시 숙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며,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각종 미네랄 섭취에 도움을 주는 함초는 자연이준 귀중한 선물입니다. (자연, 냉풍, 냉동동결건조제품입니다.)

함초생산품

함초 분말(자연건조)	200g	50,000원	자매품
함초환(자연건조)	200g	56,000원	밸런스 화이버 35,000원
함초 캡슐(냉풍건조)	150g	66,000원	
함초다이어트	150g	80,000원	

기타: 함초액즙(일반, 다이어트), 함초 9곡물 팩, 함초 김, 함초 소금 등

판매원 : 가자라이프 02)5454-010
농협 : 063-02-124288 이수일 즉시 배달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서" 소개

사주학 사상 그 누구도 사주학의 요체가 되는 <용신을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지 못했던것을 본서에서는 수년간 연구 검증된 계산법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쉽게 사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이론을 습득하면 어떠한 사주이던 자신있게 상담에 임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사주학을 운명추론학에서 심리학으로 까지 발전시켜놓은 이론이기도 합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복잡하고 애매한 명리이론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았다는 점.
- 검증된 간단한 계산법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용신>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공개(억부, 음양, 구조용신).
- 심리구조분석 및 8개궁위분석 비결 / 일간진입원리 응용비결 공개.
- 각종인연 분석에 관한 확실한 분석비결 공개(육친, 재물, 지위, 결혼인연 등).
- 사주원국에 대. 세운을 대입 해석 하는 비결 공개.



◐ 저 자 : 오산 정대균
◐ 책규격 : A-4별정지 620쪽
◐ 가 격 : 220,000원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하며 입금 후 전화주시면 택배로 발송함
◐ 하나 : 751-810033-42207
국민 : 765202-04-019996
농협 : 170202-56-037616
● 예금주 :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 02)831-0055(대표)
FAX 02) 831-0058 / H · P 011-208-0051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마음의 여유와 건강 함께 챙기는 차 상품

웰빙 중심에 선 茶





운동후 차 한 잔
화장품으로 피부 보호하고
녹차 내의를 입는다



피곤한 하루 일과를 끝낸 저녁, 녹차 입욕제를 푼 욕조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푼다. 땀을 흠씬 흘리고 난 뒤에는 탄산음료 대신 녹차 한 잔을 마신다. 겨울철 까칠해진 피부를 위해 녹차 추출물이 들어 있는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 자극을 줄여준다는 녹차 내의를 입는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의식주 전반에 걸쳐 웰빙(Well-being) 열풍이 몰아친 가운데, 어느덧 차(茶)가 웰빙 문화의 중심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족'을 겨냥한 차 관련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에 민감한 웰빙족의 특성상 녹차 바람이 가장 거세게 일고 있는 곳은 단연 먹을거리 시장이다. 지난해 녹차음료의 매출은 전년 대비 60%이상 성장해 불황이라는 음료 소비시장을 무색케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말차를 이용한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생식, 과자, 떡 등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웰빙 패션의 선두주자는 속옷업체. 몸에 좋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내의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속옷 전문 브랜드 '보디가드'가 녹차를 이용한 건강 속옷을 선보였다. '녹차의 향기'는 녹차 추출물의 효과로 보습력이 탁월해 건조 피부로 고생하는 남성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미용요법도 선보이고 있다. 목욕물에 다양한 입욕제를 넣어 온천 효과를 즐기는 홈스파가 값싸게 즐길 수 있는 건강요법으로 각광받으며 피부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녹차 향기를 통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녹차목욕 상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녹찻잎을 우려낸 물에 머리를 감거나 목욕하는 민간요법을 활용한 비누와 린스 등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웰빙족' 겨냥한 상품 봇물
60% 성장 음료 시장 긴장
심신 평안 얻어 큰 인기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이나 천연제품에 관심을 돌리면서 녹차를 이용한 로션과 팩, 향수 등의 화장품과 주방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생활용품 등에도 녹차추출물이 활용되고 있다. '웰빙을 위한 녹차쇼핑몰'을 표방한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녹차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원장 한영실)의 '티 테라피(Tea Therapy)' 강의를 지도하고 있는 이은주 강사는 "육체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차와 '웰빙'은 공통점이 많다"며 "최근 차의 의학적 효능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차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

"흔히 '차'라고 하면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연상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차 한 잔 마시며 명상을 함으로써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이죠. 더구나 과학적으로 밝혀진 암 예방과 다이어트 효과 등이 녹차 열풍에 더욱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웰빙 트렌드에 따른 녹차 열풍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잘 먹고 잘 살기' 라는 웰빙의 목적과 차문화가 상당부분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 녹차가 웰빙족의 소비성향을 이끄는 하나의 '상품'으로 등장하자 뚜렷한 기준이 없는, 단지 유행에 편승해 물건을 좀더 많이 팔아보려는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차인연합회 정인오 상임이사 (한서대학교 다도전공 교수)는 "차문화는 차라는 물질뿐만 아니라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행위와 그 속에 담김 정신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차를 마시는 진정한 의미와 과정은 생략된 채 녹차라는 '현상'만 남게 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차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고 충고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생 모집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 www.dchtea.com)가 전통 차문화를 계승할 2기 신입 연구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35세 이하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로, 1차 서류전형에 이어 한문과 논술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 연구생은 5년간 차문화사 전반과 제다법 실습, 고전강독 등을 배우게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각 1부씩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 원서접수는 1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받는다. (02)504-6162

우편접수처: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APT 361동 506호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차문화 교육현장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

예절, 다도문화 생활화에 주력

근래 들어 차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에서 차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1993년 3월 전통문화산업학과로서 대학원 석사과정의 예절다도학 교육을 시작한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다. '예절정신과 차문화를 생활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예절다도학과는 그동안 차 관련 학문을 체계화하고 차문화 연구와 자료 발굴을 적극적으로 돕는 한편, 현대생활에 알맞은 차생활 교육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차와 예술' 등 교육과정 주목
축제 때 학부생에 다례 시연

교육과정에는 차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차의 시대별 변화와 전통성을 규명하는 '차문헌연구'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인도, 서양의 차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배우는 '차문화 비교연구' 차에 반영된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차와 예술'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우리 차문화산업의 실태와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차문화산업론' 등도 주목할만한 커리큘럼이다.

매년 5월경에는 학과생 모두 전남 보성 차밭에서 2박3일간의 제다실습을 하고, 학교 축제 기간에 학부생에게 차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다례를 시연하기도 한다. 또한 예절다도학 전공생과 졸업생의 다법과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워크숍을 6월에 개최한다. 중국과 일본으로의 차 유적지 답사를 비롯해 외부 전문강사 초빙 특강도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예절다도학과에는 현재 2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거의 모든 수업이 토요일에 이루어지므로 주부나 직장인의 비율이 높고 매주 지방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다.

졸업 후에는 주로 대학의 차 관련 학과 강사로 나가거나 다회와 다실 운영, 초·중·고 교사로 재직하기도 한다.

예절다도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은(28) 씨는 "대학원 과정이지만 다양한 기초 교과 과정을 통해 튼튼한 이론적 바탕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예절다도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바람은 앞으로 '성신다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다양한 다법 중 그동안의 교육내용과 학과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는 다법을 '성신다법'으로 체계화시킴으로서 '차문화 생활화를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다.

여수령 기자

interview 이명희 원장

인문, 과학적 접근 가능한 교육기관



"예절과 대화의 덕목을 기르기 위한 방편으로 차 생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절과 차문화의 전문적 연구와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합니다."

문화산업대학원 이명희 원장은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는 문화산업대학 내의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차를 역사·인문·예술·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겸임교수 영입으로 교육열 고취에 힘쓰고 있는 예절다도학과는 올해부터 서울 도봉동에 있는 생활관 '난향원'을 차예절 교육 실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빨리 터득할 수 있으려면

문 저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고 있는 불자입니다. 몸은 산간 오지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함께 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마음 도리를 완전히 터득할 수 있을는지요?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참나를 속 시원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답답한 이 마음을 통쾌하게 열어 주시기를 발원하옵니다.

답 거리가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한마음으로 뭉쳐서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간 법계와 지구 자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연에 얽혀져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 하는 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바빠서 서두르면 사람이 좀 방황이 되죠.

그러니깐 어떤 거든지, 우리가 똥을 누든지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하여간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생각을 안 하든지 하든지 그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서 안 하고 하고가 없으니까 그저 여러분은 한생각 잘해서 굴려라 이거죠. 한생각을 잘해서 굴리면 잘 생각한 대로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마음공부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진짜로 내 껍데기를 추려서 달아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속 내부를 전체 달아본다면 근수가 많이 나가겠죠. 우리가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만 말한다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모습이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면, 수레바퀴 아니라도 모두가 수레바퀴처럼 돼 있다면 항상 그냥 더하고 덜함도 없이 짧게 구르든 길게 구르든 쉬지 않고 굴러가는 것만은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수레바퀴는 굴러가는데 차이가 없이 모습은 자꾸 변하기는 변하되 금새금새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대로 자기가 공한 도리를 알고, 공한 도리를 알면 여러분이 애탄지탄할 게 없이 '함이 없이 하루가 굴렀구나. 함이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죽거렸구나. 함이 없이 식구들하고 싸웠구나. 함이 없이 웃었구나. 함이 없이 성냈구나.' 이렇게 그냥 함이 없다는 것만 알면 죄가 불을 일도 없고, 유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영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업보성이 거기 불을 일도 없고요.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 짓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 편안하다는 데 다 거기 흡수돼서 돌아가죠. 가정살이가 다 흡수돼서 돌아가요. 그냥 거저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오시면 얼굴에 기미가 끼고 벌써 저거하면 아주 애탄지탄하고 사시는 게 완연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미 좀 벗기고 살라고 그러면, 언젠가 다 벗겨져 가지고 와요.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타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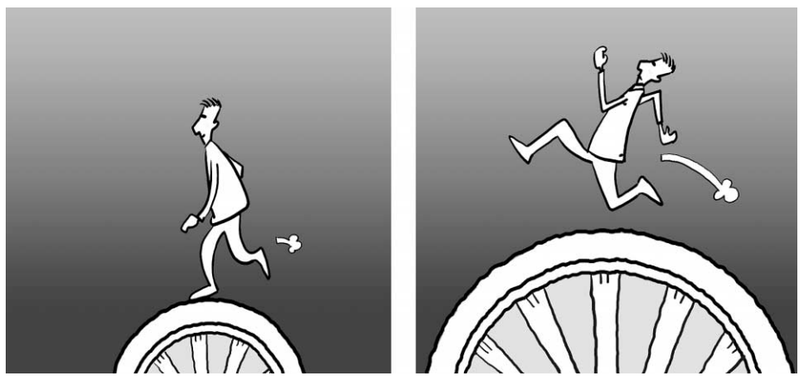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니까 말이지 이거는 우리 생명들이 살고 있는 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 간 법계가 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돼 돌아가는 거는 왜냐하면 수없이 우리가 살아오는 그 습 때문에 어찌해 볼 수 없이 툭툭 그냥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못한다 한다가 나오고 이런 거죠. 살면서 '모든 걸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할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유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밖에는 안 돼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의 법이다, 허공을 걷는다 이럴 땐 가고 옴이 없이 넘어 설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하지 못한다 한다도 거기 붙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결정을 짓는 데에 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하나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차원이 주어지죠. 또 행이 주어지고 습이 주어지고, 그 습도 함이 없이 주어지죠. 그래서 습이 없기 때문에 붙을 게 없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소리를 알아듣고 그냥 평등하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항상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그러니깐 정신계다 물질계다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그대로 법이다. 생각을 잘하면 안 붙고 모든 게 평등하고, 생각을 못하면 줄줄이 붙는다 이런 거죠. 생각하면 아주 간편하고 천 리를 한 발짝 떼 놓는 거나 같아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 한 번 하면 그 생각이 음파를 통해서 파장이 돼서 우주간 법계가 다 알게 되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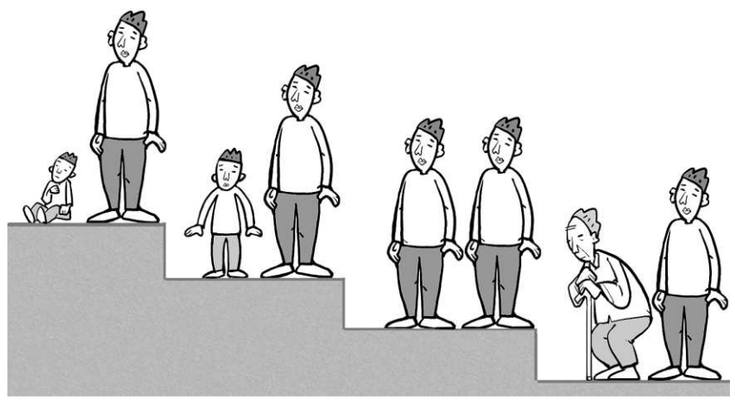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아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습이 배라면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은 바로 모습 아닌 선장이다 이런 소립니다.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아니란 얘깁니다. 우리가 그 속에는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살아나가는 진리 속에서 본다면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한 두 건이 아니죠. 우리가 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다 건지고도 남아요.

여러분 아닌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불성이자 주인공이에요. 이게 하지않은 말 같지만 여기에서 잘 묘미 있게 하신다면 정말 도구를 쥘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러니 겉으로 듣지 마세요. 하치않은 말이라도 한번 굴려서 생각해 보고 또 생각나면 생각해 보시고 그러세요. 달라질 테니까요.


그림 · 최주현

은산철벽을 뚫기 위해서는 오직 그 자리만을 뚫어야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밀고 넘어가는 믿음과 그 패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공한 것을 안다면 세세생생 자유 얻게 돼

진정 그 자리뿐인지요?

문 없는 문을 열려면 함이 없이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마냥 끝없이 걸어가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막막하고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오직 나의 근본을 찾아서 밝히는 이 공부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존재의 이유인지요? 진정 그 자리뿐인지요?

답 팔상성도라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셔서 열반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것을 너희들한테 가르치느니라.' 하는 의미로 뼈 무더기가 쌓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공손히 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생자부이신데 어찌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니라.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증조부도 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어찌 그냥 가겠느냐." 이 말 한마디로, 뼈 한 무더기를 비유한 말 한마디로 팔상성도의 과정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진화되고 형성되고, 부모 자식 형제 이렇게 바뀌 가면서 자꾸자꾸 나투어 가는 그 도리를, 그 섭류를 다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 뼈 한 무더기하고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자기가 자기를 리드하는 걸 차차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너의 심부름꾼밖에 될 수가 없구나.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내가 몸뚱이로 모습을 보일 뿐이지 그저 들이 아니게 내가 일을 할 때면 나로 하나로 돼 주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면 너로 하나가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 행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콤비가 돼서 그냥 아버지가 돼 주죠? 근데 부인이 또 "여보!" 하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럼 촐나에 남편으로 화해서 남편의 역할로, 아내와 남편 역할로 콤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애, 아무개야!" 부르면 또 아들이 되고, 그 부모 자식이 한 콤비가 돼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신이 되기도 하고 귀신이 되기도 하죠. 생각을 말입니다. 생각을 하면 법신이 돼야지 망신이 돼서는 안 되죠? 법신은 한생각으로서 굳건히, 거기다가 모든 거를 믿고 맡겨 놓으니까 애비와 자식이 동시에 움죽거리기 때문에 법이 돼서 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망신이 되면 해결도 못하고 몸만 망가지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못 살게 되고 일은 일대로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한생각을 했다 하면,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한생각 말입니다. 한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요 분수다 이거죠.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니 화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제가끔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소립니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행하질 못하느냐? 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은산철벽같이 막힌 거를 정으로다가 뚫기 위해서 오직 그 자리만 뚫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방편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들이고 내는 자리도 그 자리고, 정수에 입력돼서 나오는 자리도 그 자리고, 통신이 되는 자리도 그 자리다 이겁니다. 우주하고 직결된 자리도 그 자리고 만물만생하고 가설이 된 자리도 그 자리니 그 자리에서만이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고 보디가드가 돼 줄 수도 있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타결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 자리입니다. 위로 부모 조상들을 잘 이끌어 주는 것도 그 자리요, 자식들을 잘 이끌어 가게 하는 것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각자 여러분한테 보배가 제가끔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일체를 그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모진 세파를 견뎌내려면

문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에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작게 우리나라의 문제만 해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총선, 이라크 파병, 수도 이전 등 정치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밝은 새해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이러한 모진 세파에 주장심을 잃지 않고 내면을 일깨우는 마음공부를 흔들림 없이 해 나가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는지요?

심성 해탈이라야만이 실천할 수가 있어

답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가 공한 줄 알고 네가 공한 섭류를 안다면 모든 게 여여하니라. 그리고 공했느니라. 공한 거를 안다면 고통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세세생생에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늘이 무너진다면 하늘이 무너져서 죽는 것만 알지 내 주처가 그 무너지는 하늘도 받칠 수 있다는 도리는 모르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무서워서 벌벌 기고 피하지 내가 받칠 수 있다는 거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 한 사람이 받쳐서 여러 사람이 다 살게 되고 깔려 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까지 피하니까 하늘은 무너지게 돼 있죠.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밝아지고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정스럽고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물러서니까 안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해.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고 벌써 마음으로 물러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의 법이란, 무의 공법이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는 까닭에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닙니다. 온갖 것을 따져서 '이거는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나 '이거는 될 수 없겠다' 하는 것이나 둘 다 아닙니다. 오직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밀고 넘어가는 믿음과 그 패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체험을 통해서 실천을 해 봤습니다. 내가 해 보지 않고는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짓을

☞30면으로 계속

함이 없이 산다는 것만 알면 아무것도 붙을 게 없어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진실이며 참답게 계를 지키는 것

☞29면에서 계속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실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극난에 처해 있을 때 주인공만은 꼭 할 수 있다고 정말 믿음이 가서 내맡길 수가 있다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도 또 맡기면서 의젓하고 그냥 태연하다면 그건 가차없이 해결이 나는 겁니다. 가차없이 해결이 나는 이유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들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다 움죽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들이 보살 역할을 하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그 모습으로 들어가 조절을 해서 한마음으로 귀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일이 성사되지 않고 딴 일이 벌어졌을 때 주인공에다 맡겨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돼 준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찾는다고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몸이 아팠을 때 거기다 맡기면 약사보살이 되구요.

그러니 한 뿌리 안에서 온 가지가 다 나고 잎사귀가 다 생기고, 하나하나의 가지마다 꽃이 피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한 뿌리인 한마음에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만물만생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통신이 되니까, 가설이 다 돼 있으니까 한생각을 하면 나온다 이겁니다. 텔구멍과 같아요. 텔구멍 티끌과 같아요. 거기에서 이 우주를 덮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거기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 한생각 끝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생각 중심에서, 하나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물에서 사건이 있다면 주해신이 돼 줄 것이고 관세음보살이 돼 줄 것이고, 명이 짧으면 칠성부처도 돼 줄 것이고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보살도 돼 줄 것이고, 산에 올라갈 건이 있다면 주산신이 돼 줄 것이고…. 이 모두가 한 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각각 부르면 어떡합니까? 한 군데만 찾아서 다 그냥 차근차근히 차례차례 나오는 대로 자기의 용도에 맞추면 될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99% 부처인데 1%가 막이 막혔어요. 왜냐? 정신계 물질계가 콤비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계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물질인 자동차가 자기라고 하거든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운전수하고 콤비가 돼야 될 텐데 몸뚱이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나무가 뿌리와 자기 싹이 콤비가 돼서 자기라고 그래야 될 텐데 뿌리는 빼놓고 싹이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나가는 데 얼마나 걸림이 많겠습니까? 싹과 뿌리가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야 걸림이 없을 텐데 항상 뿌리는 빼놓고 싹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전자에 부처님께선 "너희들 깊고 깊은 마음속에 바로 참나가 있으며, 참나가 너의 몸을 형성시켜서 시자로 끌고 다니느니라." 하셨습니다. 시자로 끌고 다닌다면 몸뚱이는 항상 심부름을 해야 되죠. 몸뚱이가 없으면 상대에게 보이지 않아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형성시키는 거죠. 속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고 겉에서는 그걸 따라서 심부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몸뚱이를 자기라고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뚱이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이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참자기일 텐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 줄 수도 없고 깨닫게 해 줄 수도 없고, 똥눠 줄 수도 없고 밥 먹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죽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뿐 아니라 부모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대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가정에서 한 식구만 다니면서 배우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각자 자기가 일어설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볼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뜻을 행할 줄 알아야 하고 들 아닌 줄 알아야 하고 벗어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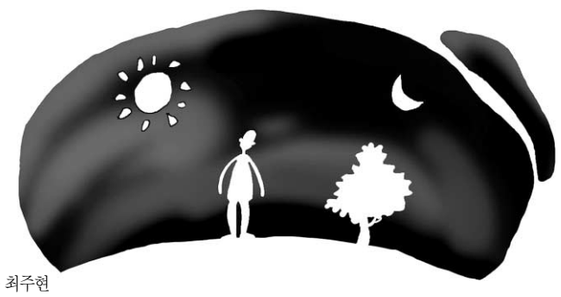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정신계다 물질계다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그대로 법입니다"

마음 한번 잘 먹고 잘 쓰는 데서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대 조사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가르쳐 줄래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느니라. 나를 따르기는 하되 믿지는 말라. 믿는 것은 네 불성, 네 뿌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끄는 사람의 말과 뜻과 행이 어떤가를 보고 따르라." 심성 해탈이 있는가 하면 학문 해탈이 있습니다. 학문으로 경전을 외로도 읽고 바로도 읽고 거꾸로도 읽고, 아무리 그렇게 해탈에 이르기까지 밝게 말로 알아도 그건 말로써 떨어지는 거지 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되질 않죠. 심성 해탈이라야만이 말은 못해도 실천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이 틀리다 저것이 틀리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안 맞다 이러면서 마음으로 이해타산을 하고 산란하게 해 봤던들 한 공기주머니 안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고 구더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싸울 생각이 납니까, 모두? 어쩌다가 형성돼서 어쩌다 한 철 나는데, 한 철 동안에 세세생생을 벗어나려고는 아니 하고 오히려 더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잔뜩 돼 가지고는 현실에 아주 살지 못하리만큼 아픈 타격을 받게 모두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한번 잘 쓰는 데, 마음 한번 잘 먹는 데 얼마나 넓어지고 둥글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지며, 위로는 조상들이 건져지고 아래로는 자식들이 영원토록 건져지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돈을 하늘만큼 다 주고 팔라고 그래도 못 파는 공부입니다. 다준다 해도 그거는 팔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질 가지고는 얻지 못하는 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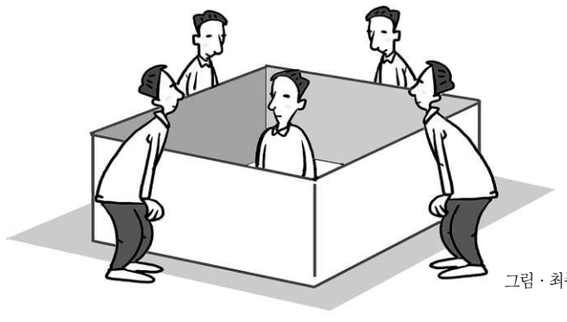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넓어지고 둥글어지고 물리가 터져

불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문 이번에 처음으로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계접을 보니 불명이 나와 있더군요. 불명은 어떻게 이름 지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불명에 담긴 뜻이 현재 나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 있어 부족한 점을 앞으로 더 공부해서 채우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계를 받았으면 실천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시를 할 때도 무주상 보시로 해야지 내가 준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시를 하는 것도 공심으로써 모든 생명을 나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지 말라.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 더도 덜도 하지 말고 나와 같이만 생각하라.' 이런 것을 실천하는 데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받았든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진실이며 참답게 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글자 풀이로만 지은 건 아닙니다. 각자 마음의 뿌리와 더불어 결부가 돼서 지었기 때문에 일체제불의 마음과 한마음으로써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 이름을 안 받았더라도, 오계를 안 받았더라도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걸 안 받았어도 받은 거 이상 가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받는 게 더 낫죠. 여러 눈 아닌 눈, 손 아닌 손, 귀 아닌 귀, 몸 아닌 몸이 한데 어우러져서 향을 피워 드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수계를 받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몸뚱이가 나오기 이전에 업보 있던 거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습의 인과에 의해서, 업보에 따라서 모든 업보의 삼분지일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삼분지일은 없어지되 수계를 받는 분들의 마음이 수계를 받을 때의 마음처럼 지극하게 마음을 잘 쓰고 오로지 내 자아부처, 주인공을 진정으로 믿고 거기다 맡기면서 모든 것은 거기서 한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을 때 다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 한 철 살다가 또 한 철 모습을 없앱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다시 진화하고 변화해서 다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상세계로 차원이 주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모습을, 생명의 모습을 타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되려고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주간 법계와 직결이 되어 있고 이 세상과도 가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계를 받을 때 들었던 마음 그대로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謹賀新年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회 주 세 민
주 지 현 호 총무용담
신도회장 심정구
■ TEL 031)444-5935 / 5936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원장 지 광
학장 묘 순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55
TEL 02)923-0582, 922-9652



요가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심신 건강을 지켜준다. (사진제공: 영진팝)

"요가하면 몸·마음 쑥쑥 커요"

겨울방학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집에 앉아 벌이는 아이의 놀이 가운데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엄마와 아이 간 '인터넷 ON-OFF' 경쟁만이 두드러질 뿐. 이런 때 아이에게 요가를 권해보는 것은 어떨까? 쌀쌀한 바람과 늘어진 일과로 움츠러든 아이의 몸과 마음에 '요가로 만드는 건강'을 안겨주자.

균형있는 발달과 성장에 큰 도움
숨쉬기 수련 통해 정서적 안정
동물·산 등 동작 취해 자연과 친숙





⊙튼튼한 몸 만들기

요가의 자세(아사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몸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길러준다. 어린이 요가로 요가 운동법을 소화한 어린이는 몸의 균형있는 발달 및 성장에 큰 도움을 얻는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뼈가 틀어진 어린이, 소아비만에 시달리는 어린이 역시 요가를 통해 골격과 몸무게를 바로잡을 수 있어, 어린이 요가는 운동과 치유 두 가지 면에서 의미있다.

▶ '낙타처럼 뒤로 넘기기'

등뼈를 바르게 정리시켜 주는 동시에 목과 어깨, 허리와 무릎, 그리고 허벅지 또한 탄력있게 가꿔준다. 들숨에 발꿈치를 잡아 허리 균형을 유지한 뒤, 날숨에 엉덩이를 앞으로 밀며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이 포인트. (왼쪽 위)

▶ '백조처럼 엎드려서 춤추기'

어른들은 힘들어도 5~9세 어린이는 무리없이 해낼 수 있는 자세. 목과 척추의 간격을 고르게 맞춰주는 동시에 허리를 유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다리와 머리가 닿는 자세가 완성됐을 때, 팔은 완전히 펴고 어깨 또한 움츠리지 않고 활짝 열어야 한다. (왼쪽 아래)

⊙안정된 마음 기르기

요가의 숨쉬기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몸속 노폐물의 배출 촉진과 신경체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특히 주위가 산만하고 신경질적인 아이들은 차분한 숨쉬기 수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이나 나무, 동물들 모양을 본떠 만든 요가 동작을 직접 취함으로써, 자연과 자연스레 가까워지는 가운데 호연지기도 기를 수 있다.

▶ '앉아서 활쏘기'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동시에 몸 전체에 활력을 불러 넣어주는 자세. 머리를 숙이지 않는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발을 귀쪽으로 바짝 끌어올려야 한다. (오른쪽 위)



▶ '머리로 서기'

요가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자세는 두뇌회전과 기억력,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팔꿈치의 넓이와 손을 깍지 낀 모양이 정삼각형이 되게 하여 그 안에 머리를 내려놓고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오른쪽 아래)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도움주신 분: 이희주 홍익요가연구원장
배정희 온살이 요가원장

요가 배울 수 있는 곳

한국명상요가센터(www.zenyoga.co.kr)	(02)522-0122
홍익요가연구원(www.yogahi.com)	(02)322-2350
온살이요가원(www.onsary.or.kr)	(063)224-8273
부림요가문화원(www.yogadiet.co.kr)	(055)222-0784
백인요가원(www.yogawon.co.kr)	(062)676-4718
안국샨티요가연수원(www.yogawon.co.kr)	(02)739-8992
한국요가연수원(www.yogakorea.com)	(02)888- 5087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❷

심, 인간의 행동 정신세계에 영향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 인간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육체(sharira)' '감각(indriyas)' '마음(manas)' '영혼 혹은 정신(atma)'이 그것이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육체는 감각의 영향을 받고 감각은 마음의 영향을 받고 마음은 정신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 인간은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감각의 영향을 받는 육체로써 생활해 나간다. 특히 어린아이와 동물들은 즉흥적이어서 감정 변화에 따라 지체없이 육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단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점차 성인이 되면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이것은 좀더 복잡하게 변화해 간다. 가정과 사회라는 집단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 권리를 수행해 가면서 이러한 감정들은 마음의 조절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마음은 자연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육체를 지배한다. 특히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 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는 곧 감정으로 표출되면서 몸의 질환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이 직접 우리 몸을 지배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어떡해서든 마음을 다스려 감정을 조절하여야 한다.

생명, 육체 감각 마음 영혼으로 구성
스트레스 쌓이면 감정 표출 질환 발생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마음은 사트바(sattva), 라자스(rajas), 타마스(tamas)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는 물질과 생명, 마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의 가장 섬세한 성질들이다. 우주 만물은 이들 세 가지 속성의 여러 가지 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의 진화 또한 이들 세 가지 속성의 상호 작용과 전환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은 생리적이거나 물리적인 역동성보다 한 층 더 깊고 심오한 차원에서 인간의 행동과 정신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띈다.

'사트바'는 지식의 질, 창조성, 도덕, 선함, 균형과 조화를 이뤄 안정성을 주는 가볍고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내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담당하며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사트바는 밝고 넓고 평화스러우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융합하는 힘과 원칙이다. '라자스'는 변하고 활동적이며 격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균형을 깨뜨리고,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목표물을 찾고, 분열과 분해를 유도하는 행동을 유발케 한다. 그러므로 내적보다는 외적 행동에 치우치게 만든다. 한마디로 라자스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 행동하고 자극한다. 이러한 불균형한 성질 때문에 결국 아픔과 고통과 비탄을 가져다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타마스'는 무디고 어두우며 무기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행동을 무겁게 하고, 가리우며 방해한다. 모든 것을 더디게 하고 제한된 곳에 가두며 시들게 하고 분해시킨다. 또한 무관심과 망상을 가져다 주고 무감각, 태만, 무지를 증가시킨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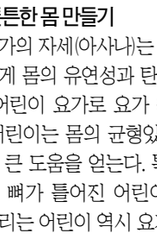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가족!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불자의 가족사랑

정녕 어떻게 하여야 나의 가족이 살아나고
평화와 행복과 성취를 누릴 수 있는가?
여기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지는데 녹아내리지 못할 업業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본문중에서 -

〈주요목차〉
Ⅰ. 자녀 사랑의 길
① 집착부터 비워라
② 불교의 자녀 사랑법
③ 자녀를 위한 기도법
Ⅱ. 부모사랑 · 부부사랑
① 효도로 부모사랑을
② 원만한 부부사랑의 길

감히 청하옵나니, 이 책을 통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차츰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보왕삼매론 강의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삼매론」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공덕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들을 속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왕삼매론 강의』를 통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터득하시고, 복덕과 향상의 길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불자의 기본예절 일타 큰스님 지음 / 값 3,500원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목욕 · 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 값 3,500원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살생 · 투도 · 사음 · 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한 법문집.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한 불자의 필독서 입니다.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일타큰스님 / 값 5,0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일러주고자 총 49가지 이야기로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을수 있습니다.

법공양문 일타큰스님 / 값 5,000원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고승들의 감명깊고 배움 깊은 글 총 45편의 법문을 모아 일타큰스님의 뛰어난 한문솜씨로 글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 이해하기 쉽게 엮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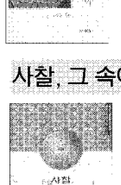
천수경 천수신앙 혜국스님 지음 / 값 5,000원

관세음보살님께서 우주의 대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일평생을 참선정진에 몰두하신 혜국스님이 선적인 안목으로 풀이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엮었다. 이 책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보자. 나를 향상시키는 깨달음의 길로 능히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심중의 소원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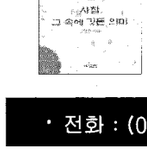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신정 · 반야의 육바라밀 수행은 모든 불교신행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으며, 불자들을 향상시켜 업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육바라밀의 실천방법 뿐만아니라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여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룰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 값 5,000원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예불문의 뜻과 함께 삼보 · 부처님 · 보살 · 10대 제자 · 16성 · 오백성 · 제대성중 등의 면모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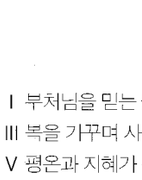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 값 7,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삶의 길을 걸을 것인가
참된 불자의 살림살이는 무엇인가

불자의 살림살이



'불자의 살림살이'는 스스로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과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쓴 글입니다. 아울러 행복을 얻는 원리, 가족사랑의 원리, 기도성취의 원리, 불자들이 꼭 알고 새겨야 할 삶의 원리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참불자가 되고 불성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정립해 보았습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

〈차례〉
Ⅰ 부처님을 믿는 불자 Ⅱ 불자의 정 · 부처님의 정
Ⅲ 복을 가꾸며 사는 불자 Ⅳ 불자의 길 · 불자의 삶
Ⅴ 평온과 지혜가 깃든 삶

우룡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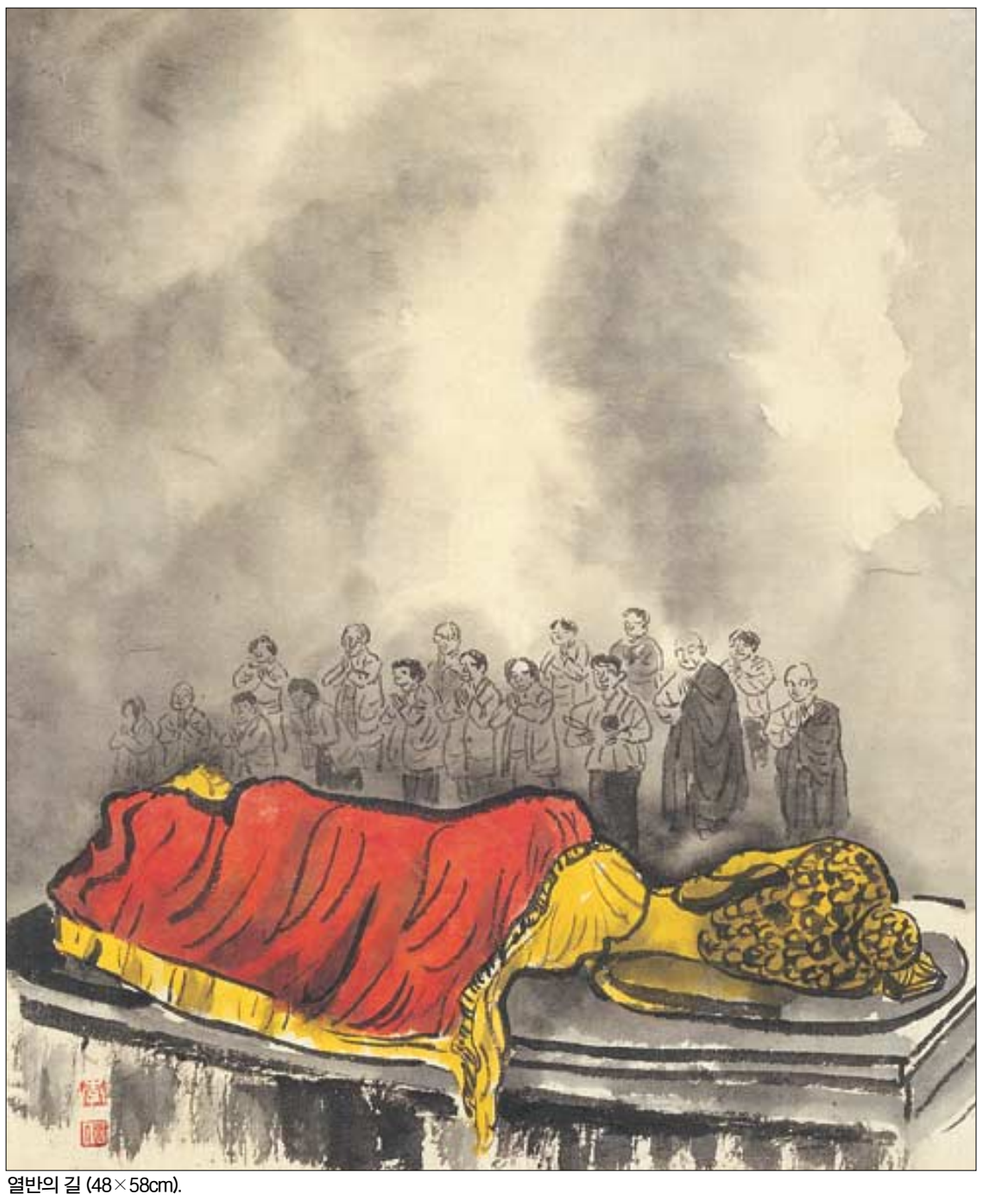
슬퍼하지 말라 죽지 않는 것 없으니

인도그림기행 32

그림·글 이호신

모든 현상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붓다 열반당, 다비장에서)



열반의 길 (48×58cm).

걸사정신으로 참된 구도자의 삶을 사신 부처님
금빛 열반상의 뒷모습에서, 애절한 숨결 느껴져

"아난다야,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일찍이 가르쳐준 바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과는 헤어지지 않을 수 없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지 않을 수 없다."

'회자정리(會者定離)요,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는 붓다의 말씀. 지난해(2003년)는 유난히 많은 선지식, 스님들께서 연이어 열반의 세계로 떠나셨다. 그 분들 중에는 지난 시절, 친견의 은혜와 더불어 존영(尊影)을 담을 수 있었던 인연도 있었다. 이제 떠나신 후 그 모습을 떠올려 보니 마치 한때의 꿈처럼 아득하다. 그러나 세상 인연은 꿈꾸듯 다시 오는 법. 한 생각 일으켜 무수한 선지식의 길을 거슬러 스승의 그림자를 찾는다. 이른바 석가세존의 원적(圓寂). 그 열반당에서의 반추.

"내가 떠난 뒤, 가르침을 말할 스승이 이미 없으니 우리들의 스승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내가 입적한 뒤에는 내가 설하고 제정한 법과 율이 너희들의 스승이다."

제자 아난다에게 설하신 붓다의 부촉은 불가(佛家)의 법(法)되고 마침내 만고의 진리로 수많은 붓다를 길러내게 한 역사의 현장, 쿠시나가르(Kusinagar). 아침 일찍 안개속을 뚫고 열반당으로 향하는 심정은 붓다의 생애를 따라가는 마지막 여정으로 숭엄함보다는 애절함이 더하다.

지금껏 그림기행에서 살폈듯이 라즈가르(왕사성)를 떠난 붓다는 나란다를 거쳐 파트나, 그리고 갠지스강을 건너 바이샬리의 암바팔리 동산에 이르렀고 마침내 바이샬리 주변 벨루바마을에서 최후의 안거를 보냈다.(대반열반경) 그리고 그 길로 쿠시나가르에 이르기전 파질나가르(Fazilnagar)마을에서 춘다(Chunda)의 공양을 받고는 심한 통증으로 한층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붓다의 열반 예언이 일찍이 있지 않았던가.

하여 붓다는 아난다에게 "오늘 아침 금세공 춘다의 집에서 공양한 것이 마지막이 되었으니, 오늘밤 내가 입적 하는 것에 대해 춘다가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는 정당한 공양의 진심어린 배려로 읽힌다. 마침내 때가 되자 붓다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모든 현상은 변한다. (따라서)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이 위대한 깨달음의 성인. 그의 죽음은 참으로 담담하고 어찌보면 평범하기 짝이 없다. 재림의 기약이나 미래의 예언도 없이 구도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조용히 가신 것이다.

또한 불가의 관행이 될까 우려해 "출가 수행승은 일절 장례에 상관 말라"는 유지는 일생을 걸사(乞士)로 살았던 참된 구도자의 자세를 살펴보게 한다.

한때 나는 어리석게도 지나온 이 머나먼 여정을 차로 달려도 어려운데 어찌 붓다가 걸어가셨을까 의문이 되어 한 선학께 일렀다.

"며칠, 혹은 몇 달을 걸어야하는 이 험난한 길을 붓다께서 어찌 걸어가셨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교통수단인 우마차를 이용하거나 코끼리, 낙타 등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돌아오는 화답은 내 무지(無知)에 대한 통렬한 질타였다.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라' 고 가르치는 붓다께서 무엇이 다급하였겠고 또 편리와 편함을 위해 동물 등에 올라탔을까요. 평생 걸사정신(乞士精神)으로 살아가신 자비의 구도자임을 떠올려 봄직이 어떠실지…"

이 부끄러운 일이 있은 후 참회로 맞이하는 오늘의 열반당. 사라나무 한 쌍이 일주문을 이룬 곳으로 일행은 따라 들어선다.

6.1m에 이른다는 거대한 금빛 와불이 열반상으로 모셔진 주변엔 티베트, 스리랑카, 일본 승려와 신도들이 모두 참배하고 있다.

살펴보니 기단부엔 슬픔에 젖은 말리부인(말리카)과 제자 아난다의 형상, 그리고 중앙에는 열반상을 제작했다는 기록상의 하리발라 스님상이 새겨져있다. 5세기경에 조성된 열반상은 모래와 진흙으로 이겨 형상을 만든 다음 금색을 입힌 것이다.

함께한 순례객을 마주하는 열반상의 뒷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지극한 참배객의 기도속에서 그 날의 영혼, 그 애절한 숨결들이 피어 오르는 것만 같다.

진정으로 붓다가 걸어간 '깨침'과 '자비'의 길은 손바닥의 안팎과 같고 나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 '진리는 곧 실천속에 있다'는 현실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그리하여 인류의 성인, 대우주의 자유인, 그리고 모든 생명의 대 보살로 우리 곁에 와 계심이여.

열반당을 나와서는 인근의 마타쿠아르 사원에서 젊은 날의 고타마 싯다르타상을 배관하고 이어 조금 떨어진 다비장으로 향했다.

흙벽돌로 쌓인 다비장은 라마브하르(Ramabhar) 스투파로 거대한 유적인데 꼭대기에 오르자 드넓은 평원이 펼쳐진다. 또 주변엔 수많은 망



의지의 불꽃 (47×32cm).

고나무가 에워싸 마치 이곳은 동산이 된 느낌이다.

스투파뒤란의 인근 사탕수수밭을 헤치고 둔덕을 따라가자 흰강이 드러났다. 그 옛날 붓다께서 건넜다는 히라냐바티강이 옛 사연을 안고 흐를뿐 목가적인 풍경도 다비장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그런데 아까부터 스투파 주변에서 일행들에게 눈길한번 주지 않고 홀로 촛불을 밝힌 티베트 스님에게 도리어 나그네의 눈길이 간다. 한때 한국의 다비장을 찾아 붓을 들었던 나와 저 수행자와는 오늘 어떻게 다르고 같은 심정일까.

마음에 불을 밝히는 일은 오롯이 스스로를 의지하는 일, 그리하여 게으르지 않게 쉼없이 정진하는 일. 따라서 산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지속이며 실천임을 다시 깨닫는다.

새해, 새날의 서원으로 자리 잡는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서울大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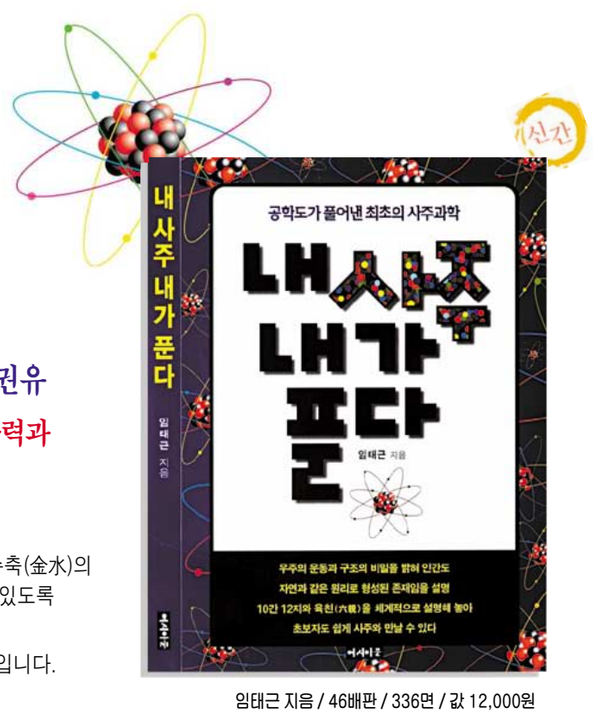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 거친 원광석
· 辛金 :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午火 :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
· 申金 :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亥水 :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
· 子水 : 고요하고 깊은 바다

- 새해를 맞아 자신의 사주가 궁금한 분에게 일독을 권유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 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